Collections of Data on Gaya

Documents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on Gaya

가야
자료
총서

가야 일제강점기 자료편

가야 자료 총서

Collections of Data on Gaya

가야 일제강점기 자료편

Documents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on Gaya

발간사

가야는 옛 기록이 많지 않아 온전한 모습을 밝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고분을 중심으로 가야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한국 고대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문헌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가야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지속되어 왔고 그에 따른 수많은 자료가 축적되었으나 이를 한 곳에 모으고 정리하는 작업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연구소가 이번에 발간하는 『가야 자료 총서 1~7권』은 지금까지 축적된 가야에 대한 자료 가운데 문헌사료, 일제강점기자료, 발굴조사자료와 국내에서 발표된 논저도 함께 집성하였습니다.

「가야 문헌 사료편」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국내 문헌 및 일본서기, 삼국지 등 국외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904개의 사료를 주요 표제로 묶고, 이 표제를 연도순으로 편집하였습니다. 가야의 주요 역사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가야 일제강점기 자료편」은 1907년 김해 회현리패총을 시작으로 1939년 고령 지산동 고분군 39호분(현 5호분) 조사까지 영남지역에서 행하여졌던 가야 관련 유적을 지역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총 8개 시·군의 33개 유적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사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유적 조사 현황과 조사내용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또 김해, 양산 등은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엽서나 야장 내용을 통해 조사 당시의 구체적인 모습도 담을 수 있었습니다.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은 목관묘 단계에서부터 6세기 중엽까지 경남, 경북 고령, 호남 동부지역의 38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발굴조사를 통해 가야와 관련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된 638개 유적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영·호남뿐만 아니라 서울, 충청, 강원지역에서 가야 유물이 출토된 유적 90개소도 함께 소개하여 국내 가야의 조사 정보를 총망라하였습니다. 특히 유적의 좌표를 기반으로 정확한 위치와 범위를 나타내어 학술자료뿐만 아니라 정비·보존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발간하였습니다.

「가야 논저 목록편」은 고대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가야와 관련된 문헌자료, 금석문자료, 지표·발굴조사보고서, 도록 등 기초자료와 주제별 논저자료를 모아 총 5,164건을 수록하였습니다. 또 저자별, 지역별, 각 가야별 색인을 부록으로 붙여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앞으로도 일본 내 가야 유적·유물 자료, 국외에서 발표된 논저목록 등을 정리한 총서를 추가 발간하고 자료의 최신화도 꾸준히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가야 역사문화자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통해 연구자뿐만 아니라, 국민이 가야 관련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되는 자료 총서가 가야사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라며, 대중적으로도 가야사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많은 회의에 참석하시어 총서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자문위원님, 바쁘신 와중에도 원고 집필과 수차례에 걸친 교정을 흔쾌히 맡아주신 집필위원님, 그동안 가야사 규명을 위해 현장에서 모은 소중한 자료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국·공·사립·대학박물관과 조사·연구기관, 지자체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장 김 삼 기

일러두기

1. 이 책은『가야 자료 총서 2권 －가야 일제강점기 자료편-』으로, 1907년부터 1939년까지 조선총독부, 일본인에 의해 현황조사나 발굴조사가 실시된 가야 관련 유적을 지역별로 정리하였다. 총 8개 시 · 군의 33개 유적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가야 유적 여부는『가야 자료 총서 3~6권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에 수록된 유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단, 현재 유적 위치를 알 수 없지만, 조사 당시 가야 유구가 확인되었거나 유물이 출토(수습)된 유적은 수록하였다.

2. 이 책은 총 5회의 자문회의 및 편집회의를 거쳐 수록 대상 유적을 선별하고, 집필진 구성과 편집 방향 등을 설정하였다. 원고 집필자 및 편집자는 아래와 같다.
   - 개요, 김해 · 양산 · 진주 · 고성 : 정인성(영남대학교)
   - 함안 : 김동호(영남대학교)
   - 성주 : 김은경(세종문화재연구원)
   - 창녕 : 박장호(세종문화재연구원)
   - 고령 : 주홍규(영남대학교)
   - 사진 · 도면 선별 및 편집 : 정인태, 윤다혜(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3. 사진·도면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계명대학교박물관(가나다 순)이 제공하였다. 수록 자료의 대부분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리건판사진과 조선총독부 보고서, 문서 등이기 때문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제공처일 경우, 별도로 제공기관을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국립중앙박물관 이외 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의 경우만 출처를 명시하였다.

4. 이 책은 개요, 조사 자료, 부록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사 자료는 경남 동부지역(김해·양산), 경남 중서부지역(함안·진주), 경남 북부·경북지역(창녕·고령·성주), 경남 해안지역(고성) 등, 지역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5. 각 지역별 수록 순서는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순으로 정리하였다.

6. 이 책의 표기방식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표기하였다.

〈표기 방식〉

- 유적명 : 조사 당시의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일부 유적은 현재의 명칭으로 기재하였다.

- 한자 : 지명, 인명, 용어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병기하였고, 한번 표기한 한자는 다시 표기하지 않았다.

- 길이, 면적 : 조사 당시의 단위를 표기하고, 현재의 미터법으로 환산하여 병기하였다. 당시 도량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리(里)=392.7m, 1정(町)=109.1m, 1간(間)=1.81m, 1보(步)=1.2m, 1척(尺)=30.3cm, 1촌(寸)=3.03cm, 1분(分)=3.03mm, 1정(丁)=9,917㎡, 1반(反)=991.7㎡, 1무(畝)=99.17㎡

- 사진·도면명 : 국립중앙박물관에 등록된 자료명을 기준으로 표기하되, 지역명은 가급적 생략하였다. 촬영·조사·실측·측량·제도 연도 및 사람, 기관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이를 표시하였다. 사진 · 도면명에 일본 인명의 경우는 '성'만 일본어 원음대로 표기하였다. 유리건판사진은 건판번호를 표기하였으며, 고적조사보고 등 책에 수록된 자료는 출처를 표기하였다. 원 도면을 수정하여 인용한 경우는 '수정인용'으로 구분하였다.

- 각주 : 가급적 생략하였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본문에 출처를 표기하였다.

가야 자료 총서

Collections of Data on Gaya

1권 가야 문헌 사료편

개요 가야의 기록에 대한 이해

사료
사료 표제
연도별 사료

부록 사료 목록

2권 가야 일제강점기 자료편

개요 일제강점기의 '조선고적조사'와 가야 유적

조사 자료
Ⅰ. 김해
Ⅱ. 양산
Ⅲ. 함안
Ⅳ. 진주
Ⅴ. 창녕
Ⅵ. 고령
Ⅶ. 성주
Ⅷ. 고성

부록 조사 연표

3권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 Ⅰ

개요 고고학으로 본 가야

경남동부·부산지역
Ⅰ. 김해
Ⅱ. 부산
Ⅲ. 양산
Ⅳ. 밀양
경남동부·부산지역 가야 유적 목록

4권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 Ⅱ

경남중부·서부지역
Ⅰ. 창원
Ⅱ. 함안
Ⅲ. 의령
Ⅳ. 진주
경남중부·서부지역 가야 유적 목록

5권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 Ⅲ

경남북부·경북·대구지역
Ⅰ. 창녕
Ⅱ. 합천
Ⅲ. 산청
Ⅳ. 거창
Ⅴ. 함양
Ⅵ. 고령
Ⅶ. 달성
Ⅷ. 성주
경남북부·경북·대구지역 가야 유적 목록

6권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 Ⅳ

경남남해안·전남·전북지역
Ⅰ. 고성
Ⅱ. 통영
Ⅲ. 거제
Ⅳ. 사천
Ⅴ. 남해
Ⅵ. 하동
Ⅶ. 전남
Ⅷ. 전북
경남남해안·전남·전북지역 가야 유적 목록

가야 유물 출토 유적
Ⅰ. 영남
Ⅱ. 호남
Ⅲ. 서울·충청·강원
가야 유물 출토 유적 목록

부록 가야 유적과 유물 출토 유적 목록

7권 가야 논저 목록편

Ⅰ. 기초 자료편
1. 문헌 자료
2. 금석문 자료
3. 지표·발굴조사 보고서
4. 도록

Ⅱ. 논저편
1. 정치·군사
2. 사회
3. 문화
4. 경제
5. 외교
6. 지리·교통
7. 종교·사상
8. 유적
9. 유물
10. 고고이론·분석
11. 민속·신화
12. 어문
13. 기타

부록 색인

Contents

개요

조사 자료

부록

가야
자료
총서

Collections of
Data
on Gaya

가야 일제강점기
자료편

Documents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on Gaya

개요

일제강점기의 ‘조선고적조사’와 가야 유적

일제강점기의 ‘조선고적조사’와 가야 유적

일제강점기의 ‘조선고적조사’

일본인들에 의한 한반도의 고적조사는 강제병합 이전 즉 19세기 말부터 이미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다. ‘조선고적조사사업’의 시작인데 학술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조선 침략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초창기의 고적조사는 알려진 것처럼 도쿄제국대학의 교원이나 출신 연구자가 주축이 되어 실시되었다. 인류학 교실의 야기 쇼자부로八木奘三郎와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건축학 연구실의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문학부의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와 이마니시 류今西龍, 그리고 야쓰이 세이이쓰谷井濟一가 대표적이다. 이들이 실시한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교토제국대학의 교원이 된 하마다 고사쿠濱田耕作와 열품실 조수였던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 등이 조선고적조사에 뛰어들면서 그 외연은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 특히 1916년에는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조직을 갖추면서 조선총독부가 그 실권을 완전히 틀어쥐게 되었다.

제국대학 출신의 교원과 연구자들이 주축이 되었던 조선고적조사는 일본 정부차원의 식민지 경영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구자들은 조선고적조사가 식민지 지배이데올로기를 창출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국가권력의 의중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다. 조사에 참여했던 많은 관학자들이 실제로 신공황후 삼한정벌설과 관련된 자료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임나일본부와 관련된 고고학적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특히 조선고적조사사업의 숨은 설계자인 도쿄제국대학 사학과의 구로이타 가쓰미는 직접 가야 유적을 현지 조사하였다. 그 동선이 김해와 함안, 고령, 진주, 하동 등에 이르는 것을 보면 임나일본부의 실체 확인이 조선고적조사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크기를 짐작하게 한다. 같은 도쿄제국대학 사학과 출신인 이마니시 류와 야쓰이 세이이쓰 역시 신라와 가야관련 유적의 현지 조사에 열을 올렸는데 이 역시 구로이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제국대학 출신의 일본인 관학자들이 주도한 조선고적조사사업이 식민지 경영정책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는 점은 많은 연구자들이 비판을 거듭해 왔다.

최근에는 일제강점기의 고적조사사업을 단순히 비난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내용을 재검토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기왕에 조사된 유적을 재발굴하여 새롭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특히 가야 관련 유적으로는 동아대학교박물관이 재발굴하고 보고한 양산 부부총이 대표적이다. 특히 고적조사 과정에서 발굴되어 일본으로 반출된 유물을 현지에서 재실측하여 보고서에 게재한 것은 획기적인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부산대학교박물관은 김해패총을 재조사하여 일제강

점기의 조사내용을 확인하고 퇴적양상을 재검증하였다. 최근에는 창녕의 송현동과 교동 고분군이 재발굴되어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조사되었던 고성 송학동고분도 재발굴과 보고작업이 이루어졌다.

가야사와 가야 유적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최근에는 여러 지자체에서 앞을 다투어 관련 유적을 조사하고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함안지역의 중요 유적에 대한 재발굴 작업이 진행 중이며 고령지역과 김해, 고성 등지에서도 중요 가야 고분과 생활유적에 대한 조사와 정비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고적조사의 성과를 의식할 수 밖에 없었던 학계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다. 일제강점기 조사 내용의 재검토 작업은 학술자료의 확보와 재인식이라기보다는 연구사 정리라는 차원의 접근이 많다.

그런데 생각하건데, 조선고적조사를 연구자 차원에서 경험한 한국연구자가 없었기 때문에 해방 이후 오랫동안 그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은 실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최근 조선총독부에서 보관하던 조선고적조사와 관련된 다양한 문서류와 사진이 전면 공개되면서 이제서야 일본 연구자들이 독점하였던 조선고적조사의 내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일제강점기의 가야유적과 가야사에 대한 연구성과가 오랫동안 우리학계의 연구에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조선고적 조사사업'의 개관

일제강점기의 고적조사 사업은 일반적으로 박물관협의회에 고적위원회가 설치되어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이 공포된 1916년이 되면서 제도화된다.

이후 조선총독부가 사업을 주도하게 되는데 '고적조사 5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1916년이다. 이후 고적조사사업은 전국적으로 많은 성과를 쏟아낸다. 평양을 중심으로 고구려와 낙랑 관련 유적이 조사되었으며 영남지역에서는 신라와 가야유적들의 조사가 두드러졌다. 한강유역과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는 백제와 관련된 유적들이 많이 조사되었다.

관동대지진 이후 여러 사정이 겹친 일본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으로 한반도 내에서의 고적조사사업도 위축된다. 그러나 조선사 편찬을 주도했던 구로이타 가쓰미의 노력으로 조선총독부의 외곽단체인 '조선고적연구회'가 설립되어 조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결국 1916년과 1931년은 조선고적조사 사업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즉 19세기 말에서 1915년까지를 조선고적조사 제1기로, 1916년부터 1930년까지를 제2기로, 마지막으로 1931년부터 해방까지를 제3기로 보아 조선고적조사사업을 살피는 것이 관련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시선이다. 제1기는 강제병합이 이루어지는 1910년을 기준으로 전후로 나누어지며 제2기는 학무국에 설치했던 고적조사과가 폐지되는 1924년이 기준이 되어 전후를 나눌 수 있다.

고적조사를 현장에서 담당했던 실무자를 중심에 두고 살핀다면 야쓰이 세이이쓰가 중심이었던 시기(1902~20년)와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가 그 중심에 있었던 시기

(1921~45년)로 나눌 수도 있다. 야쓰이 세이이쓰는 세키노 다다시를 도와 조선고적조사의 초창기에 실시된 대부분의 가야유적의 현지조사를 담당한 인물이다. 그러나 관련된 일체의 보고서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내용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반면 이 시기 교토대학의 하마다 고사쿠를 도와 고적조사사업에 참가한 우메하라 스에지는 조사내용을 해마다 비교적 소상하게 남겼다.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가야 관련 유적 중 보고되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적은 대체로 우메하라 스에지의 보고에 기인한다. 이마니시 류도 가야 유적에 관한 보고를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야쓰이 세이이쓰가 조사보고서를 남기지 않았던 것은 이례적이다.

식민지 지배 이데올로기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조선총독부의 인식과 지원하에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조선고적조사 사업은 태평양전쟁이 본격화되면서 크게 위축되었다.

조선고적조사와 참여 연구자들의 '가야관'

조선고적조사를 주도했던 일본연구자들의 '가야관'은 조선고적조사 사업의 초창기 보고였던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3의 해설 '임나任那'부분에서 잘 드러난다.

조선고적조사 5개년 계획이 시작되던 해인 1916년 3월에 간행된 『조선고적도보』3의 해설을 요약해서 살피면 아래와 같다.

"임나란 (일본)국사의 칭호를 습용襲用한 것인데 한사韓史에서 말하는 가야연방을 가리킨다. 그 건국연대는 분명하지 않으나 인강隣强 신라의 압박이 심해지자 숭신천황崇神天皇의 시절에 이미 우리에게 원조를 구했는데, 살피건데 오래전부터 변한의 땅에서 흥기하였다. 한토韓土에서 우리 직속의 땅이었지만 흠명천황欽明天皇 23년(562년)에 신라에 병합되고 말았다. 그 영토는 신축이 심하였지만 대체로 낙동강유역의 경상남도 대부분과 경상북도의 서남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다." 짧은 정리이지만 일제강점기를 관통하여 유지되었던 핵심 연구자들이 가졌던 '가야관'의 대강이 드러난다. 가야는 곧 일본사의 임나이며 이는 일본 직속의 땅이라는 이해이다.

신라, 가야의 강역에 대한 인식은 지금 우리학계의 기본 이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보면 결국 문헌사료가 부족한 가야사 연구는 고고학적 조사성과에 바탕했던 일제강점기의 연구성과를 무시할 수 없었던 분위기가 지속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적조사 초창기에는 대가야와 주산성, 함안 부근을 조사하였으며 창녕과 목마산성과 김해 등지를 답사하고 도굴에 준하는 발굴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김해 수로왕릉은 그 시기를 알 수 없으며 가야의 시조왕릉이라는 지역의 전승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 후대에 도굴을 당한 것이 분명하기에 지금의 봉분이 원래의 모습이 아닐 것이지만 그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였다.

세키노 다다시가 함안지역의 가야유적에 대해서 내린 개관도 중요하다. "경상남도 함안군은 아라가야의 고지인데 옛적 일본부가 두어졌을 때 안라의 땅에 해당한다. 읍북의 성산에는 석성이 남아있고 서북 구릉에는 고분이 산포한다. 모두가 임나시대에 속하는 것인 듯하다." 초기 고적조사를 주도한 세키노 다다시와 조수였던 야쓰이 세이이쓰는 임나일본부가 실제했었다고 믿었으며 그것이 함안에 있었다고 판단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고적조사 초기에 거창과 선산을 조사하여 가야라 인식하고 진주 등지에서 발견된 고분과 출토유물 역시 임나와 연결시켰다.

방대한 『조선사朝鮮史』의 편찬을 주도하고 나아가 세키노와 접속하여 조선고적조사 사업의 방향과 기구 구성, 담보해야 될 내용을 정했던 도쿄제국대학 사학과의 구로이타 가쓰미도 김해와 함안, 선산, 진주 등 임나일본부의 중요 유적을 직접 조사하기도 하였다. 신라지역 특히 경주에서의 고적조사에 열을 올렸던 이유가 '신공황후 신라정벌설'의 확인(실증)이 목적이었다면, '임나일본부'의 물적 증거확보가 가야유적에 대한 열성적인 답사와 굴착조사의 강한 동기였음이 드러난다.

1909년에 실시된 세키노-야쓰이 조사단의 조선고적조사 예비조사에서는 김해패총에 대한 답사가 이루어진다. 그 내용을 적은 야쓰이 세이이쓰의 수기에는 김해 답사에서의 희망 성과가 적나라하게 묻어난다. 김해평원 곳곳에 임나일본부를 구성하는 분자들이 존재할 것으로 굳게 믿었으며 심지어 김해 이주의 일본인들을 고대 임나일본부의 이주 일본인들과 같은 성격의 이주민이라고도 하였다.

메이지 후반기의 도쿄제국대학의 학부 수업에서 그들은 '신공황후 삼한정벌설'과 '임나일본부설'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학습하고 공유하였다. 특히 야쓰이 세이이쓰가 남긴 자료에는 학부 때 임나일본부와 관련하여 작성한 논문 습작이 남아 있다.

이상 일제강점기 가야유적의 조사와 연구를 주도했던 연구자들의 '가야관'을 참고하건데 그들이 '조선고적조사'라는 이름 하에 실시했던 가야 유적의 조사 내용에 대한 재검토 작업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한국고고학의 숙제라고 할 것이다.

가야
자료
총서

Collections of
Data
on Gaya

가야 일제강점기
자료편

Documents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on Gaya

조사 자료

I. 김해

01 회현리패총

01 회현리패총
會峴里貝塚

개요

김해 회현리패총은 행정구역 상 김해시 봉황동 253번지 일대로 유적이 입지한 김해 시가지는 동쪽의 분산성(해발 323m), 서쪽의 경운산(해발 378.6m), 서남쪽의 임호산(해발 177.9m)에 둘러싸인 삼각형의 골짜기를 이루며, 그 가운데를 관통하여 해반천이 흐른다. 패총은 이 하천변의 동쪽에 접한 봉황대 구릉(해발 45m) 동남쪽 말단부에 위치한다. 봉황대와 회현리패총은 그 사이에 있는 도로로 인해 마치 2개의 독립된 구릉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하나로 연결된 것이다. 패총 정상부는 해발 15~20m이다.

회현리패총이 처음 발견되고 조사된 일제강점기 초에는 김해패총으로 명명되었으며, 유적을 처음 발견한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붙인 것이다. 이후 조선총독부에서 1934년 8월 27일 고적 2호로 지정하면서 김해 회현리패총이라고 정식 이름을 붙였다. 1961년 1월, 김해 회현리패총의 학사적 중요성에 근거하여 사적 2호로 지정되었고, 2000년 2월에는 부근의 봉황동유적을 묶어 김해 봉황동유적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이마니시 류(1907년 8월), 시바타 조헤이柴田常惠(1907년 10월), 야쓰이 세이이쓰谷井濟一(1909년 12월), 도리이 류조鳥居龍藏(1914년 1월, 1918년 10월),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1915년 6월), 하마다 코사쿠濱田耕作·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1920년 10월), 가야모토 가메지로榧本龜次郎(1934년 12월) 등 총 8번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해방 후 1998년 부산대학교 고고학과와 2005년 삼강문화재연구원에서 현재 패총전시관 부지 주변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고, 패총 주변의 봉황동유적은 다수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조사내용

1907년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로 보건데 김해 회현리패총(이하 김해패총)과 봉황대가 최초로 학계에 알려진 것은 1907년의 일이다. 당시 도쿄제국대학 문학부 사학과 대학원생이었던 이마니시 류가 김해패총을 발견하고 부분적으로 굴착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마니시 류는 이미 1906년에 경주를 중심으로 경상도 지역을 여행한 바 있었다. 당시 경주 남산에서 석기시대의 유물인 소형 마제석기를 채집하고는 고무되었다고 기록하였다. 당시 울산과 영일 방면을 여행하면서도 석기유물의 채집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석기가 동반되는 패총유적의 확인이 중요한 여행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일본에서 '일본민족의 기원' 문제가 화제가 되었기에 한반도의 상황은 당시 연구자들에겐 초미의 관심사항이었다.

1907년 이마니시 류는 다시 부산으로 건너와 답사여행을 속행하였다. 부산에서 낙동강 하구로 이동하여 하단으로 나와 낙동강의 동안을 거슬러 올라가 구포에 도착하였다. 구포에서 서쪽으로 걸어 강을 건너서 김해에 도착했다 한다. 1907년 더운 8월이라 하였는데 정확한 날짜는 확인되지 않는다. 김해에 도착하여 역사 지리와 관련된 탐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김해에 도착한 첫날 저녁 무렵에 봉황대라 불리는 구릉을 조사하였다. 김해패총을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라 봉황대를 따라 올라 김해패총 쪽으로 내려오는 동선이었다. 언덕을 오르는 과정에서 절토지 단면상에 패각이 있음을 확인했다. 당시 조선의 현지인들이 실생활에서 패각을 버리는 사례가 있는 것을 알고 주의깊게 이를 비교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새로운 패각이 아니라 오래된 패각층임을 확신했다.

봉황대에서 패총의 흔적을 발견하고는 그 다음날 굴착조사를 결심하고 구릉의 동쪽 허리를 돌아 김해패총 방향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기와편을 발견하였으며 또 다른 패각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구릉의 남쪽에는 발 하나가 하얗게 변할 만큼 패각층이 현저하였다. 즉 봉황대의 동남쪽에도 패각층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다음 지금의 김해패총 구릉으로 건너간다. 즉 봉황대에서 건너뛴 동남방향의 소구릉에서 노출된 측면이 하얗게 변해 있음을 발견하였다. 모두 오래된 패각임을 확인하고 환호하였다. 대규모의 패총임을 확신하였지만 해가 저물어 그 다음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조사에 착수하였다.

김해패총의 발굴조사를 도운 것은 김해지역의 일본인 사카이였다. 그리고 김해 분지에 또 다른 패총이 2군데 더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튿날 일본인 경관이 인부를 확보해 주어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발굴조사에서 확보된 토기류를 통해서 이것이 일본열도의 야요이토기와 같은 성질의 것임을 확인한다. 조사는 불충분하였지만 본인보다는 도쿄대학 인류학교실의 시바타가 방한할 예정임을 알고 정식조사를 양보하려 한다고 하였다. 사학잡지에 소개된 조사내용은 일본 국내의 여러 연구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일본민족의 기원'을 추적하던 많은 연구자들에게 일약 가장 주목받는 유적이 되었다.

이마니시 류의 결론은 "소량이지만 석기를 사용하면서 한편으로는 금속기(철기)가 보급된 과도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유적"이었다. 일본 내지 죠몬패총과는 성질이 다르고 토기도 진보된 늦은 것이라 하였다.[1]

1
1908년에 김해패총을 조사한 도리이 류조도 층위상 석상묘(지석묘 관련)가 패총에 선행하며 패총토기는 전반적으로 삼국시대 토기류보다 선행한다고 주장하였다.

1909년

1909년 세키노 다다시關野貞와 처음으로 조선고적조사를 실시한 도쿄제국대학 문학부 사학과 출신의 야쓰이 세이이쓰는 대학의 졸업동기였던 이마니시 류가 발견한 김해패총을 답사한다.

당시 105일간의 답사일정을 마치고 부산으로 돌아온 직후였다. 조사단장이었던 세키노는 도쿄에서 급전을 받고 귀국한 뒤였다. 사진촬영을 전담했던 터라 그 정리작업에 몰두하였지만 짬을 내어 김해지역을 답사하였다. 기록을 살피건데 1909년 12월 24일부터 2박 3일이 소요된 단기답사였다. 낙동강을 3번이나 건너는 경로였다고 한다. 귀로에

는 강이 얼어 망치로 얼음을 깨면서 나룻배를 저었다고 한다. 구포에서 부산역까지는 기차로 이동했다고 하기에 왕복 행로를 얼추 복원할 수 있다.

부산 - 구포 - 나룻배 - 섬(중도)에 상륙하여 도보 - 나룻배 - 도보로 초선대로 이동 - 김해읍성 - 김해패총으로 그려진다.

그가 제1차 조선고적조사에서 단장 세키노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김해패총과 김해지역 답사를 감행한 것은 '임나일본부'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그가 학부 시절에 남긴 자료에는 '임나일본부'와 관련된 습작이 발견된다. 김해를 답사하면서 김해평원 곳곳에 임나일본부를 구성하는 분자들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한다. 심지어 당시 김해로 이주하여 농사를 짓는 일본인 이주민들을 임나일본부의 일본 이주민들과 오버랩시키기도 하였다.

김해읍성에 도착한 야쓰이 세이이쓰는 김해읍성을 중심으로 허황후릉과 김수로왕릉을 둘러보고 봉황대와 김해패총을 답사하였다. 파사석탑을 지역민이 감기에 효험이 있다고 쪼아서 가져간다고 기술하였다.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청취조사가 있었을 것이다. 임진왜란 당시 수로왕릉이 도굴되었음을 기록하였다. 이는 문헌기록을 통해서 김해의 고적에 대한 사전 정보수집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김해패총을 둘러본 야쓰이는 굴착조사를 감행한다. 정확하게 어떤 지점을 발굴하였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세키노 다다시가 이 때 남긴 사진자료나 도면, 기록류로 보건데 층위를 의식한 패총 해석 작업은 인정되지 않는다. 전체 출토유물을 통해 시기를 가늠하려고 하였다. 패각과 토기편만이 출토되었기에 시기가 늦은 패총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한 결론은 석기가 출토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인하였다. 후에 '금석병용기'의 패총으로 인식되게 되는 김해패총의 이미지는 이때부터 쌓여갔던 것이다.

이때 출토된 유물은 도쿄로 반출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 해 평양이나 경주

김해읍성 남문 밖 패총(1909년 촬영, 건판 90547)

에서 발굴한 유물도 모두 도쿄제국대학으로 반출했기 때문이다. 세키노 다다시가 관여했던 조사의 경우 도쿄제국대학 건축학연구실에 보관하였으며 야쓰이 세이이쓰 단독 조사유물은 문학부 열품실에 보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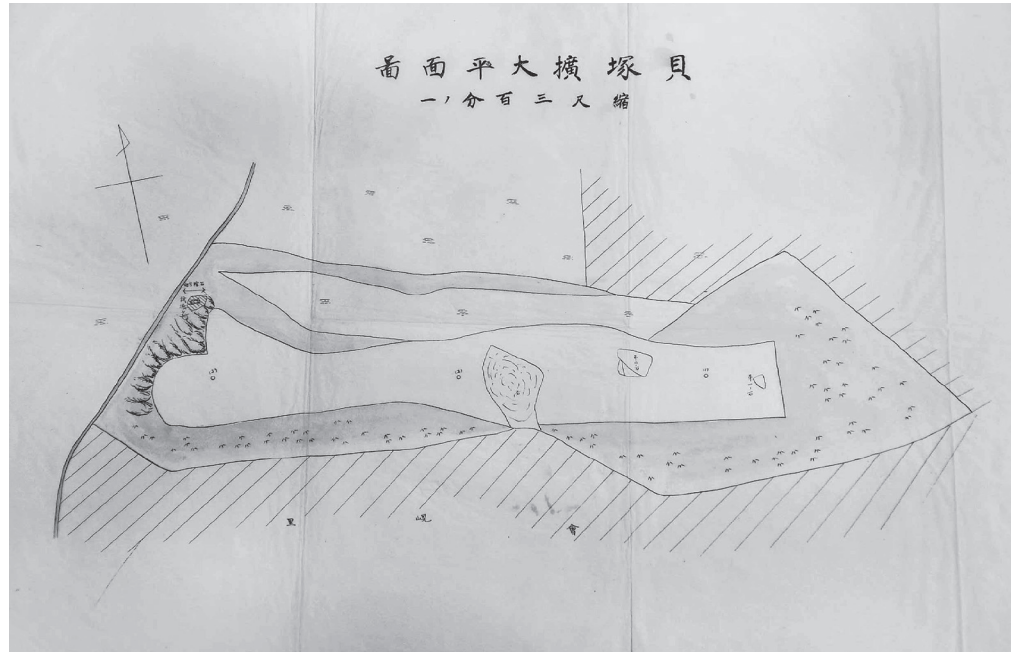
도쿄제국대학 건축학연구실로 반출한 유물은 대개 지금도 남아 도쿄제국대학 박물관에 보관되었지만 문학부의 유물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관동대지진으로 인하여 모두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1914·18년

1914년과 1918년에는 도리이 류조가 김해패총을 조사한다. 도리이 류조의 논문과 회고록을 통해서 두차례 조사했음을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회고록에서는 1913년(대정 2년)과 1915년(대정 4년)에 조사한 것으로 언급하였으나 유리건판과 조선총독부 공문서를 통해 확인한 실제 조사연도는 1914년과 1918년이다.(國立金海博物館 2014)

도리이 류조는 알려진 것처럼 도쿄제국대학 인류학연구실 소속이었다. 그의 발굴은 제법 정교한 층위학에 기반한 조사였다(國立金海博物館 2014). 김해패총의 하층에 석관묘가 조영되었고 양자의 사이에 간층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김해패총의 구릉에 존재하는 지석묘의 시기가 봉황대 주변에 패층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시기보다 오래되었음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고고학적 증거이다. 지금도 김해패총의 시간적 위치를 결정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패총 및 봉황대 부근 평면도(도리이 제도, 國立金海博物館 2014)

도리이 류조의 조사내용은 최근 국립김해박물관의 노력으로 비교적 선명하게 공개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남아 있던 도리이 채집(발굴) 유물이 소개되었고, 일본의 도쿠시마 현립박물관 등지에 남아 있던 도면류와 지도, 사진 등이 추가로 공개되었다. 도리이 류조도 '일본인 기원론'에 주목했던 연구자였다.

패총 확대 평면도(도리이 제도, 國立金海博物館 2014)

시굴 상황(1914년 도리이 조사, 건판 130177)

발굴 상황(1914년 도리이 조사, 건판 130190)

발굴 상황(1914년 도리이 조사, 건판 130191)

상부 발굴 상황(1914년 도리이 조사, 건판 130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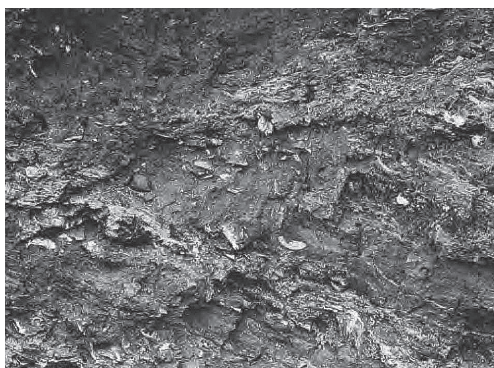
고배 출토 상태(1914년 도리이 조사, 건판 1117-8)

출토 토기편 각종(1914년 도리이 조사, 건판 130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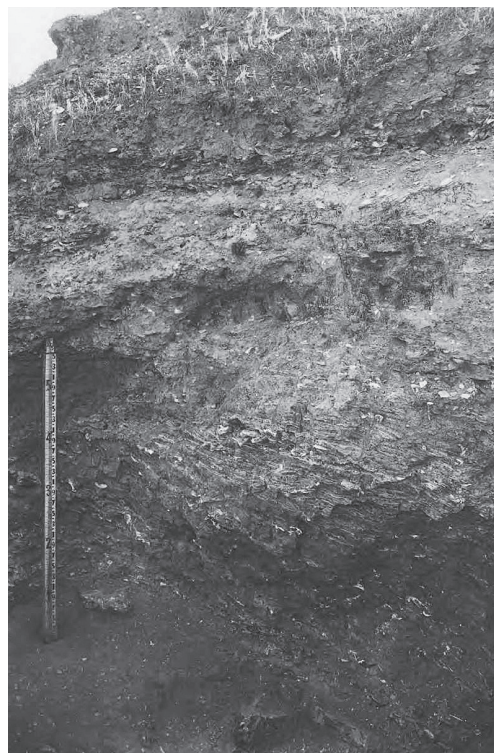
출토 토기편 각종(1914년 도리이 조사, 건판 130611)

패총 일부(1915년 도리이 조사, 건판 150715)

전경(1918년 도리이 조사, 건판 170171)

상부에서 바라본 회현리패총
(1918년 도리이 조사, 건판 170174)

패총 포함층 일부(1918년 도리이 조사, 건판 170183)

하저부의 석곽(1918년 도리이 조사, 건판 170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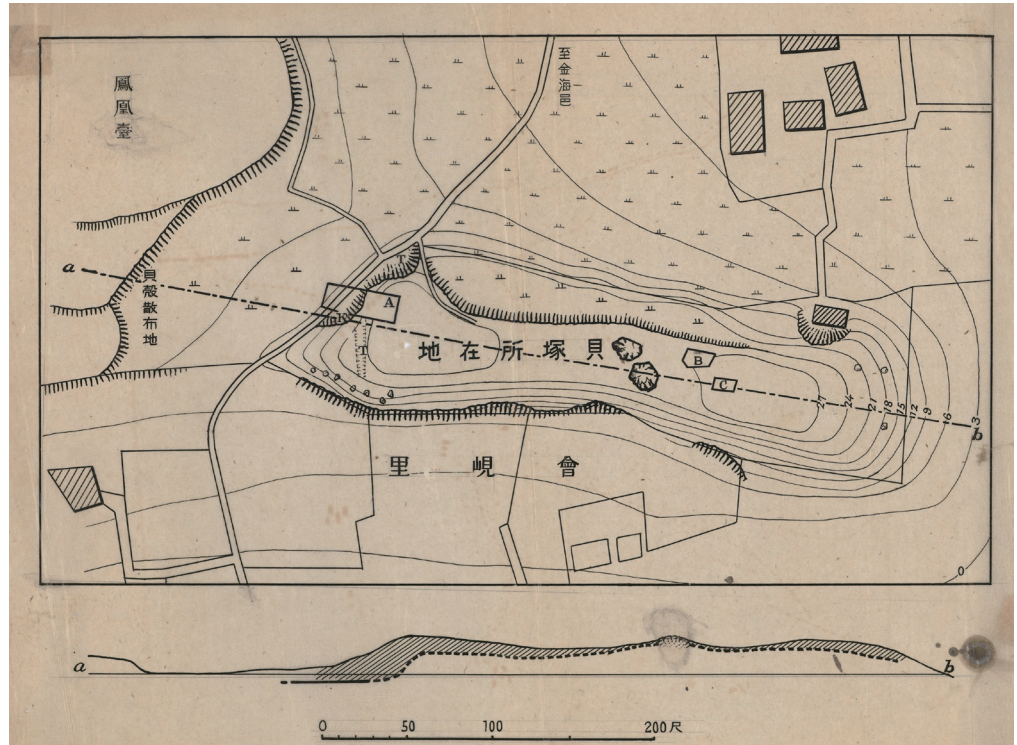
발굴 단면(1918년 도리이 조사, 건판 170178)

발굴 단면(1918년 도리이 조사, 건판 170181)

1920년

김해패총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1920년에 있었던 교토제국대학의 하마다 코사쿠와 우메하라 스에지가 실시하였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발굴법이었던 계단식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층위별로 토기와 동반유물들의 수습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하층에서 중국 화폐인 화천貨泉이 출토되면서 그 시기를 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이 발굴조사를 계기로 금석병용기金石併用期라는 시대구분명에 대한 기본인식은 물론 초기철기와 김해기로 명명되는 패각층의 성격과 연대비정의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위에서도 살핀 것처럼 1918년에 실시된 도리이의 발굴에서 두꺼운 패각층 아래에서 무문토기와 마제석촉이 출토되었다. 석관 내 부장품이었다. 이는 김해패총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층위정보였는데 그렇게 주목되지 않았다.

발굴조사가 마무리되고 현장 조사 담당이었던 우메하라는 전력을 쏟아서 보고서를 작성한다. 1923년에 완성된 보고서에는 '금석병용기'라는 시대구분명이 구사되었는데 이는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사용되던 시대구분 개념이었다. 다만 김해패총의 보고서에는 청동과 석기가 동반되는 것이 아니라 철기와 부분적으로 석기가 같이 사용된다는 의미였다. 당시 철기보급의 근거는 패층 출토의 철도자와 철편 그리고 녹각에서 관찰되는 철공구를 이용한 절단흔이었다. 이들 철기는 중국이 본격적인 철기시대에 들어선 전한대 이후에 보급된 것이라 보면서도 김해패층의 거주민들이 직접적인 철기영향을 받게 되는

패총 및 봉황대 부근 평면도(대정 11년 조사보고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것은 기원후 1세기라고 판단하였다. 그 증거는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화천이었다. 김해문화는 금석병용기 중에서는 후반에 위치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보고서에서는 한반도 남부가 석기시대 단계에 정체되어 있었는데 한대漢代 중국(보고서에서는 '지나')인들의 발흥으로 철기가 도입되어 금속병용기[2]로 발전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금석병용기의 한반도는 일본과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 하였는데, 중국문화가 한반도로 확산되는 현상은 한대 이전부터지만 한대가 되어 군현이 설치되면서 남부지역까지 연차적으로 확산되었을 것이라 하였다. 낙랑군영향설의 확립인 것이다.

그리고 그 고고학적 증거가 바로 김해패총 유물이라는 설명인데 이는 해방 후 김원룡이 주도한 '김해문화'에 대한 기본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메하라가 발굴조사에서 금석병용기의 시기를 확신한 것은 최하층인 제 7층에서 철기편과 철제편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즉 김해패총은 처음 생성될 무렵부터 철기가 동반된다는 인식이 마련되었다. 김해패총의 화천은 단지 상한연대를 시사할 뿐으로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는 것이라 했지만 유통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원 1세기대로 정해진 것이다(朝鮮總督府 1923).

보고서는 토기에 대한 해석도 대단히 주목된다. 보고서는 패총에서 출토된 3종류의 토기 중에서 청유색의 토기(회청색경질토기)는 임나고분任那古墳의 것과 동일한 것이기에 김해패총 축조인은 임나고분 축조인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김해패총 토기를 고분 출토 토기와 동일하다고 판단한 것(朝鮮總督府 1923)은 1980년

2
금석병용기이지만 청동기와 석기가 아니라 철기와 석기의 조합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일부러 문장 속에서 사용한 것이다.

대 이후의 와질토기 낙랑영향설을 주장하던 신경철과 최종규의 언설과도 통하는 중요한 발언인데, 조상을 운운한 것으로 보아 계승관계이면서 패총토기가 선행한다는 인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발굴 성과의 총정리에서 조사원들이 가장 흥분한 것은 일본으로 특히 야마토의 고분에서 출토되는 도자 및 도자병과 동일한 유물이 김해패총에도 존재하는 것을 밝힌 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영남지역이 야요이식 토기 계통과 가장 밀접한 토기문화가 있는 공간이라고 결론내렸다.(朝鮮總督府 1923)

그런 맥락에서 김해패총의 조사가 단순히 조선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 명언하였는데, 이러한 결론은 비록 문장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신공황후 삼한정벌설과 임나일본부설을 크게 의식했던 발굴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결국 이마니시 류, 야쓰이 세이이쓰는 물론 구로이타 가쓰미와 같이 대표적인 신공황후 삼한정벌설 지지자들이 패총발굴에 매달리고, 지역의 호사가들까지도 끼어들어 끊임없이 김해패총 조사에 매달린 이유가 드러나는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 남부와 일본열도를 묶어서 선사와 역사 전환기의 문화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한 것을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김해패총은 제국 일본 역사의 고구考究가 목적인 조사였다. 조사 자체가 '일한동조론日鮮同祖論'으로 귀결되는 측면이 지적되지만 해방 후 우리 고고학계는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

분산에서 본 김해시 전경(1920년 촬영, 건판 200001)

남쪽 전경(1920년 촬영, 건판 200027)

발굴갱 북부 상변의 패총
(1920년 하마다·우메하라 조사, 건판 200299)

제6층 발굴 광경
(1920년 하마다·우메하라 조사, 건판 200029)

서단부 패총 노출 상태(1920년 하마다·우메하라 조사, 건판 200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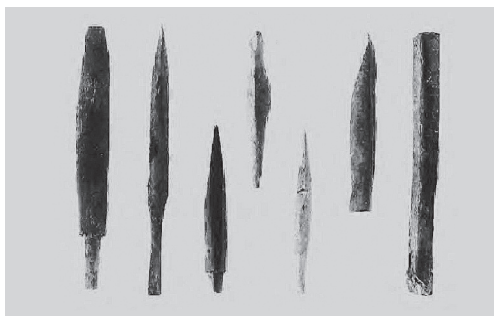
남쪽 단면 노출 상태(1920년 하마다·우메하라 조사, 건판 200300)

3층 B구 발굴 중 광경(1920년 하마다·우메하라 조사, 건판 200314)

제4층 발굴 광경
(1920년 하마다·우메하라 조사, 건판 200316)

제6층
(1920년 하마다·우메하라 조사, 건판 200321)

서단부 시굴 작업
(1920년 하마다·우메하라 조사, 건판 200001)

출토 녹각제도자병
(1920년 하마다·우메하라 조사, 건판 317-8)

출토 골촉
(1920년 하마다·우메하라 조사, 건판 3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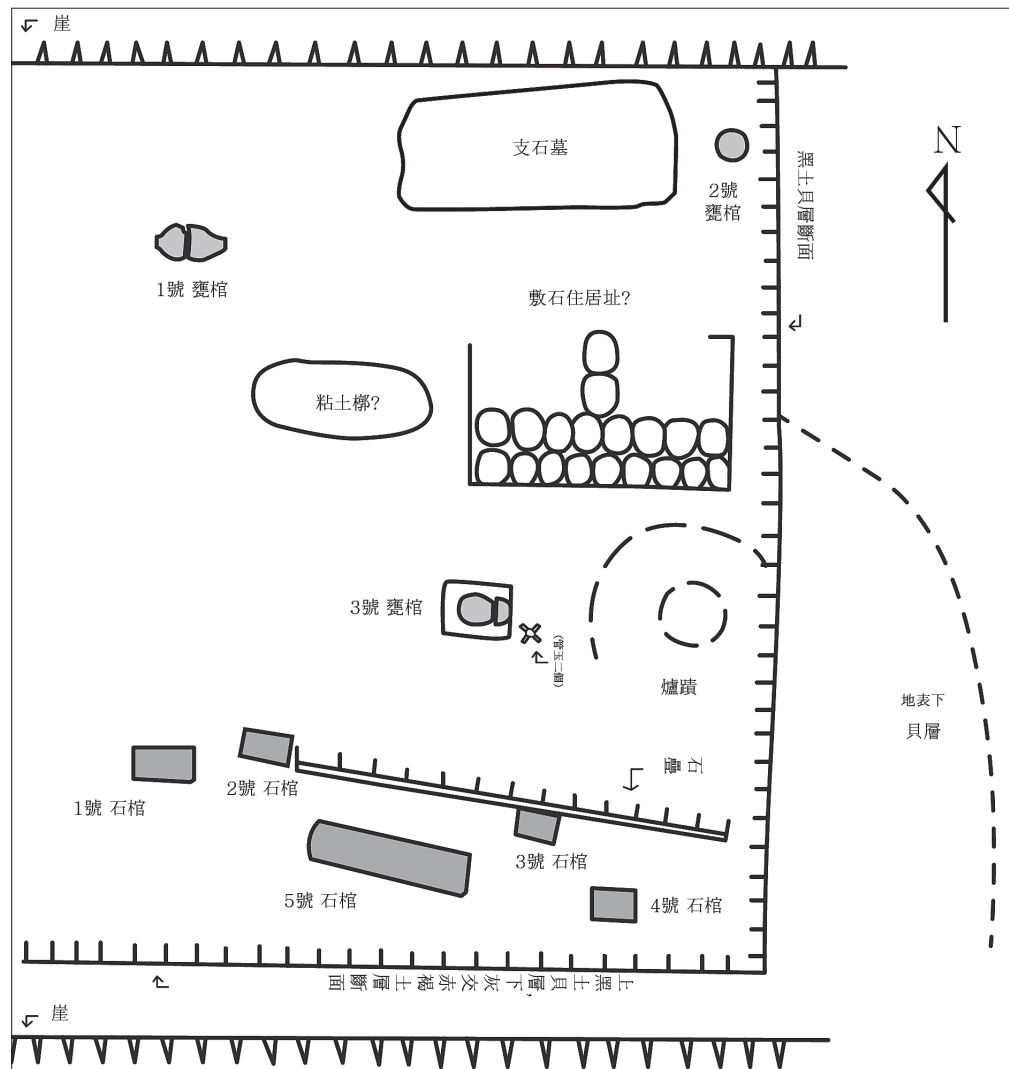
출토 토기편
(1920년 하마다·우메하라 조사, 건판 325-2)

1934~35년

1934년과 35년에는 가야모토 가메지로가 김해패총을 발굴한다.

보고서에는 층위별로 토기에서 그 차이를 인지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김해패총의 퇴적이 비정상적이라는 인식이다. 김해패총이 층위면에서 정확하게 신구新舊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결론은 해방 후 한국연구자들의 발굴조사에서도 드러난 현상이다.

가야모토는 적색계 토기들은 색조 등을 고려하여 둘로 구분하고, 그 중 하나는 청회색토기류와 동반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다만 이것이 삼각형점토대토기와 적색연질토기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는 김해패총의 유구와 유물을 크게 3개 군으로 나누었다. 1군이 선사토기와 마제석기, 그리고 야요이토기와 세형동검의 세트이고 2군은 원시신라토기原始新羅土器와 철기 및 골기, 그리고 3군은 고신라토기古新羅土器라는 것이다. 여기서 김해패총 패각퇴적층과 관련이 있는 토기는 2군과 3군이라 했다. 그리고 1군의 토기는 분묘와 관련된다고 판단

조사구역 약도(1934~35년 작성, 國立金海博物館(2014) 재편집)

하고 이는 명확하게 패총보다 선행한다고 이해했다(榧本杜人 1954·1957). 다만 옹관은 매납 후에 이동하였다고 보았는데 이것이 패총에 옹관편이 섞인 이유라고 하였다. 옹관과 지석묘를 패총 이전으로 완전히 분리해서 보는 시각은 해방 후 김원용의 해석과 통하지만, 패총에서 출토된 토기들은 상하上下 차별이 없다고 판단하며 그 원인은 토목공사 등으로 인한 후대의 교란이라고 하였다.

중앙구 상 발굴 현황
(1934~35년 가야모토 조사, 건판 171-8)

전경
(1934~35년 가야모토 조사, 건판 954-20)

석관 발굴지
(1934~35년 가야모토 조사, 건판 954-15)

중앙구 상 소재 석부石敷의 주혈
(1934~35년 가야모토 조사, 건판 171-1)

중앙구 상 소재 석부石敷의 주혈
(1934~35년 가야모토 조사, 건판 171-9)

석관 출토상태
(1934~35년 가야모토 조사, 건판 954-10)

중앙구 상 소재 석곽
(1934~35년 가야모토 조사, 건판 1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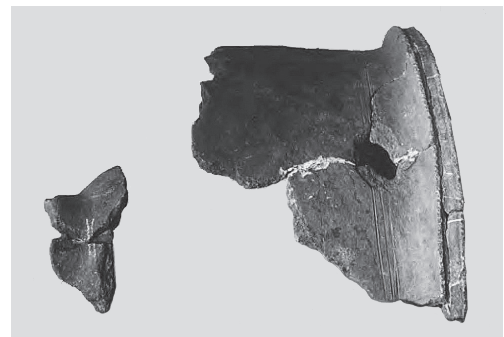
옹관 출토상태
(1934~35년 가야모토 조사, 건판 95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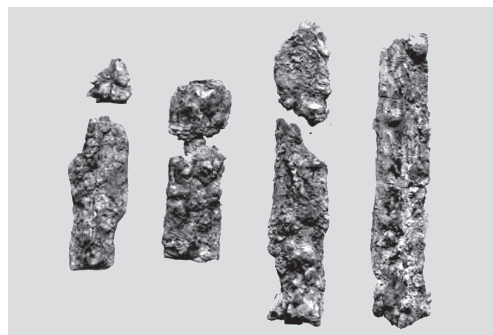
옹관 출토상태
(1934~35년 가야모토 조사, 건판 954-4)

지석묘 하부 토기 출토상태
(1934~35년 가야모토 조사, 건판 954-19)

중앙구 상 옹관과 동검, 동사포銅鉈鉋
(1934~35년 가야모토 조사, 건판 171-17)

중앙구 상 동검, 동사포銅鉈鉋 출토상태
(1934~35년 가야모토 조사, 건판 171-8)

출토 토기편
(1934~35년 가야모토 조사, 건판 686-7)

출토 토기편
(1934~35년 가야모토 조사, 건판 686-8)

제3호 옹관 출토 동사
(1934~35년 가야모토 조사, 건판 686-13)

제3호 옹관 출토 동제품
(1934~35년 가야모토 조사, 건판 686-9)

참고문헌

朝鮮總督府, 1923, 『大正九年度古蹟調査報告第一册 金海貝塚發掘調査報告』.

朝鮮總督府, 1924, 『大正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

榧本杜人, 1954, 「金海貝塚(J)再檢討(未完)」, 『考古學雜誌』 40권 3호.

榧本杜人, 1957, 「金海貝塚(J)甕棺 之 箱式石棺一金海貝塚(J)再檢討(承前)一」, 『考古學雜誌』 43권 1호.

國立金海博物館, 2014, 『김해 회현리패총』.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1909년 '朝鮮古蹟調査'의 기억 – '韓紅葉'과 '谷井濟一'의 조사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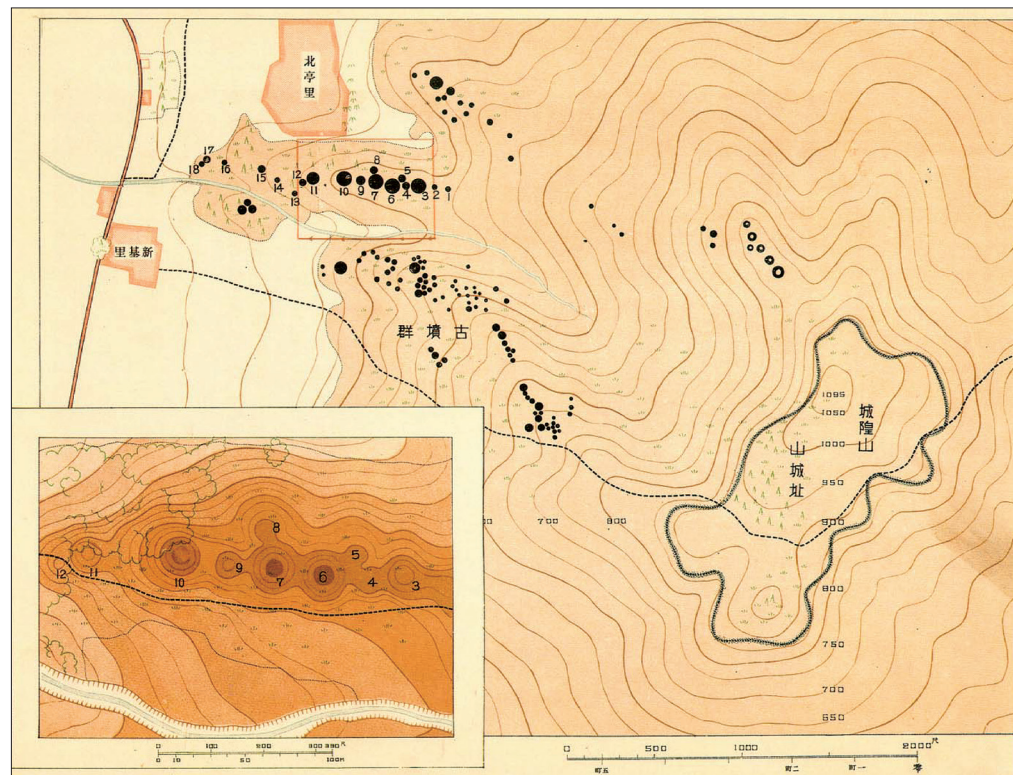
Ⅱ. 양산

01 북정리고분군

北亭里古墳群

개요

양산 북정리고분군(사적 제93호)은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북정동 산 697번지에 해당한다. 일제강점기 조사 당시 북정동 고분군으로 명명되었다. 낙동강의 지류중 하나인 양산천을 향해 뻗어내린 천성산 줄기의 자락에 형성된 고분군이다. 곡간을 끼고 인접한 구릉에는 신기리고분군(사적 제94호)이 밀집해서 분포하는데 원래는 북정리고분군과 하나의 고분군이었을 것이다.

북정리고분군 중에서 일제강점기 1920년에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 바바 제이치로馬場是一郎 등이 조사한 고분은 북정동 10호, 즉 부부총이다. 조사 당시 북정리고분군은 구릉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고분을 1호라 하고 낮은 곳으로 가면서 일련번호를 붙였다. 조사결과, 길이가 동서 5.4m 남북 2.2m, 높이가 2.5m에 이르는 횡구식석실묘임이 드러났다. 무덤방에서는 무덤 주인으로 보이는 인골 2구가 확인되었고 입구에서는 부장 방향

양산읍 부근의 유적도(1921년 제도, 朝鮮總督府 1927 도판 1)

이 다른 인골 3구가 발견되었다. 금동관과 금동식리, 금제이식, 환두대도 등이 출토되었고 다량의 토기들이 부장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조사내용은 1927년 약식보고서를 통해 알려졌으며, 출토유물은 현재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에 소장 중이다.

이후 부부총은 1990년 동아대학교박물관에서 재발굴하였으며, 도쿄국립박물관 소장의 출토유물에 대한 실측조사를 실시하여 발굴내용과 함께 보고서를 간행하였다.

조사내용

양산 부부총은 조선고적조사의 '도면왕'이었던 오가와 게이키치와 바바 제이치로가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오가와 게이키치는 유구 실측과 측량, 유물 실측에서 대단한 실력을 발휘하던 주력 조사원이었다. 그리고 바바 제이치로는 도쿄제국대학 출신으로 조선고적조사사업의 초창기에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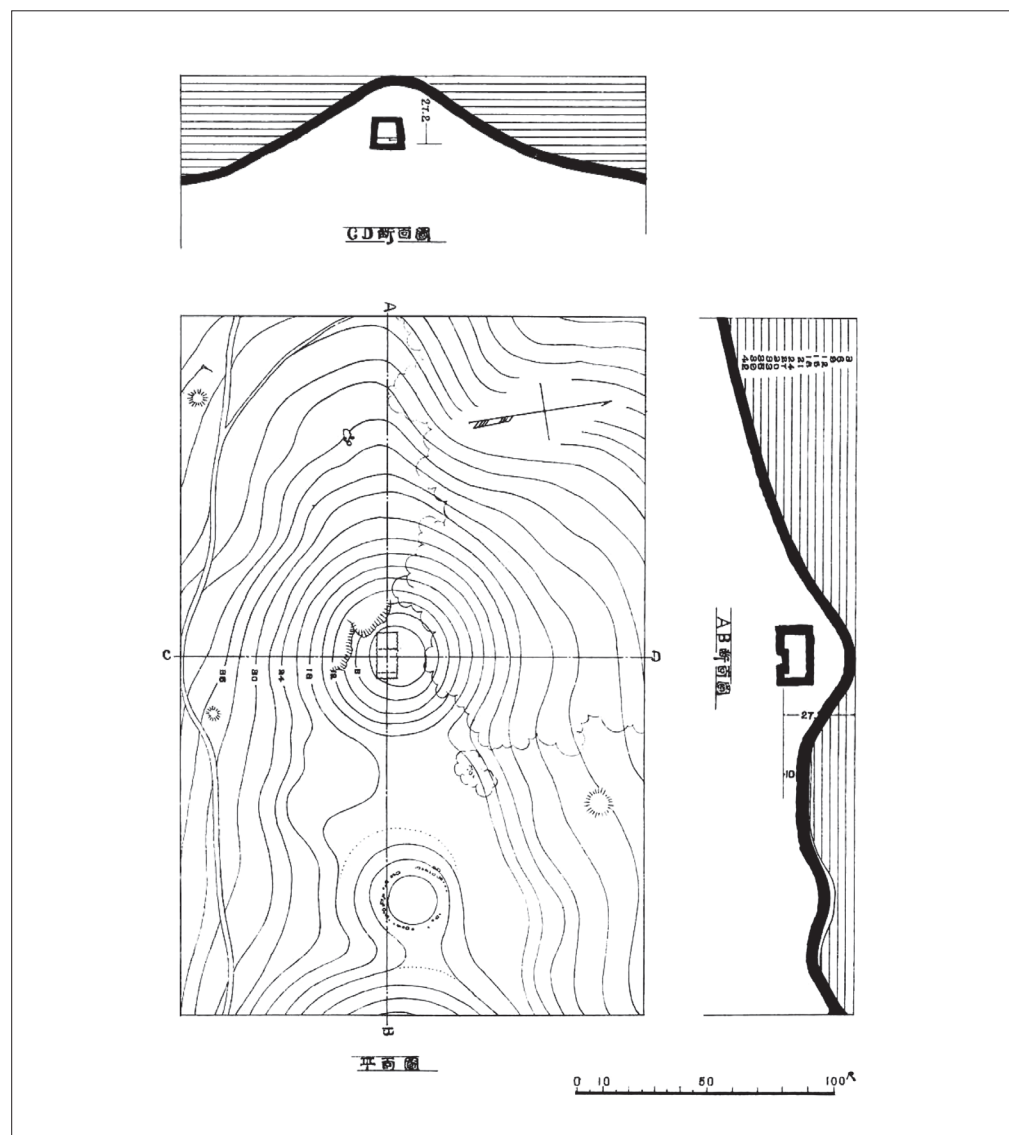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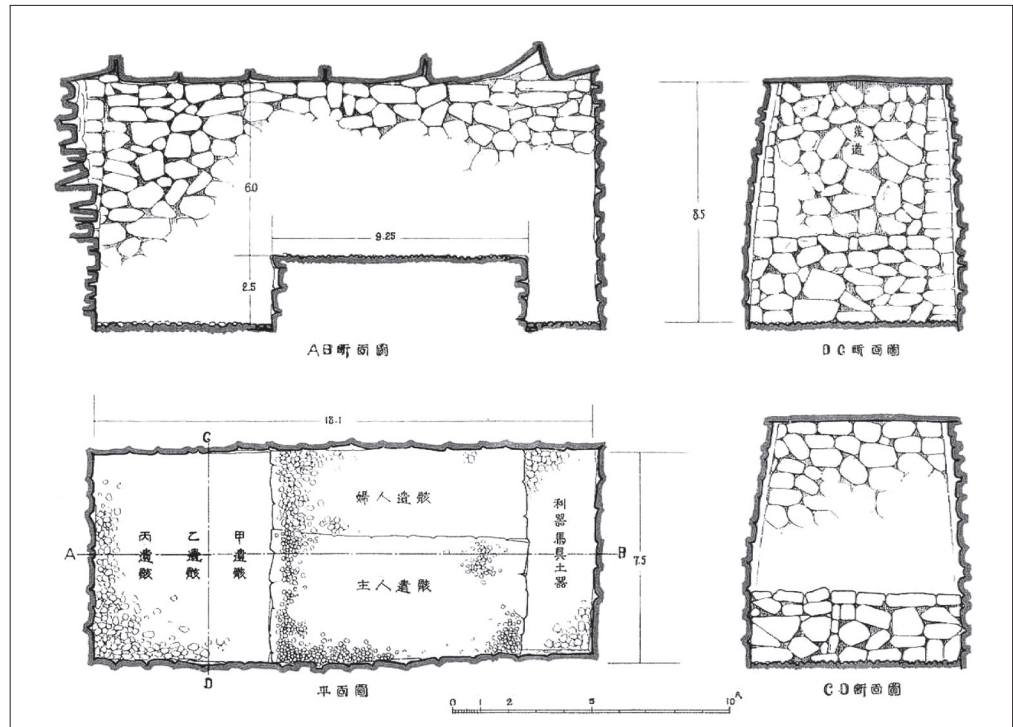
우선 오가와 게이키치는 1882년 후쿠오카현 치쿠죠군 우루즈촌(현 치쿠조초 우루즈)에서 태어났다. 고슈학교(현 고가쿠인대학)에서 공부하고 1907년부터 내무성 종교국의 보조직원이 되었다. 당시 일본에서 진행되던 고신사와 사찰 조사 프로젝트를 보조하였는데 당시 도쿄제국대학의 세키노 다다시關野貞가 사업을 주도하고 있었다. 고건축물의 실측 및 제도 등의 업무를 주로 맡았다고 알려진다.

고건축의 실측과 제도에 대단한 실력을 발휘하였기 때문에 세키노의 추천으로 1916년부터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촉탁이 되었다. 세키노가 조선고적조사사업의 실무였던 야쓰이 세이이쓰谷井濟一에게 오가와 게이키치의 이력서를 보내 채용 의뢰를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야쓰이 고고자료'에 포함된 서간이다. 이후 30년에 걸쳐 한반도에서 각종 문화재의 조사와 기록에 종사하게 되었다. 특히 각지의 고분발굴과 고건축의 조사, 불교건축물의 수리에서 수완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진다. 1944년 3월에 퇴임하고 8월에 귀국한 다음 고향 핫타촌의 촌장으로 취임하였으며 1950년 2월 16일에 사망하였다. 그가 남긴 조사카드와 사진, 총독부박물관 관련 서류 등은 아리미쓰 교이치有光教一 교수의 주선으로 교토대학에 기증되었다.

바바 제이치로는 1870년 3월 5일 출생으로 알려진다. 나가사키 의학교醫學教를 중퇴하고 상경하여 센다이의 제2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교원이 되었다. 주경야독하여 도쿄제국대학 법과대학에 합격하여 1909년 7월에 졸업하였는데 그 때 나이 이미 만39세였다. 졸업하자마자 조선총독부의 관료가 되어 공주에서 공무를 시작하였는데 총독부박물관으로 근무지를 옮긴 뒤로는(고적조사위원 겸무-위원회 주임) 조선고적조사 사업과 인연을 맺게 된다. 오가와 게이키치와 함께 양산 부부총 발굴조사를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한데, 보고서 간행을 위한 정리작업 중에 발령지가 바뀌면서 관련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된다. 결국 도면작성 등의 보조 역할을 했던 오가와 게이키치가 마무리하고 보고서 집필도 전담하였다. 마지막 교정 업무는 세키노 다다시가 도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그의 야장에는 그러한 업무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朝鮮總督府 1927, 세키노 야장).

바바 제이치로가 고적조사 업무에서 손을 뗀 이유는 군수로 승진 발령이 났기 때문

이다. 함흥과 경주 등지에서 군수로 근무하였다. 출세가도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공직에서 물러나는 신세가 된다. 내용을 살피면 1928년에 재직 중이던 함경북도 청진부청의 관사에 불이 나면서 걸어 두었던 천황 사진이 훼손된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쓸쓸한 노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부부총 발굴조사는 1920년 11월에 실시되었는데 금동보관과 비취, 곡옥이 출토되어 세간을 관심을 끌었다. 당시 바바 제이치로가 전근하는 바람에 보고서 작성이 늦어졌고 결국 오가와 게이키치가 단독으로 원고를 쓰고 도면과 사진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또 출토 유물은 정리하여 일부는 총독부박물관에 전시하고 나머지는 도쿄와 교토의 제국대학에 보내어 연구 재료로 삼도록 하였다. 보고서에 수록된 사진은 원래 고적조사과의 과원이었던 다노 시치노스케田野七之助와 총독부 촉탁이던 사와 준이치澤俊一가 맡았다.

부부총 측량도(1921년 제도, 朝鮮總督府 1927 도판 3)

석실 실측도(1921년 제도, 朝鮮總督府 1927 도판 4)

보고서에서는 양산 북정리의 인문·지리적 입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인 즉 “먼 옛날 숭신천황의 시대부터 일본 야마토조정과 깊은 관계에 있었던 김해와 이어져 있다” 고 하였다. 양산을 지나는 낙동강은 압록강에 다음가는 큰 하천으로 전체 약 52.66㎞(134里) 중에서 배가 통하는 구간은 약 34.10㎞(87里)로 가야와 야마토의 사신들이 오가던 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양산 부부총을 발굴 대상 고분으로 선정한 것은 바바 제이치로 위원으로, 유효한 고분으로 10일 이내에 조사를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이 기준이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유효한’이란 도굴되지 않은 고분을 의미한다. 북정리고분군의 높은 곳에 위치하는 고분부터 일련번호를 매겼는데 이미 수년 전에 도굴당한 제18호분의 내부에 들어가 고분의 기본 구조를 살피기도 하였다. 이것이 통일신라기의 석실분으로 추정되어,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제10호분, 즉 부부총을 굴착하게 된 것이다.

발굴은 고분의 남쪽을 넓게 파내는 것으로 시작했다. 조사가 시작되자 고분의 소유자를 자칭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발굴에 항의하였으나 설득하여 발굴을 속행했다고 한다. 나중에 확인한 결과 수년 전에 주변의 고분을 도굴하여 출토 유물을 일본 내지인들에게 팔아치우려고 시도했던 사람이었다.

고분의 남쪽에 약간의 경사를 주었으나 수직으로 파내려갔지만 묘곽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방침을 바꾸어 고분의 중심부를 향해 더 파내려 천장석의 외부에 도달했는데 굴착을 처음 시작해서 4일이나 소요되었다고 한다. 본격적인 굴착작업 전에 북정리고분군 중에서 석곽이 드러난 것을 살피고 다녔는데 모두 묘곽의 장축이 남북임을 확인하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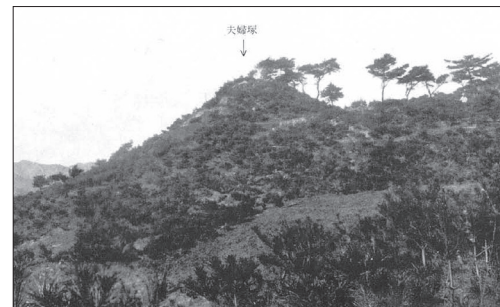
에 남쪽에서 굴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 부부총의 묘곽 장축은 동서방향이었다. 묘곽 확인에 시간이 걸린 것은 이 때문이었다.

천장석을 지탱하는 돌의 일부를 부수고 현실 내부로 들어갈 경우 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다시 연도를 굴착하여 들어갈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속행하여 사다리를 이용해 현실로 내려갔다. 현실 내부는 대단히 어두웠기 때문에 조사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없었다. 관대에서 2구의 유골을 발견하고 이를 부부의 것으로 판단하였다. '부부총'이란 이름이 주어진 이유였다.

조사단은 작은 구멍으로 자연채광을 하고 내부에는 촛불을 켜서 조사를 진행했다. 유구와 유물 노출광경 사진촬영은 양산읍내의 사진관에 도움을 청했다고 한다. 조사는 개시한지 13일간 실시되었다.

부부총 출토유물은 알려진 것처럼 반출되어 현재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의 소장품으로 등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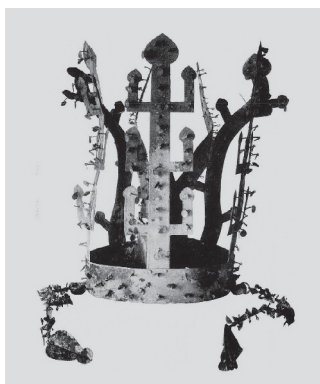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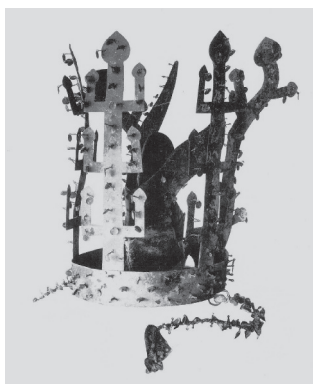
석실내 유물 배치도(1921년 제도, 朝鮮總督府 1927 도판 5-6)

고분군 전경(1920년 촬영, 朝鮮總督府 1927 도판 2-2)

부부총 제10호분
(1920년 촬영, 朝鮮總督府 1227 도판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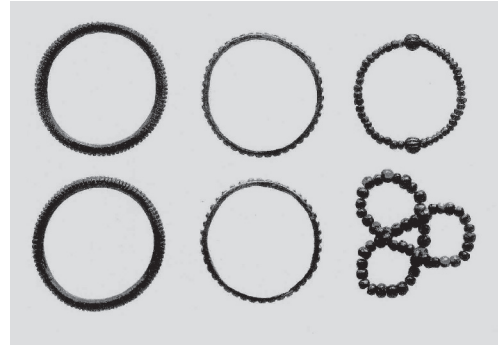
묘곽내 주인의 유해·유품 잔존상태(1920년 오가와·바바 조사, 朝鮮總督府 1927 도판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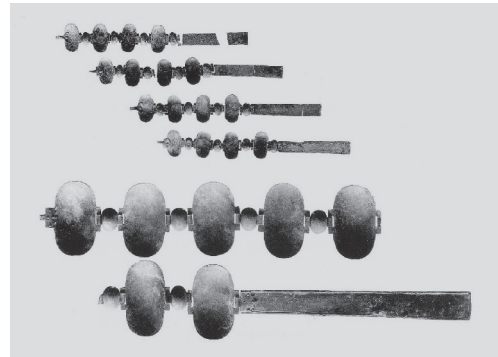
부인의 유골·유품 잔존상태(1920년 오가와·바바 조사, 朝鮮總督府 1927 도판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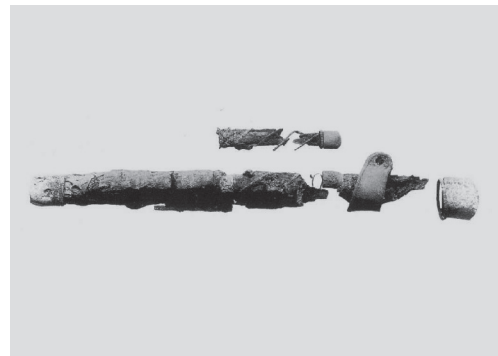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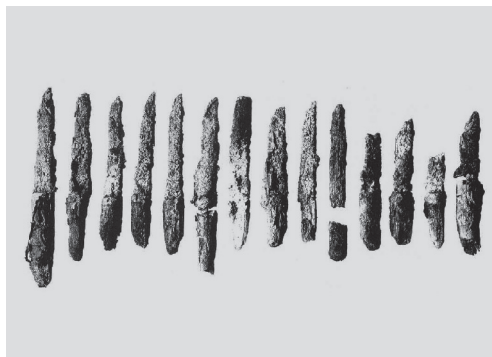
묘곽내 병丙 유해 잔존상태(1920년 오가와·바바 조사, 朝鮮總督府 1927 도판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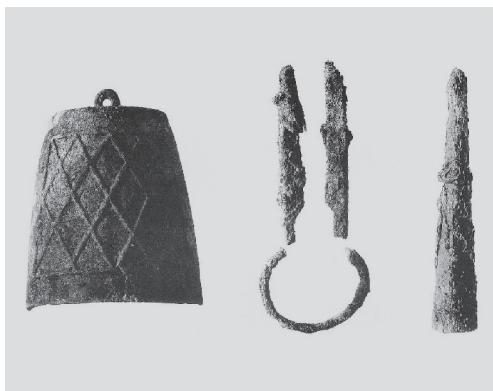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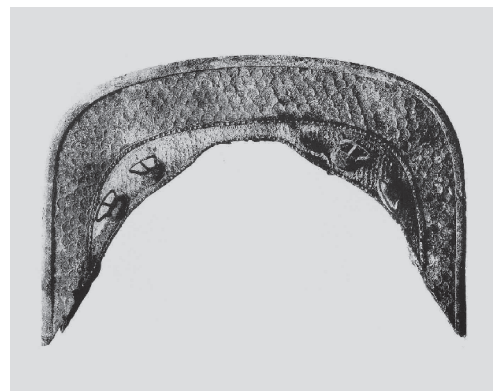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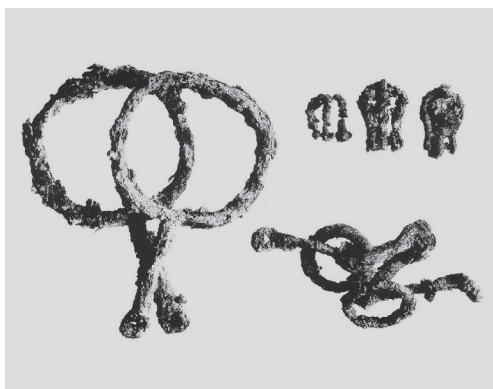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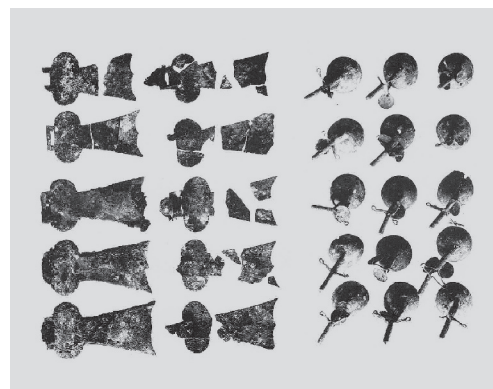
묘곽내 을乙 유해 잔존상태(1920년 오가와·바바 조사, 朝鮮總督府 1927 도판 7-10)

주인이 착장한 금동보관 (朝鮮總督府 1927 도판 8-11)

화보관樺寶冠 (朝鮮總督府 1927 도판 9-12)

순금이식(좌상-주인, 중-부인)·금동이식(우상-병)·구옥勾玉(좌하-주인, 중하-병, 우하-을)(朝鮮總督府 1927 도판 11-14~19)

경식옥(좌-병丙, 중-주인, 우-부인)
(朝鮮總督府 1927 도판 12-20·21)

부인이 착장한 완옥腕玉·금천金釧·은천銀釧
(朝鮮總督府 1927 도판 15-25~29)

주인이 착장한 은제과대(朝鮮總督府 1927 도판 16-29)

부인이 패용한 은요패(朝鮮總督府 1927 도판 20-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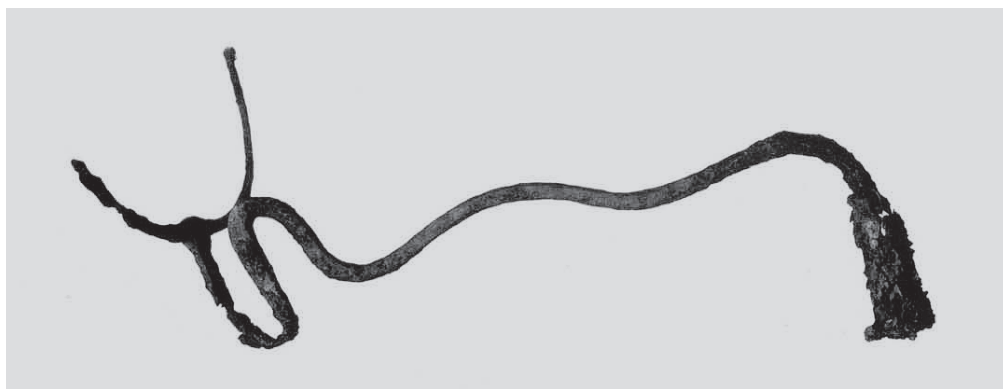
주인이 착용한 금동답沓(朝鮮總督府 1927 도판 21-38)

주인 패용 원두·환두대도(朝鮮總督府 1927 도판 23-42)

부인이 패용한 금·은제도자(朝鮮總督府 1927 도판 24-47)

도자(朝鮮總督府 1927 도판 25-48~50)

청동마탁·철협鐵鋏·철모(朝鮮總督府 1927 도판 26-51~53)

금동안교 후륜(朝鮮總督府 1927 도판 27-56)

비轡·등자·교구(朝鮮總督府 1927 도판 30-60~62)

금동행엽·운주(朝鮮總督府 1927 도판 31-63·64)

각종 토기류(朝鮮總督府 1927 도판 33-70·71)

각종 토기류(朝鮮總督府 1927 도판 38-76·41-84)

각종 토기류(朝鮮總督府 도판 36-77·78)

각종 토기류(朝鮮總督府 1927 도판 40-79~81)

사행상蛇行狀철기(朝鮮總督府 1927 도판 41-82)

참고문헌

朝鮮總督府, 1927,『梁山夫婦塚と其遺物』, 古蹟調査特別報告 第5册.

東亞大學校博物館, 1990,『梁山金鳥塚·夫婦塚』.

02 다방리패총

多芳里貝塚

개요

양산 다방리패총은 경상남도 양산시 남동쪽에 위치한 다방동 일원의 구릉부에 입지한다. 일제강점기 조사자료에 양산패총 또는 양산 남부동패총으로 기록되어 있다. 1921년 양산 공립보통학교 교장 하시모토 료조橋本良藏가 처음 발견한 것으로 알려진다. 1921년 가을 고적조사위원 하마다 고사쿠濱田耕作와 우메하라 스에지梅元末治에 의해 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1922년 5월에도 조선총독부의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 우메하라 스에지, 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정식보고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고적조사보고에 약보고와 함께 몇 장의 사진이 게재되었을 뿐이다.

해방 후 1964년 서울대학교, 1967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양산 다방리패총은 삼한~삼국시대 생활상으로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농경과 철기 제작, 수렵 등 당시 낙동강 강안 일대 주민들의 생활상으로 보여주는 유적이다.

패총 전경(1921년 촬영, 건판 5905)

패총 전경(1921년 촬영, 건판 36405)

조사내용

1921년 9월에 하마다 고사쿠와 우메하라 스에지에 의해 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조사 당일, 금관총 발견을 알리는 급보가 공유되면서 조사위원들은 조사를 반나절에 멈추고 만다. 이후 언양을 거쳐 경주로 향하여 금관총 발견유물의 상황을 확인하고 수습조사를 실시하였다. 금관총 출토 유물의 수습과 보고서 간행을 위한 정리 장소를 둘러싸고 소동이 벌어지면서 양산패총의 발굴조사는 해를 넘기게 되었다.

이듬해인 1922년 5월 야쓰이 세이이쓰를 대신하여 고적조사위원이 된 도쿄제국대학 사학과의 후지타 료사쿠는 우메하라 스에지, 고이즈미 아키오 등과 함께 다시 발굴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 내용은 1922년에 간행된 『대정11년도고적조사보고』에 지극히 간단하게 게재되었다. 그 내용은 '이전 하마다 위원이 시굴한 지역에 접하여 1평의 지역을 구획하였다.' '유적에는 보리가 자라고 있었다.'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결국 1922년 조사 복명서가 그대로 고적조사보고에 게재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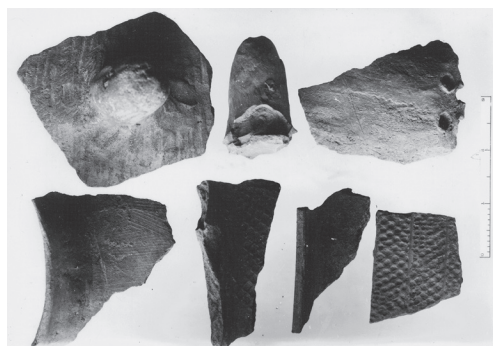
1922년의 조사결과 출토된 유물은 녹각 도자병 2점, 골촉 5점, 골침 2점, 미완성 지석 1점, 적색·흑갈색·청회색 토기편이다. 출토유물이 보고서에 모두 수록되지 않았는데 나머지 유물은 동양문고의 우메하라 고고학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사를 통해 우메하라는 김해패총과 동일한 유물군을 갖춘 유적으로 보았고, 석부가 출토된 것을 근거로 '금속병용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유적이라고 주장하였다.

패총 상태(1921년 하마다·우메하라 조사, 건판 5906)

발굴 광경(1921년 하마다·우메하라 조사, 건판 3407)

김해와 양산 출토 골침(1921년 하마다·우메하라 조사, 건판 8274)

양산 패총 녹각제도자병·녹각제가공품 (1921년 하마다·우메하라 조사, 건판 2134)

양산 패총 천혈패각·각도자병·지석 (1921년 하마다·우메하라 조사, 건판 21311)

양산 패총 출토 토기편(1921년 하마다·우메하라 조사, 건판 21384)

참고문헌

朝鮮總督府, 1924, 『大正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

국립중앙박물관, 1993, 『양산 다방리패총 발굴조사보고』, 『천안 청당동 제4차 발굴조사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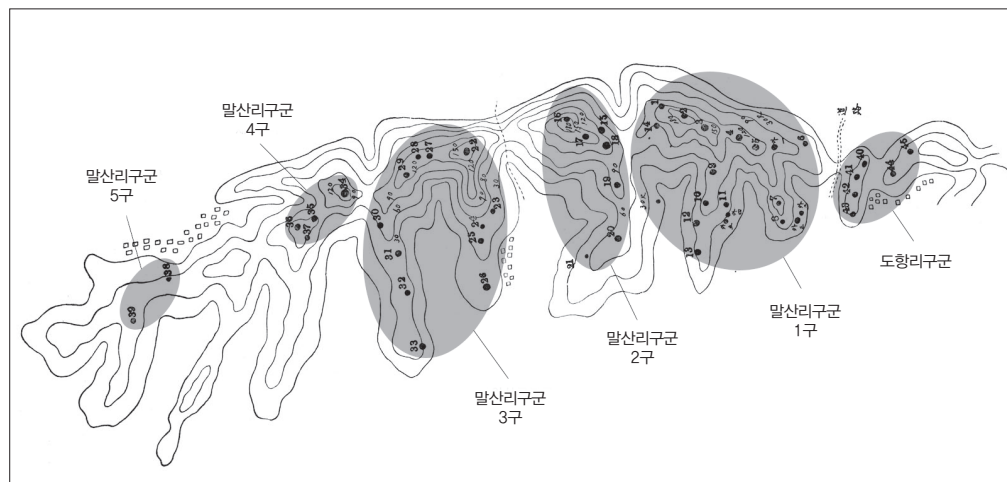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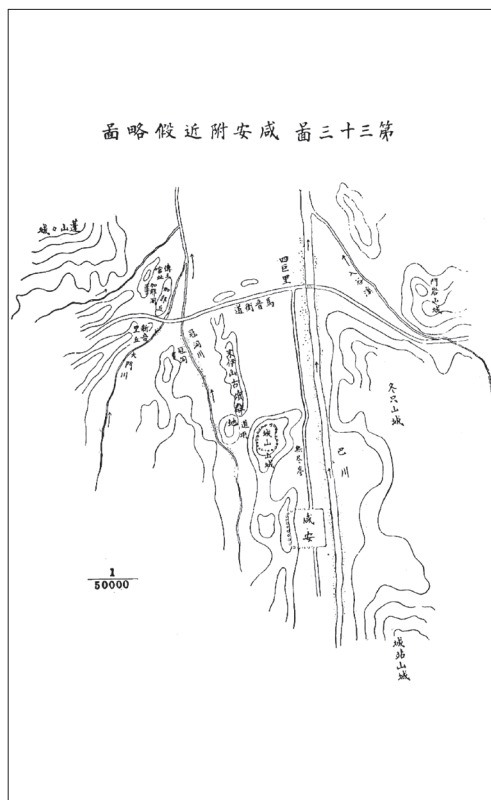
Ⅲ. 함안

01 말이산고분군
末伊山古墳群

개요

함안 말이산고분군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와 도항리 일대에 분포하는 삼국시대 고분들의 군집이다. 일제강점기 조사 때는 편의 상 도로에 의해 언덕이 끊어진 북군을 말산리구군末山里丘群, 남군을 도항리구군道項里丘群으로 설정하였다. 말산리구군은 다시 '1~5구區'로 구분하였다.(말이산고분군 분포도 참고)

말이산의 이름인 '말이'에 대하여 이마니시 류今西龍는 "말이末伊는 '머리'나 '마리'와 대응하고, 두頭나 주主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설명한다. 즉 말이산이라 불린 구릉이 과거 지역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 공간을 왕릉으로 인식했다는 『함주지咸州誌』의 기록과 상통한다. 말이산은 종縱으로 여러 봉우리가 연결되어 있어 다수의 언덕이 연접한 형국을 띤다. 이 중 가장 북쪽의 언덕은 따로 두산斗山이라는 지명이 전해지는데 유래는 알 수 없다.

현 행정구역에서 말산리와 도항리는 말이산의 능선을 기준 삼아 동서로 나뉘는데, 이 때 행정구역에 따라 엄밀하게 유적권역을 나눈다면 말산리에 해당하는 고분은 4기가 된다. 이 셈과 비슷한 기록이 1917년 조사 이전에 함안군청의 고분조사표인데 말산리에 3기, 도항리에 33기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즉 당시의 행정구역도 지금의 그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으리라 추정 가능하며, 고분들을 그렇게 분류한다면 1917년 조사자들이 말이산고분군 분포도(朝鮮総督府 1920 도 34)처럼 지형에 따라 분류한 범주들과 부합하지 않게 되므로 부득이하게 이와 같이 분류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말이산고분군 분포도(1917년 이마니시 조사, 朝鮮総督府 1920 도 34 수정인용)

말이산고분군 및 성산산성 가략도
(1917년 이마니시 제도 추정, 朝鮮総督府 1920)

유적 원경(성산산성 북단에서, 1917년 이마니시 촬영, 건판 31171)

유적 원경(1917년 구로이타 촬영, 건판 3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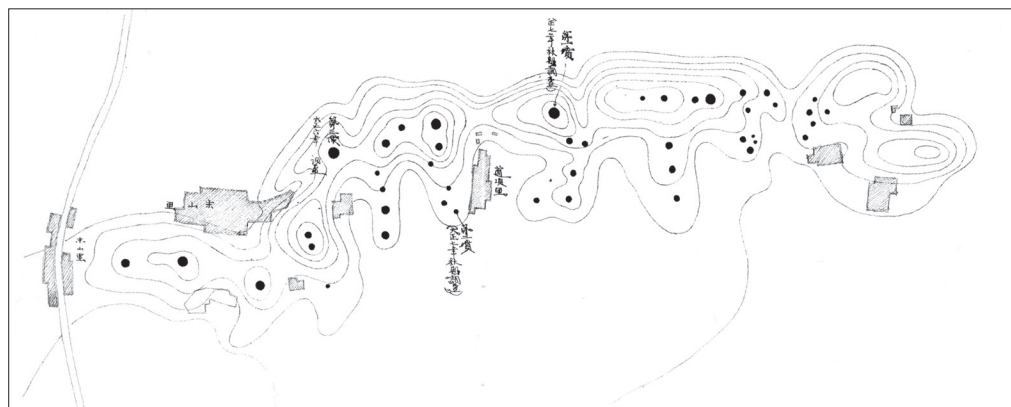
이렇게 나름대로 유의미한 범주화과정을 거쳐 분류된 두 고분군은, 해방 이후 당시 행정구역에 따라 기계적으로 재분류되었다. 1963년 1월 21일에 말이산고분군에 대하여 말산리에 속한 4기의 고분들을 '함안말산리고분군'으로, 그 외 도항리에 속한 나머지 고분들을 '함안도항리고분군'으로 명명하고 각각 사적 제85호와 84호에 지정한 것이다. 그러나 두 고분군의 상호 관련성이 인정되어 결국 2011년 7월 28일에 '함안말이산고분군'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어 사적 제515호로 다시 지정되었다.

1587년에 편찬된 『함주지』에 "우곡牛谷의 동서 언덕에 있는 고총은 그 크기와 높이가 언덕과 같다. 40기 정도가 있으며, 세상에 떠도는 말로 옛 나라의 왕릉이라 전해진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 이전부터 말이산고분군의 존재가 세간에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근대과학의 시선으로 이 유적을 조사한 최초의 연구자는 세키노 다다시關野貞였을 가능성(關野貞 1941)이 농후하나, 정밀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가 1910년에 촬영하여 1916년 조선고적도보에 백사리고분군의 이름으로 게재한 유리원판 사진은 기실 말이산고분군이며, 공개된 바 이 유적에 대한 최초의 사진자료로 평가된다. 1915년에는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가 남문외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를 하면서 성산산성과 말이산고분군을 한 프레임에 담아 촬영한 바 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 함안군청에서 자체적으로 관할구역 내 유적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면서 말산리와 도항리 고분들의 수량을 기록하였다.

유적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1914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도리이 류조鳥居龍藏가 현재의 1호분을 발굴조사한 바 있다. 이후 1917년 이마니시 류가 함안지역의 봉토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시행하였고, 이 중에 두 기의 대형분에 대하여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하였다. 1년 후 1918년에는 야쓰이 세이이쓰谷井濟一가 역시 두 기의 대형분에 대하여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당시 작성된 말이산고분군 고분분포도를 비롯한 도면과 유리원판 사진 일부만이 남아 있다. 고분 위치를 볼 때 이마니시 류가 작성한 분포도 상의 16호분(현 13호분)과 26호분(현 12호분)으로 추정된다. 이 중 16호분은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 의해 2018년부터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마니시 류는 말산리구군을 지형에 따라 다섯 구역으로 나누었는데, 이때 작성된 분포도에서 알 수 있듯 남쪽에서부터 차례대로 범주화되었다. 조사는 대개 지표조사를 중심으로 하여 대부분의 분묘는 봉분의 잔존상태와 위치관계만 확인하였고, 발굴조사를 시행한 두 기의 분묘는 고분군 내 최대형 분묘에 해당하는 함안 제5호분과 제34호분이다.

정밀발굴조사에서 봉토만 조사한 제5호분의 경우 출토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매장주체부까지 모두 조사한 제34호분에서는 다량의 유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함안 제34호분의 출토유물은 종류별로 토기류와 마구류, 무기류, 기타로 대분할 수 있다. 토기류는 수레모양 토기와 오리모양 토기 등의 이형토기를 비롯한 도질토기가 120여 점 확인되었는데, 대개 함안양식의 정형에 해당하는 기물들이다. 마구류의 경우 금속제 행엽과 안장, 복륜 등이, 무기류는 환두대도를 비롯하여 각종 화살촉과 도검 등이 출토되었다. 이외에는 옥류와 인골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인골의 경우 매장주체부 남서쪽에서 다수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순장자로 파악된다.

출토 유물 중 보고서상에서 눈에 띄는 것은 녹각제鹿角製 도刀 장식구이다. 지면의 상당부분을 할애하며 집중적으로 특기되었는데, 그 논조는 임나일본부를 향해 있다. 요는 분명히 일본계 기물인데 함안의 수장급 묘에서 확인되었다는 내용이다. 일단 이 장식에 시문된 직호문直弧文은 한반도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문양요소이지만, 일본에서는 야요이시대 이후로 오랫동안 유행하였다. 게다가 출토품과 같이 '직호문이 시문된 녹각제도 장식구' 자체가 이미 일본 고분에서 상당히 많이 출토된 바 있다. 즉 자연스럽게 일

함안고분군 견가략도(1918년 야쓰이 조사)

본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해석된 것이다.

기실, 애초에 일본인 연구자들이 이 유적을 조사한 목적 자체가 임나일본부설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료의 출토는 상당한 비중으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보고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이 유물을 제외하고 임나일본부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이렇다 할 증거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이 조사를 통해 확인한 고분의 구조와 유물복합체는 아라가야의 융성하고 독창적인 물질문화를 규명하는데 일조하게 되었으며, 이후 아라가야 물질문화 연구의 척도로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도항리구군은 제40~45호분은 모두 미발굴되었으며 따라서 출토유물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 여섯 기의 고분들은 말이산 중 이른바 '도항리구릉'으로 칭해진 언덕의 북쪽 가에 밀집해 있는데, 제40~43호분 네 기는 비교적 낮은 지점에 동서로 병렬해 있으며 나머지 두 기는 그 보다 북쪽으로 이격된 지점에 위치해 있다.

해방 이후 이 유적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조사는 1981년 함안군에서 시행되었다. '고분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지표조사였으며, 유적지에 대한 환경정비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조사는 1917년 정밀조사 성과와의 비교·검토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의 조사성과를 현재의 기억과 연결시키는 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다. 이 조사에서 36기의 봉토분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1917년 조사 때의 셈(번호가 부여된 고분이 45기, 번외 고분이 6기)과 차이가 크다. 해방 이후 최초의 조사가 이러했던 데다가 이후의 조사들이 그 성과를 그대로 계승하였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후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현재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와 창원대학교박물관에서 몇 차례 조사를 거쳐 새로운 봉토분과 지하에 매장되었던 분묘들을 확인하였다.

조사내용

제1호분

제1호분은 제1구역 언덕의 북동쪽 끝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 조성되어 있다. 현재 남아 있는 봉토분의 분포상과 고적조사보고서에 기록된 위치관계를 통해 현재 18호분과 가장 근사하게 대응할 수 있다. 1917년 조사 당시 제1호분으로 명명된 후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내부 구조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다. 1981년 함안군의 고분정화사업에 따라 18호분으로 명명된 후, 봉분을 정비하여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기실 1981년의 봉분 정비는 정밀발굴조사를 통한 사전 고증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이 때 정비된 고분들은 봉분의 본래 규모와 형태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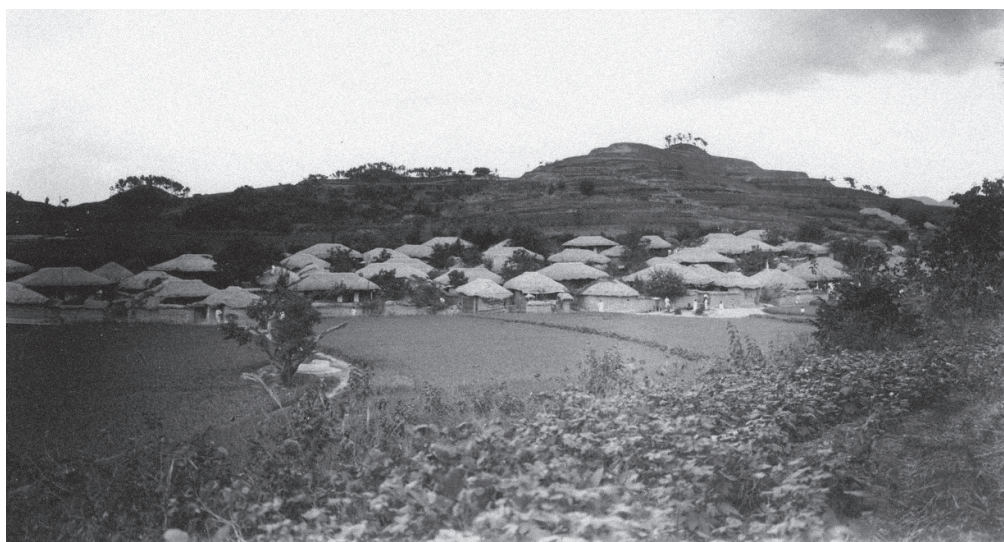
다만 1917년 보고서에서 당시 봉분의 유존 상태를 면밀히 기록해 놓은 덕에 일말의 단서는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봉토는 자갈 섞인 흙과 점토가 섞여 있으며, 그 태반이 유실되어 동서가 길고 남북이 좁은 형태로 남아 있다. 유존하는 높이는 2.7m(9尺)이며, 지름은 동서 44.7m(37步), 남북 21.7m(18步)이다. 이후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까지는 내부 구조와 출토 유물을 파악할 수 없는데, 1917년 조사 당

시 도굴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정비 후 복원된 봉분은 최대 지름이 17m이고 높이는 3m 이다.

제2호분

제2호분은 제1호분으로부터 남서쪽으로 96m(80步) 정도 떨어져 있으며, 같은 언덕의 정상부 안에 조성되어 있다. 위치상 현 18호분의 남서 쪽에 가장 근접한 현 19호분과 대응되는데, 말이산고분군 내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한다. 제1호분과 마찬가지로 1917년 조사 당시 제2호분으로 명명되었다가 1981년 함안군이 고분정화사업의 일환으로 봉분을 정비하고 19호분으로 새롭게 명명하였다. 1917년의 조사 당시 측정된 유존 봉토의 크기는 높이가 약 4.5m(15尺), 지름은 남북 31.4m(26步), 동서 36.3m(30步) 정도 된다. 제1호분과 마찬가지로 도굴의 흔적이 있었다. 복원된 후 1992년 지표조사 당시 봉분의 잔존 크기는 직경 25m, 높이 4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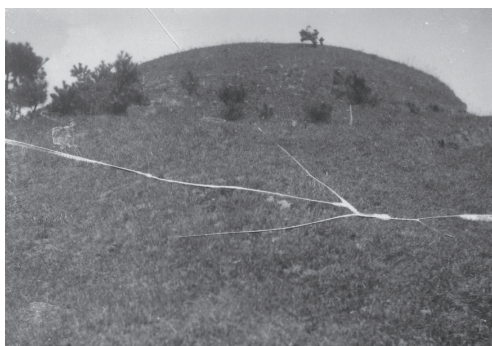
제3호분

제3호분은 제2호분으로부터 남서쪽으로 60m(50步)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앞의 분묘들과 같은 언덕의 정상부에 조성되어 있으나, 봉분의 크기 정보를 보았을 때 서쪽 경사면에 약간 치우친 것으로 보인다. 위치상 현 19호분의 남서 방향으로 가장 근접해 있는 현 20호분과 대응할 수 있다. 전술한 분묘들과 마찬가지로 1917년에 3호분, 1981년에 20호분이라 명명된 것으로 보인다. 1917년의 기록에 근거하여 근대 이후 유존 봉분의 정보가 어느 정도 파악된다. 봉토에는 자갈이 섞여 있으며 높이는 약 2.7m(9尺)인데, 지반이 낮은 서쪽에서 쟀을 때는 4.8m(16尺)까지 측정되었다. 지름은 동서 41.4m(34步), 남북 30.2m(25步)이다. 봉분의 동북면에서 굴착을 시도한 흔적이 있다고 하는데, 다른 분묘들이 그러하듯 도굴이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1~3호분(1918년 야쓰이 촬영, 건판 20532)

제4호분

제4호분은 제3호분의 남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앞의 분묘들보다 낮은 사면에 조성되었다. 전후 분묘들과의 위치관계를 따져 보았을 때 현재의 24호분에 대응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역시 1917년에 4호로 지정되었다가 1981년에 24호로 재지정된 것으로 보인다. 1917년 조사 당시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봉분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봉토의 성분은 점토가 대부분이며, 높이는 3m(10尺)이지만 역시 서쪽으로 기울어진 경사면에 있기 때문에 서쪽에서 측정하면 4.2m(14尺)이다. 지름은 남북으로 27.3m(23步), 동서로 36.3m(3步)이다. 다른 분묘들과 마찬가지로 도굴이 의심된다.

제5호분

제5호분은 제4호분의 남서쪽에 위치하며, 말이산 주능선을 따라 조성되었다. 현재의 25호분이다. 해방 이후 봉분이 복원되어 직경 33m, 높이 7.5m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는데, 1917년 조사 당시에는 높이가 6m(20尺), 지름이 27.1m(15間)이었다. 이마니시 류에 의해 봉토부만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보고서에 기록된 조사 내용은 대부분 매장주체부를 둘러싼 석재에 대한 것이다. 그 내용에 따르면, 묘광은 봉토 정상부로부터 3.9m(13尺)아래에 있었으며 벽면을 할석, 천장은 판석을 이용하였다. 출토 유물은 없었으며, 분묘의 상태가 좋지 않아 중간에 발굴을 중단하고 황급히 복구하였다. 이 고분은 2015년 우리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재발굴되었다.

5호분 전경(1917년 이마니시 조사, 건판 31222)

5호분 석실 개석 표면(1917년 이마니시 조사, 건판 31059)

5호분 할석 노출 상태
(1917년 이마니시 조사, 건판 31054)

5호분 석실 개석(1917년 이마니시 조사, 건판 31059)

제6호분

제6호분은 제5호분의 남동쪽에 위치해 있다. 해방 이후 고분군 유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원형분으로 복원된 후 29호분으로 재지정되었다가 1991년에 30호분으로 변경되었다. 복원된 봉분의 직경은 26m, 높이는 3.5m이다. 일제강점기 조사 당시 봉분 위에 소나무숲이 조성되어 있었고, 민묘에 의해 봉분이 대부분 소실되어 흔적만 남아 있었다.

제7호분

제5호분 있는 곳에서 서쪽으로 늘어진 구릉 위에 위치하며 위치가 낮다. 봉토에 자란 잔디는 양호하며 서쪽에 접해진 민묘가 있다. 남쪽 및 서쪽의 양 측면에는 약 10년 자란 소나무 숲이 형성되었고 도굴의 흔적이 있다. 봉토의 모양은 낮고 평평하며 높이는 동쪽에서 1.8m(6尺), 서쪽에서 5.4m(18尺)이다. 지름은 42.3m(35步)이다.

제8호분

제7호분의 서쪽에 있어 서쪽으로 낮아지는 경사면에 있으며, 봉토는 자갈이 섞인 토양으로 서북쪽 언덕의 토양이 운반되어져 결손되었다. 좋은 토질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쪽에는 소나무가 있다. 봉토의 정상에는 오랜 시기 이전에 이미 도굴 당했다고 생각되어지는 흔적이 있다. 높이는 동쪽에서는 2.1m(7尺)이 되며 서쪽에서는 점차 높아진다. 지름은 42.3m(35步)이다.

제9호분

제9호분은 제3호분에서 서쪽으로 뻗은 구릉 능선 위에 있으며, 제3호분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지점에 조성되었다. 해방 이후 제9호분으로 재지정되었으며, 복원된 봉분의 크기는 길이 약 25m, 높이 약 3m이다. 1917년 조사 당시 봉토 위에 어린 소나무와 오래된 활엽수가 자라 있었다. 봉토의 형태는 동서로 길었는데, 이는 남북면이 상당수 유실되었기 때문으로 판단하였다. 조사 당시 봉분의 높이는 2.1~4.2m(7~14尺), 지름은 동서 42.3m(35步), 남북 약 21.7m(18步)인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다.

제10호분

제10호분은 제9호분의 서쪽에 위치한다. 해방 이후 원형분 중앙에 큰 도굴갱을 확인하였으며, 10호분으로 재지정되었다. 정비된 봉분의 직경은 22m, 높이 3.5m이다. 1917년 조사 당시 봉분 위에 어린 소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자라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봉토가 옮겨진 흔적을 발견하였다. 조사 당시 봉분 높이는 2.1~4.5m(7~15尺), 지름은 동서가 42.3m(35步)였다.

제11호분

제11호분은 제10호분의 남쪽 경사면에 위치한다. 해방 이후 21-6호분으로 재지정되었는데, 조사 당시 봉분은 흔적만 남아 있었으며, 대규모 도굴에 의해 상당 부분 훼손된 것으로 파

악하였다. 1917년 조사 때에는 지름 14.5m(12步)의 봉분이 분명히 확인되었던 것 같지만, 이 당시부터 이미 봉분 내부구조가 지표에 노출되어 있을 정도로 훼손된 상태였다.

제12호분

제12호분은 제10호분의 서북쪽에 위치하며, 서북방으로 낮아지는 경사면 위에 조성되었다. 해방 이후 22-1호분으로 재지정되었으며, 정비된 봉분의 직경은 21m, 높이는 3m이다. 1917년 조사 당시 봉분 위에 15년생 정도의 소나무가 군집을 이루고 있었으며, 봉분 서측에 도굴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고분(12호분 추정) 전경(1918년 조사, 건판 31479)

석실(12호분 추정) 입구 폐쇄 상태
(1918년 조사, 건판 31481)

제13호분

제13호분은 제12호분의 서쪽에 위치한다. 해방 이후 제23호분으로 재지정되었으며, 정비된 봉분의 직경은 12m, 높이는 4m이다. 1917년 조사 당시에는 작은 크기의 무덤이었으며, 봉분 위에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당시 봉토의 크기는 높이 1.8m(6尺), 지름은 18.1m(15步)였다. 주변에 무덤의 내부구조로 쓰였던 석재가 흩어져 있었으며, 예전에 발굴된 흔적이 확인되었다.

제14호분

제14호분은 제1호분의 북서쪽 경사면에 위치한다. 해방 이후 18-1호분으로 재지정되었으며, 조사 당시 이미 내부구조가 노출될 정도로 훼손되었기 때문에 원형 복원을 할 수 없었다. 1917년 조사 당시 봉분 측면이 화전으로 훼손된 상태였으며, 무덤 내부에 사용되었던 개석 3개가 노출되어 있었다.

번외 제1호분

번외 제1호분은 주능선을 따라 제5호분의 아래쪽에 위치한다. 해방 이후 30호분으로 재지정되었으며, 원형분으로 복원되었다. 정비된 봉분의 크기는 직경 30m, 높이 5m이다. 1917년 조사 당시 봉분과 분묘 내부구조가 일부 유존되어 있었을 뿐 대부분 파괴되었다.

번외 제2호분

번외 제2호분은 제8호분과 9호분의 사이에 위치하며, 그 보다 아래쪽 사면에 조성되었

다. 해방 이후 29호분으로 재지정되었으며, 정비된 봉분의 크기는 10m, 높이는 1.5m이다. 1991년 조사 때 도굴의 흔적을 확인하였다. 1917년 조사 때는 개석으로 판단되는 판석이 노출되어 있었는데, 개석의 장축방향이 남북쪽이었기 때문에 묘광의 장축방향은 그에 직교하는 동서쪽으로 판단하였다.

번외 제3호분

번외 제3호분은 번외 제2호분의 서쪽에 위치한다. 해방 이후 28호분으로 재지정되었는데, 조사 당시 수풀로 뒤덮혀 있고 도굴 등으로 봉분이 상당부분 훼손되어 있었다. 정비된 유구의 크기는 길이 10m, 높이 1.5m이다. 1917년 조사 당시 그 규모가 작아서 조선시대의 대형 민묘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번외 제4호분

번외 제4호분은 제11호분의 서쪽 54m(45步)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해방 이후 21-4호분으로 재지정되었으며, 정비된 봉분의 크기는 직경 16m, 높이 1m 미만이다. 1917년 조사 당시 형태는 옆에 있는 제11호분과 유사했으며, 개석 하나가 노출되어 있었는데 조사단은 이 분묘가 이미 발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15호분

제15호분은 제2구역 봉우리 남쪽에 위치한다. 해방 이후 15분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1991년 보고서에는 당시 13호분이 일제강점기 때의 제15호분이라 기록하였지만 분묘의 위치관계를 보았을 때 오기로 판단한다. 1917년 조사 기록에 따르면, 봉분 중앙부에는 화전 경작이 이루어졌으며 봉토가 완전히 유실되어 3개의 개석이 노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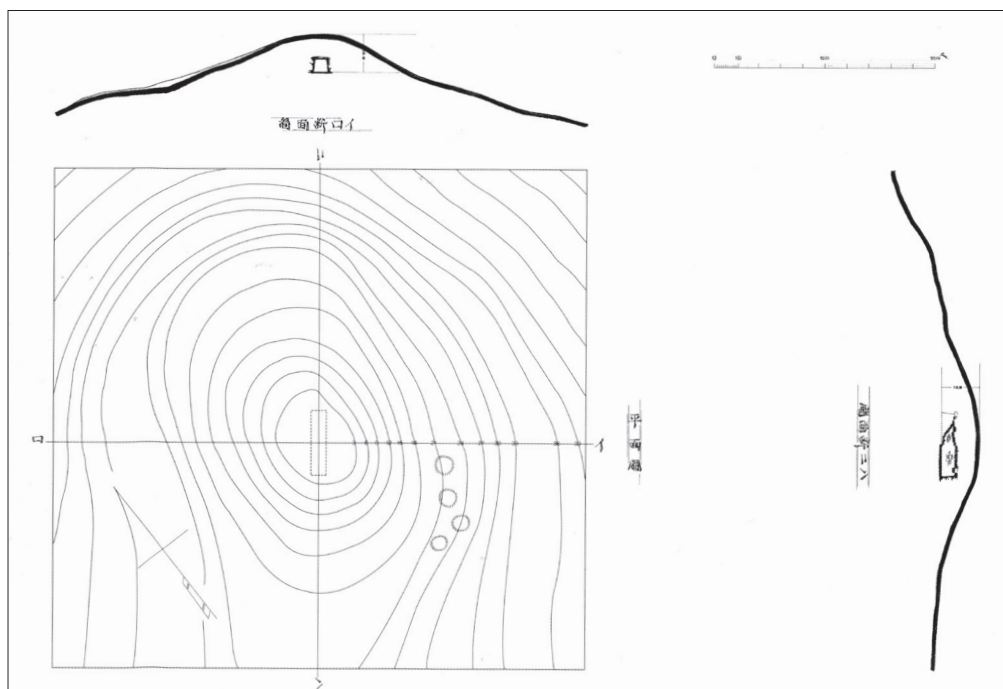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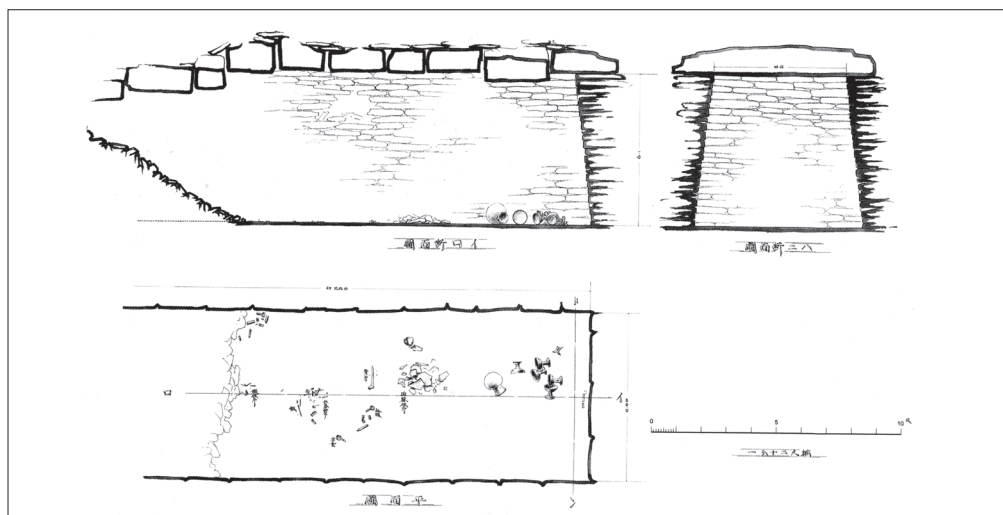
15호분 전경(건판 31095)

제16호분

제16호분은 주능선을 따라 제11호분과 마주 보는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말이산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조성되었다. 해방 이후 13호분으로 재지정되었으며, 타원형의 봉분으로 정비되었다. 정비된 봉분의 크기는 직경 34m, 높이 6m이다. 1917년 조사 당시 고분의 위치를 근거로 말이산고분군의 주요 분묘일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봉토는 자갈이 섞여 있으며, 그 높이는 4.2~7.8m(14~26尺), 지름은 19.3m(16步) 정도 된다.

이 고분은 1918년 야쓰이 세이치가 발굴한 1호분으로, 2018년부터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재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다.

함안 성남산 고분군 일부(16호분, 건판 31477)

함안 석실분(16호분) 내부(건판 31478)

16호분 분구도(1918년 야쓰이 조사)

16호분 실측도면(1918년 야쓰이 조사)

제17호분

제17호분은 제16호분의 서남쪽에 위치한다. 해방 이후 14호분으로 재지정되었으며 원형분으로 정비되었다. 정비된 봉분의 크기는 직경 15m, 높이 5m이다. 1917년 조사에 따르면, 봉토는 자갈이 섞인 모래이며 봉분이 상당부분 소실되어 내부구조가 노출된 상태였다. 노출된 부분을 통해 측정한 묘광의 길이는 19.3m(16步)이다.

제18호분

제18호분은 말이산 주능선을 따라 제17호분의 남서쪽에 위치하며, 제1호분이 있는 봉우리 아래사면에 조성되었다. 해방 이후 제14-1호분으로 재지정되었으며, 계단식 밭경작으로 인해 봉분이 훼손되어 복원하지 못하였다. 1917년 조사 당시에는 봉분이 존재하였으며, 크기는 높이 1.5~4.2m(5~14尺), 지름 31.4m(26步) 정도였다. 봉분에 도굴의 흔적이 명확했다고 한다.

제19호분

제19호분은 제17호분과 18호분의 서쪽에 있으며, 주능선에서 서쪽으로 뻗은 능선 위에 조성되었다. 해방 이후 15호분으로 재지정되었으며, 정비된 원형분의 크기는 직경 25m, 높이 5m이다. 1917년 조사 당시 봉토는 자갈이 섞인 모래였으며, 봉분 위에 소나무와 잔디가 자라 있었다. 봉분 중앙에는 도굴의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봉분 크기는 높이 39.3m(13尺), 지름 42.3m(35步)였다.

제20호분

제20호분은 제19호분의 서쪽에 위치하며, 주능선에서 서쪽으로 뻗은 능선의 봉우리 위에 조성되었다. 해방 이후 16호분으로 재지정되었으며, 대형의 원형봉분으로 정비되었다. 정비된 봉분의 크기는 직경 29m, 높이 4.5m이다. 이 분묘는 1917년 조사 당시에도 가장 큰 규모에 속했으며, 봉분 상부는 삭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21호분

제21호분은 제20호분의 서북쪽 능선 위에 위치한다. 해방 이후 17호분으로 재지정되었으며, 정비된 봉분의 크기는 직경 19m, 높이 3.8m이다. 1917년 조사 당시 봉분 위에 소나무숲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도굴이 의심되는 흔적들이 확인되었다. 당시 봉분의 크기는 높이 2.1m(7尺), 지름 36.3m(30步)였다.

제22호분

제22호분은 제3구역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 해방 이후 11호분으로 재지정되었으며, 정비된 봉분의 크기는 직경 28m, 높이 5.5m이다. 1917년 조사 당시 봉분의 북쪽에 발굴된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봉분 크기는 높이 4.5~6.9m(15~23尺), 지름 52m(43步)였다.

제23호분

제23호분은 제22호분의 서남쪽에 위치하며, 주능선으로부터 서쪽으로 뻗은 능선의 가장 높은 곳에 조성되었다. 해방 이후 11-2호분으로 재지정되었으며, 정비된 봉분의 크기는 직경 14m, 높이 1.5m이다. 1917년 조사 당시 봉분이 훼손되어 분묘의 내부 구조가 노출된 상태였으며, 광의 장축방향은 서북향으로 추정된다.

제24호분

제24호분은 제23호분의 서쪽에 위치한다. 해방 이후 11-5호분으로 재지정되었으며, 정비된 봉분의 크기는 직경 15m, 높이 1.3m이다. 1917년 조사 당시 개석 2개가 노출되어 있었으며, 봉분은 완전히 훼손되었다.

제25호분

제25호분은 제22호분이 소대한 봉우리로부터 서쪽으로 돌출된 능선의 하단에 위치한다. 해방 이후 11-6호분으로 재지정되었으며 정비된 봉분의 직경은 19m, 높이는 2.3m이다. 1917년 조사 당시 봉분 위에 두 그루의 소나무가 자라 있었다.

제26호분

제26호분은 제25호분의 서쪽에 위치하며, 능선 끝단에 조성되었다. 해방 이후 12호분으로 재지정되었으며, 정비된 봉분의 크기는 직경 17.5m, 높이 4m이다. 1917년 조사 당시 봉분에 도굴이 의심되는 흔적이 있었으며, 봉토에는 돌이 섞여 있었다. 야쓰이 세이이쓰가 1918년에 조사한 고분 2기 중 2호분이다.

제27호분

제27호분은 제22호분의 북쪽에 위치한다. 해방 이후 이 무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어 정비되지 못하였다. 1917년 조사 당시 이미 봉토의 대부분이 유실된 상태였고, 분묘 내부 구조가 노출되어 있었다.

27호분 석실 입구(건판 31058)

제28호분

제28호분은 제29호분의 북쪽에 위치한다. 해방 이후 10호분으로 재지정되었으며, 정비된 봉분의 크기는 높이 17m, 높이 3.2m이다. 복원정비 후 이 고분 근처에 콘크리트제 의자와 휴지통을 설치하였다. 1917년 조사 당시 봉토 남쪽에 도굴의 흔적을 확인하였으며, 분묘 내부 구조가 노출되었다.

제29호분

제29호분은 제28호분의 북서쪽에 위치하며, 제22호분과 같이 제3구역의 중심 분묘로 판단된다. 해방 이후 9호분으로 재지정되었으며, 정비 후 근처에 체육시설과 탁자를 설치하였다. 정비된 봉분의 크기는 직경 28m, 높이 4m이다. 1917년 조사에 따르면 봉토는 자갈이 섞여 있으며, 봉분의 높이는 5.4m(18尺), 지름은 27.8m(23步)이다. 봉분 남측에는 정상부에서 부터 발굴을 시도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제30호분

제30호분은 제29호분의 북서쪽에 위치하며, 주능선에서 움푹 들어가는 부분에 조성되어 있다. 해방 이후 5호분으로 재지정되었다. 원형 봉분으로 추정되었지만 이미 삭평되어 없었고, 분묘 내부 구조가 지표에 노출되어 있었다. 잔존하는 봉분의 직경은 16m, 높이는 1m이다. 1917년 조사 당시 노출된 석개에서 "수하왕壽下王"이라는 명문을 발견하였다.

30호분 잔(건판 25783)

제31호분

제31호분은 제30호분의 서쪽에 위치하며, 주능선으로부터 서쪽으로 뻗은 능선 위에 조성되었다. 해방 이후 6호분으로 재지정되었으며, 91년 조사 당시 송전탑이 봉분의 일부를 파괴하고 들어서 있었으나 92년에 철거되었다. 현재 봉분의 직경은 21m, 높이는 3m이다. 1917년 조사에 따르면 인근 주민들이 봉토의 상부를 제거하였다 하는데, 이로 인해 봉분의 전체적인 형태는 낮고 평평한 원형이다. 평평한 상부는 당시 주민들이 곡물을 건조하는 자리로 사용했다. 봉토 내부에는 자갈이 섞여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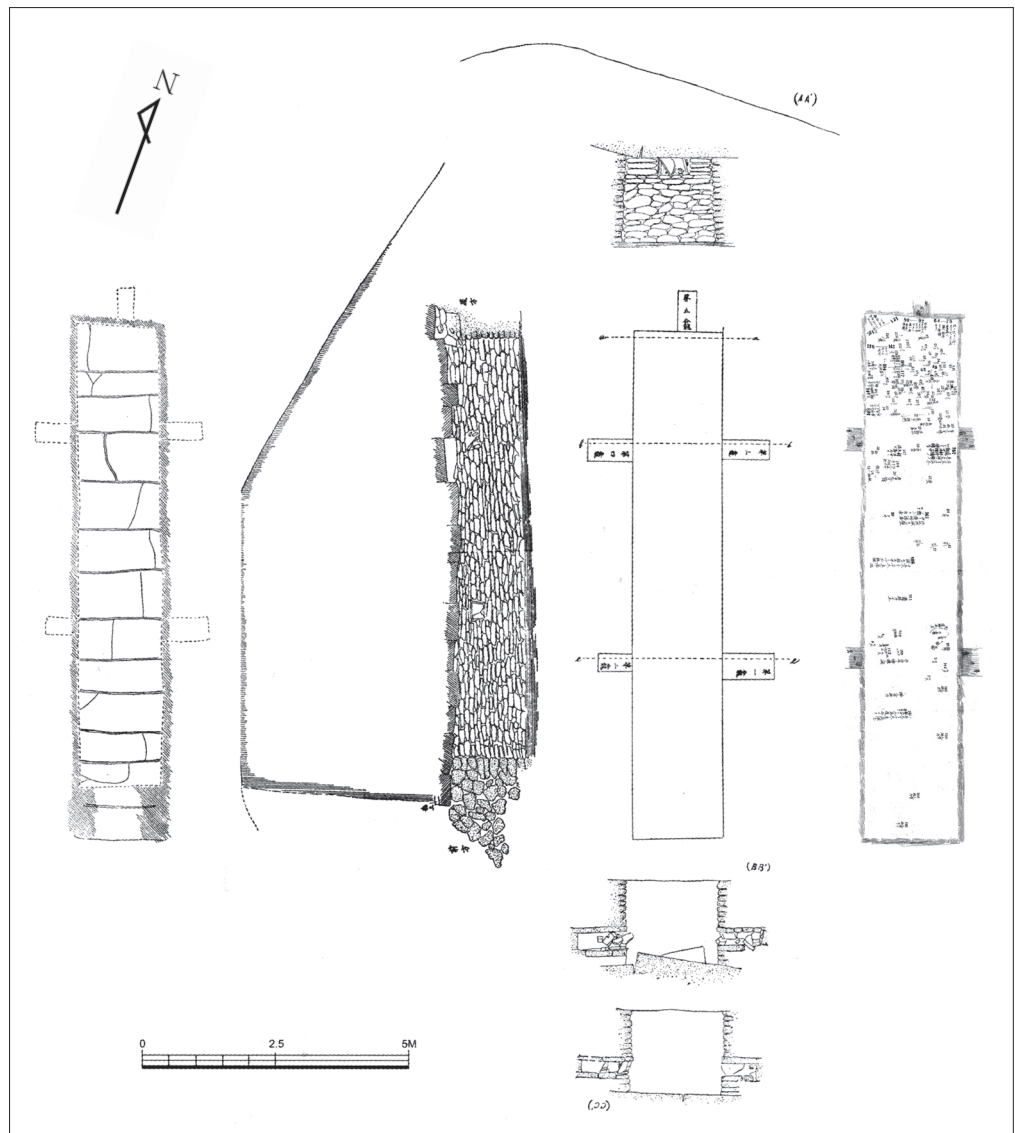
제32호

제32호분은 제31호분의 서쪽에 위치한다. 해방 이후 7호분으로 재지정되었으며, 정비된 봉분의 직경은 21m, 높이는 3m이다. 91년 조사 당시 봉분의 여러 도굴 구덩이가 확인되었으며, 경작으로 인해 봉분의 한쪽면이 상당부분 유실되었다. 1917년 조사에 따르면, 봉토는 점토질이며 상부가 평평하였다.

제3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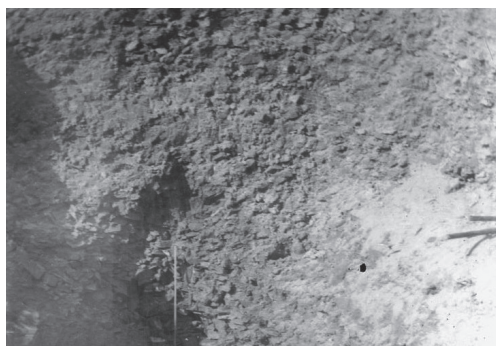
제33호분은 제32호분의 서쪽에 있으며, 제30호분 지점으로부터 서쪽으로 뻗은 능선의 말단부에 조성되었다. 해방 이후 8호분으로 재지정되었으며, 91년 조사 당시에도 대형분으로 평가될 정도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봉분 위에 수차례의 도굴 흔적이 존재했으며, 봉분 동편에는 경작으로 인해 상당 부분 삭평되었다.

제34호분

제34호분은 말이산 주능선을 따라 현재의 9호분과 2호분 사이에 위치하며, 제4구역의 남쪽 봉우리에 조성되었다. 봉우리 정상부를 모두 점할 정도의 대형 분묘로, 말이산고분군 내에서 가장 거대한 분묘이다. 해방 이후 4호분으로 재지정되었고 현재 원형분으로 복원되어 있는데 복원된 봉분의 직경은 45m, 높이는 5m이다. 이마니시 류에 의해 1917년 10월 14일부터 10월 26일까지 조사되었다. 조사목적은 임나일본부설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해내는데 있었으며, 그 내용이 『대정6년도고적조사보고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에 기록되어 있다. 묘제는 수혈식석곽묘인데, 일제강점기 조사 당시에는 횡혈식석실분으로 오인되었다. 벽체 최하부만 지표 암반을 일부 굴착한 지상식 구조인데다가 매장주체부 내에 5개의 감실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오인되기 쉬웠던 것 같다. 매장주체부는 길이 9.79m, 높이 1.7m, 너비 1.7m이며 측벽은 할석을, 바닥은 판석을 이용하였

34호분 실측도(1917년 이마니시 조사, 朝鮮総督府 1920 도 44~47·55)

다. 봉분 아래에 호석은 설치되지 않았다. 출토유물은 수레바퀴와 오리 등의 장식이 가미된 이형토기와 전형적인 함안양식 토기, 그리고 금속제 마구, 환두대도 등이 확인되었다. 순장도 확인되었는데, 5~6명 정도의 순장자가 피장자와 함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졸속으로 이루어진 조사였지만, 여기서 확인한 유물들은 조사단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일본의 지배를 받던 임나일본부는 커녕, 그 수준을 뛰어넘는 아라가야의 진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34호분(좌측)(1914년 도리이 촬영, 건판 1980)

34호분 남면(1917년 이마니시 촬영, 건판 31169)

34호분 봉토 단면(1917년 이마니시 조사, 건판 31074)

34호분 석실 개석
(1917년 이마니시 조사, 건판 310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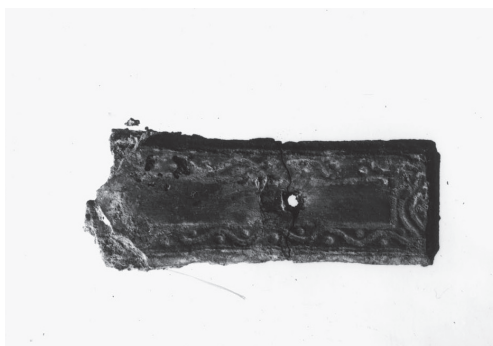
34호분 석실 내부
(1917년 이마니시 조사, 건판 31126)

34호분 석실 내부
(1917년 이마니시 조사, 건판 31160)

34호분 각제병두
(1917년 이마니시 조사, 건판 25571)

34호분 출토 찰갑
(1917년 이마니시 조사, 건판 31224)

34호분 철모와 철겸
(1917년 이마니시 조사, 건판 31227)

34호분 출토 마구장식
(1917년 이마니시 조사, 건판 31225)

34호분 출토 금동장식구
(1917년 이마니시 조사, 건판 26403)

34호분 출토 철추
(1917년 이마니시 조사, 건판 31228)

34호분 토기
\(1917년 이마니시 조사, 건판 25785)

34호분 기대와 각종 호
(1917년 이마니시 조사, 건판 31235)

34호분 기대
(1917년 이마니시 조사, 건판 25787)

34호분 원저단경호
(1917년 이마니시 조사, 건판 31233)

34호분 출토 각종 고배
(1917년 이마니시 조사, 건판 31236)

34호분 출토 각종 고배
(1917년 이마니시 조사, 건판 31238)

제35호분

제35호분은 제34호분의 서북쪽에 떨어진 별개의 봉우리 경사면에 위치해 있다. 분묘가 축조된 봉우리의 정상부에는 제36호분과 제37호분이 나란히 위치해 있다. 훼손이 심하여 해방 이후에도 봉분을 복원하지 못하였는데, 개석 3개가 노출된 상태였다. 개석 노출부의 길이는 약 10m 정도이다. 1917년 조사 당시 이미 봉분 양쪽 끝으로 화전 경작이 이루어지고 분묘 하부구조가 노출되어 있었다. 조사 당시에도 개석 3개가 노출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양상은 제15호분과 유사하다. 당시 개석 노출부의 길이는 1.8m(6尺), 너비는 0.7m(2尺 2寸), 두께는 0.3m(1尺 1寸)이었다.

제36호분

제36호분은 말이산 주능선을 따라 제38호분으로부터 약 230m 정도 남쪽에 위치한다. 제37호분과 동일한 봉우리에 나란히 조성되어, 일제강점기 조사단은 이를 '자매총'이라 표현하였다. 해방 이후 원형분으로 복원되었는데, 복원된 봉분의 크기는 직경 15m, 높이 4m이다. 1917년 조사 당시 봉토의 상당부분이 유실되었고 개석 2개가 노출되어 있었다. 무덤의 일부분은 화전으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봉토에는 자갈이 섞여 있었으며, 조사 당시 잔존 높이 1.5m(5尺), 지름 44.7m(37步)였다. 지반암석 위에 조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37호분

제37호분은 제36호분과 나란히 위치하며, 봉우리 정상부의 평탄면에 조성되어 있다. 해방 이후 원형봉토분으로 복원되었는데, 복원된 봉분의 크기는 직경 18m, 높이 3m이다. 1917년 조사 당시 크기는 높이 2.4m(8尺)에 지름 21.6m(18步)였는데, 봉분이 상당부분 유실되어 있었고 서쪽에는 개석이 1개 노출되어 있었고 도굴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제38호분

제38호분은 말이산고분군 중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대형 분묘이다. 해방 이후 북쪽부터 차례대로 번호를 지정하게 되면서 1호분으로 재지정하였다. 원형분으로 복원하였는데, 봉분의 크기는 22m, 높이는 7m이다. 1917년 조사 당시 봉토는 점토로 되어 있어 다른 고분들과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봉토는 상당부분 결실되었는데, 이에 대해 조사단은 주민들이 인근 민묘를 축조하기 위해 채취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조사 당시로부터 수년전에 한 일본인이 도굴을 했다는 사실이 증언과 함께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

제39호분

제39호분은 제38호분의 서북쪽에 위치해 있다. 해방 이후 1991년 조사에서 1-2호분으로 재지정되었으며, 조사 당시에 하부구조 석재가 노출될 정도로 훼손되어 복원하지 못하였다. 1917년 조사 때도 지상에 개석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보고서에 개석의 크기를 측정하여 그 내용을 기록하였다. 제1석은 노출된 부분이 1.2m(4尺)이며 너비 0.4m(1尺

성남산 부근 고분(1호분) 전경 1호분(1914년 도리이 촬영, 건판 1981)

2寸), 두께 0.45m(1尺 5寸)이다. 제1석부터 제3석까지의 길이는 4.5m(15尺)이며, 묘광의 방향은 남서-북동향으로 판단된다. 개석 아래로는 돌이 쌓여있는데, 원형을 알 수 없다. 이 고분은 1914년 도리이 류조가 발굴한 고분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발굴에 관한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성남산 부근 고분(1호분) 내부
(1914년 도리이 촬영, 건판 1982)

제40호분

제40호분은 군집구역 남쪽에 1열로 늘어선 네 기 중 동쪽 끝에 있다. 이마니시 류는 이 고분의 봉분이 본디 원형이었으나, 봉토가 자연적으로 훼손되어 방형분처럼 보이게 되었다고 기록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봉분의 훼손 정도는 서쪽 측면이 특히 심하였으며 정상부도 평탄한 모양이다. 잔존한 봉토의 크기는 높이가 남쪽에서 측정했을 때 1.8m(6尺), 지름은 28.8m(24步)이다. 현재의 35호분이다.

제41호분

제41호분은 제40호분의 서쪽에 있으며, 그와 마찬가지로 봉토가 부분 훼손되어 '원분의 본디 형태를 잃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특히 동북쪽 측면의 봉토가 많이 유실되어 있으며, '토질이 좋아 이전에 굴착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하였는데, 도굴이나 경작에 의한 훼손을 의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 당시 봉분 위에는 잡초와 어린 소나무가 자라고 있었다고 한다. 잔존한 봉토의 크기는 최저지면으로부터 측정한 높이가 4.2m(14尺), 지름은 약 24.2m(20步)이다. 현재의 32호분이다.

제42호분

제42호분은 병렬한 네 기 중 서쪽에서 2번째에 위치해 있다. 이 역시도 봉토가 상당 부분 유실되어 있는데, 이는 주변 개간을 원인으로 꼽고 있으며 봉토 자체는 이미 굴착되었을 정황이 의심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제41호분과 마찬가지로 봉분 위에 잡초와 어린 소나무가 자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잔존 봉토의 높이는 약 2.7m(9尺), 지름은 약 20.5m(17步)이다. 현재의 33호분이다.

제43호분

제43호분은 열의 서쪽 끝에 위치해 있으며, 이른바 '도항리부락'의 북쪽에 해당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사 당시 봉분이 유실되어 방형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마니시 류는 이것이 주변의 평지를 경작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봉분 정상은 평탄하며, 서쪽과 북쪽 측면의 토양이 특히 많이 유실되었던 것으로 묘사된다. 잔존 봉분의 높이는 동쪽에서 측정했을 때 0.9m(3尺), 지름은 13.3m(11步)이다.

제44호분

열외한 두 고분 중 제44호분에 대한 기록은 결실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없으며, 다만 다른 분묘들과 별다른 점은 없다고 하였다.

제45호분

제45호분은 제44호분의 남동쪽, 정확히 정남방으로부터 동쪽으로 15도 기운 방향에 위치하며, 제44호분에 비해 약간 높은 지점에 있다. 봉분 위에 여러 나무들이 자라나 있으며, 잔존 봉분의 높이가 1.5m(5尺), 지름은 남북 30.2m(25步)이다. 수치 상 잔존부의 크기는 제40호분과 비슷한데, 이마니시 류는 이것이 고분으로서는 의심되는 바가 있다고 기록하였다. 아마 개간되고 남은 땅이 아니냐는 의문을 던지는데, 직접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참고문헌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 三.

朝鮮總督府, 1920,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關野貞, 1941, 『朝鮮の建築と藝術』, 岩波書店(東京).

창원대학교박물관, 1992, 『咸安 阿羅伽耶의 古墳群(Ⅰ)-道項里·末山里 情密調查 報告-』.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창원대학교박물관, 1995, 『阿羅伽耶文化圈 遺蹟 精密地表調査報告』.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1997, 『咸安道項里古墳群Ⅰ』.

국립중앙박물관, 1998. 『광복이전조사유적유물미공개도면Ⅰ』-경상남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고고학사전』.

국립김해박물관, 2007, 『특별전 – 함안 말이산 34호분』.

함안박물관, 2013, 『말이산』, 함안박물관 개관10주년 기념 특별전.

국립김해박물관, 2017, 『咸安 末伊山 4號墳(舊34號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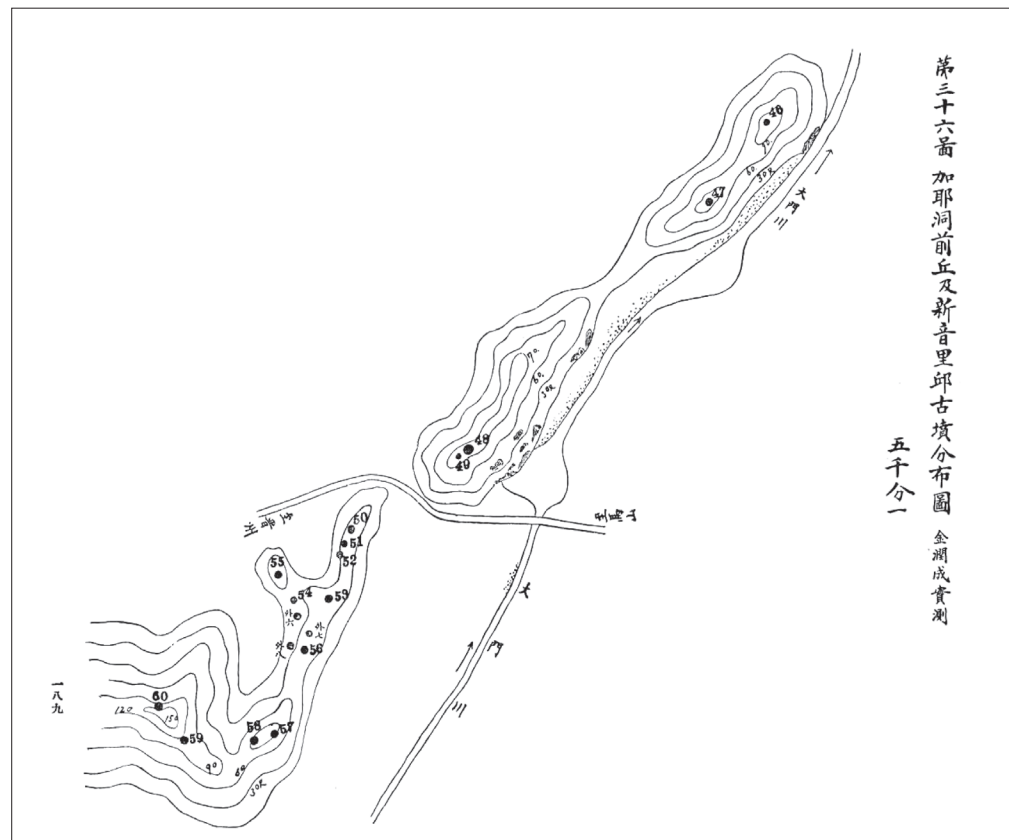
우리문화재연구원, 2018, 『咸安 末伊山古墳群 第25·26號墳』.

02 남문외고분군

南門外古墳群

개요

함안 남문외고분군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858-2번지 일대에 분포하는 삼국시대 고분들의 군집이다. 일제강점기 때 '가야리구군伽倻里丘群'과 '신음리구군新音里丘群'으로 명명되었다. 두 고분군은 본래 연결된 언덕('가야리 언덕')에 위치하였으나, 마산-진주간 도로로 인해 끊어져 따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양상으로 인해 1917년 조사 당시 이 두 고분은 말이산고분군과 도항리고분군의 관계로 이해되었다. 이후 2000년 8월 31일에 신음리고분군과 함께 남문외고분군으로 명명된 후 경상남도기념물 제226호로 지정되었다.

이 유적이 위치한 언덕은 행정구역상 가야리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마니시 류가 편의 상 가야리 언덕으로 명명하였다. 이 언덕은 북동쪽과 남서쪽에 있는 2개의 작은 언덕이 횡으로 연결된 것이다. 언덕의 서쪽에는 촌락과 저습지가 위치해 있고 남쪽에는 마산-진주간 도로가 접해 지나가며, 동쪽에는 대문천大門川이 언덕 방향을 따라 북

가야리고분군과 신음리고분군(朝鮮総督府 1920 도 36)

가야리(하단)·말이산(중앙)고분군 원경
(1918년 야쓰이 촬영, 건판 31465)

가야리고분군 봉토분(건판 3829)

가야리고분군의 발굴된 내부 모습
(1915년 구로이타 조사, 건판 3831)

쪽으로 흘러간다. 언덕의 높이는 27m(90尺) 내외인데 북쪽이 조금 더 높으며 길이는 두 언덕을 합쳐 남북 763.7m(7町), 폭은 동서 109.1m(1町)이다.

이 유적이 위치하는 함안 가야리 일대는『함주지』에서도 아라가야의 옛 터로 언급되는 공간으로, 안라왕궁지의 남문 부근에 위치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일제강점기 조사는 1915년과 1917년으로 구분되는데, 1915년 구로이타 가쓰미가 이미 파괴되어 있는 적석총(석곽묘) 1기를 발굴하였으나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현재 위치는 불분명하다. 1917년 이마니시 류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가야리구군에 4기, 신음리구군에 14기 등 총 18기가 확인되었다. 가야리구군은 조사 당시 북쪽 언덕과 남쪽 언덕에서 각각 2기의 분묘를 확인하고 말이산고분군의 도항리구군에 뒤이은 번호(46~49호)를 부여하였다. 신음리구군은 가야리구군에 뒤이은 번호(50~60호)를 부여하였다.

해방 이후 1984년에 남문외고분군 일대의 지표조사를 재실시하여 추가로 5기가 확인되었는데, 이 때 제59호분과 제60호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제52·54호분과 번외 6·7·8호분이 경작으로 인해 유실된 상태이며, 2014년에 현재 11호분이 발굴조사되었다.

조사내용

제46호분

제46호분은 북쪽 언덕의 북단에 위치해 있는데, 군집 중 가장 높은 곳에 조성되어 있다. 봉토의 높이는 1.2m(4尺), 지름은 13.3m(11步)이다. 봉토상에 중형의 돌이 3~4개 노출되어 있다. 근방에 민묘가 있다.

제47호분

제47호분은 북쪽 언덕의 남방에 있으며, 제46호로부터 약간 낮은 곳에 조성되어 있다. 제46호분과 약 240m(200步) 정도 떨어져 있다. 봉분은 북측이 일부 유실되어 있고, 정상부 또한 평평하여 원형을 다소 잃은 것 같다. 높이는 1.8m(6尺), 지름은 25.4m(21步), 북방에 도굴을 시도한 흔적이 있다.

제48호분

남쪽 언덕의 남변 높은 곳에 있다. 정상부가 평이하며 개석 2개가 무너져 어질러진 채로 노출되어 있다. 높이는 2.1m(7尺), 지름은 32.6m(27步)이다.

제49호분

제48호분에 연접한 작은 분묘로, 전반부가 파괴되어 묘광이 노출되었다. 개석 상면은 봉토의 정상부로부터 0.45m(1尺 5寸) 이하이다. 개석의 두께는 0.15m(5寸)이다. 측벽은 부근에서 채집한 암석을 사용하였으며, 파괴된 정도가 심하여 원형을 알 수 없지만 그 구조는 말이산고분군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측벽면의 경사로 추측했을 때 묘광의 하부는 상부보다 폭이 넓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봉토의 높이는 측방의 낮은 부분으로부터 측량했을 때 1.5m(5尺)이다.

제50호분

제50호분은 언덕의 북쪽 끝에서 도로와 인접한 곳에 조성되어 있다. 1917년 조사 당시 유존 상태는 봉토가 약간 유실되어 남북이 약간 긴 형태였고, 도굴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잔존 높이는 3m(10尺)이며 지름은 32.4m(27步)이다.

제51호분

제51호분은 제50호분의 남쪽에 조성되어 있다. 1917년 조사 당시 잔존 높이는 1.2m(4尺), 지름은 20.5m(17步)이다. 봉토 위에서 발굴조사의 흔적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구로이타 가쓰미가 조사한 분묘가 이 유구일 것으로 판단되지만, 명확한 설명은 없

다. 이 유구의 동쪽으로 작은 봉분 형태의 흙더미가 있고, 발굴을 시도한 것 같은 흔적이 확인되지만 분묘인지는 판별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제52호분

제52호분은 제51호분의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봉토의 정상부에 발굴의 흔적이 있다. 높이는 북쪽과 동쪽에서 측정했을 때 0.9m(3尺), 서쪽에서 측정했을 때 3.3m(11尺)이며 지름은 20.5m(17步)이다.

제53호분

제53호분은 제52호분의 동남쪽으로 54m(30間) 이격되어 있는 언덕의 동단에 위치해 있다. 봉토의 높이는 동쪽에서 측정했을 때 3.9m(13尺), 서쪽에서 측정했을 때 0.6m(2尺)이었으므로 조사 당시 고분이 아닐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제54호분

제54호분은 제52호분으로부터 서남쪽으로 대략 45m(25間) 정도 떨어진 곳에, 제53호분으로부터는 남서쪽으로 81m(45間)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봉토의 정상부는 평평하며 높이는 0.9m(3尺), 지름은 14.5m(12步)이다. 이미 발굴된 흔적이 있다.

제55호분

제55호분은 제54호분으로부터 서쪽으로 50.8m(42步)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데, 그 입지가 언덕 능선의 본맥에서 서쪽으로 돌출된 맥의 정상부에 있어 좋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 봉토의 동쪽에는 민묘가 축조되어 있었다. 정상부는 평평한데 높이는 4.5m(15尺)이며 지름은 약 54.4m(45步)로, 조사단은 군집 중 가장 으뜸의 위계를 차지하는 것 같다고 판단하였다.

제56호분

제 56호분은 제52호분의 남서쪽에 위치한다. 조사 당시 평평한 정상부에서 도굴 흔적이 발견되었다. 높이는 2.4m(8尺)이며 지름은 26.6m(22步)이다.

제57호분

제57호분은 제56호분으로부터 남쪽으로 대략 108m(60間)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조사 당시 봉토 위에 작은 소나무가 자라고 있었으며, 도굴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봉분의 크기는 서쪽에서 측정한 높이가 4.2m(14尺)이며, 지름은 33.8m(28步)이다.

제58호분

제58호분은 제57호분으로부터 남쪽으로 27.8m(23步)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높이는 2.4m(8尺)이다.

第59號墳

第59號墳은 第57·58號墳의 서쪽에 위치하며, 언덕 정상부에서 남동쪽으로 향하는 급경사면에 위치한다.

第60號墳

분포도에 따르면 第59號墳의 북서쪽인 언덕 정상부에 위치한다. 조사 성과에 대한 기록이 멸실되어 보고서에 그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

번외 고분들

第54號墳의 남쪽에 번외 第6號墳이, 第59號墳의 북쪽과 서쪽에 각각 번외 第7·8號墳이 위치한다. 작은 봉분의 형체가 남아 있으며 고분의 흔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번외로 번호를 지정하였다.

참고문헌

朝鮮總督府, 1920,『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창원대학교박물관, 1995,『阿羅伽耶文化圈 遺蹟 精密地表調査報告』.

함안군·창원대학교박물관, 2006,『문화 유적 분포 지도-함안군』.

함안박물관, 2013,『말이산』, 함안박물관 개관10주년 기념 특별전.

여두임, 2014,「함안 남문외 고분군의 활용 방안 연구」,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7,『함안 남문외고분군 11호분』.

03 봉산산성하고분군

逢山山城下古墳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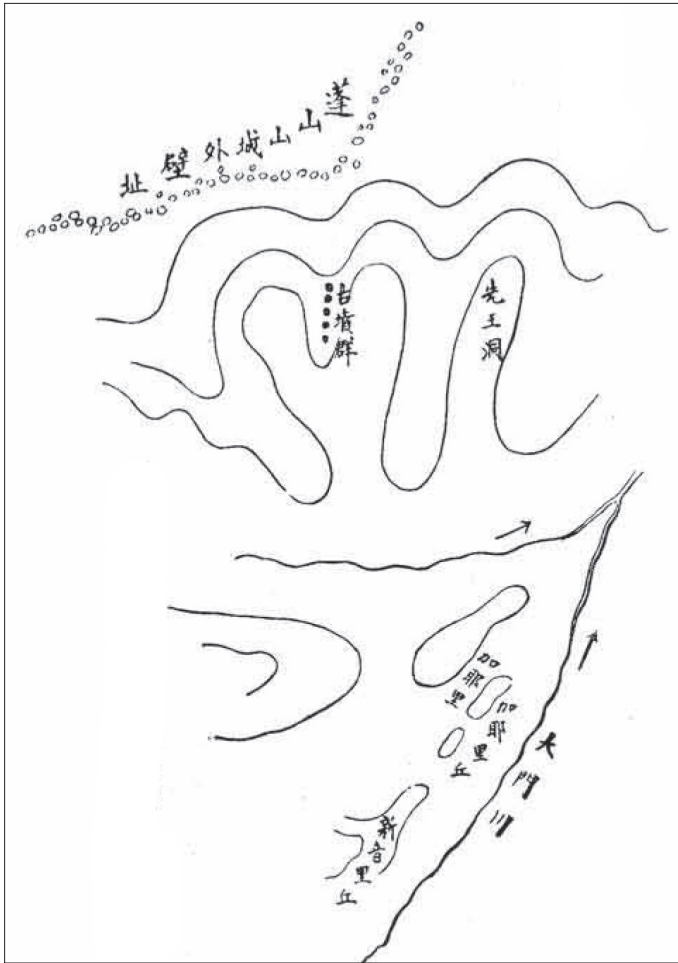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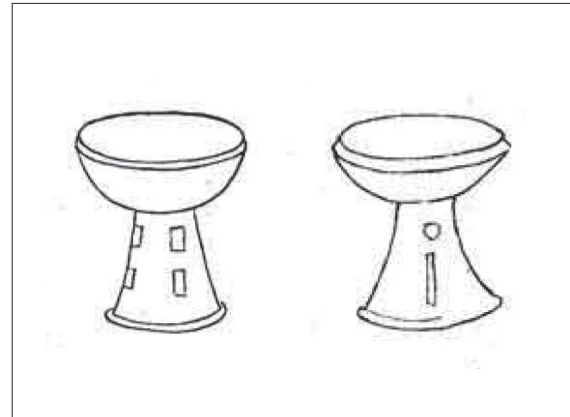
개요

함안 봉산산성하고분군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에 위치한 삼봉산의 남사면에 분포하는 삼국시대 분묘들의 군집이다. 위치가 정확하지는 않으나, 현재 삼봉산 자락에서 확인된 고분군들 중 위치상 사내리 덕전고분군(백새고분군)과 가장 근접하다.

1917년에 이마니시 류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되었는데 처음부터 조사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봉산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이다. 그 때문에 현상을 기록하는 것에 그쳤으나 그래도 그 위치와 분묘의 형태, 수습 유물에 대한 내용이 보고서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고분군은 봉산성 아래 남사면에 위치해 있으며, 양옆으로 능선이 감싸고 있다. 특히 동쪽 능선의 경우 가야리로부터 북쪽에 있고 그 동쪽에 선왕동이 위치한다.

조사내용

1917년 보고서의 서술을 보면 분묘의 입지나 수습 유물 등이 선산지역의 고분문화와 닮아 있음을 지속적으로 언급한다. 입지에 있어서는 즉 함안군의 고분들은 대부분 낮은 평지나 언덕 위에 군집을 이루며 이것은 고령의 양상과 유사한데, 오로지 봉산의 고분군만은 산 능선 위에 열을 지어 있으며 이것이 선산이나 경주의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고적조사단이 금관총 발견 이전까지 경주평야의 분묘들을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당시 이마니시 류는 두 고대국가의 분묘 입지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인지했던 것 같다. 즉 고령과 함안, 그리고 선산과 경주의 분묘 입지 차이를 가야와 신라의 차이로 인식했으리라 판단한다.

함안 봉산산성하고분군의 고분들은 1917년 조사 당시 능선 방향을 따라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정6년도고적조사보고서』에 수록된 봉산산성하고분군의 지도 분포도를 보았을 때, 5기 정도의 분묘가 확인된다. 발견 당시 개석은 유실되어 있었고, 돌을 쌓아 만든 묘광이 능선에 직교하여 횡으로 마련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분묘들 중 한 기를 측량한 결과 상부의 길이는 412cm(13尺 6寸), 폭이 54.5cm(1尺 8寸)이었다. 분묘의 구조나 수습 유물들이 선산의 것과 비슷함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유물의 경우 수법과 양식이 비슷하다고 하지만 어느 면에서 그러한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유물은 고배 두 점과 토기 파편을 발견하였다. 고배의 경우 한 점의 대각에는 장방형의 투창이 상하 2단으로 직렬하여 마련되어 있었고, 다른 한 점의 대각에는 상부에 원형 투공이, 하부에 장방형 투창이 직렬하여 마련되어 있었다. 토기 파편들 중에서는 격자타날문이 시문된 와기가 있었다.

봉산산성하고분군 분포도(朝鮮総督府 1920, 도37-1)

봉산산성하고분군 유물(朝鮮総督府 1920, 도37-2)

경남 함안 말이산에서 본 봉산(1917년 이마니시 촬영, 건판31167)

참고문헌

朝鮮総督府, 1920,『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창원대학교박물관, 1995,『阿羅伽耶文化圈 遺蹟 精密地表調査報告』.

04 전 안라왕궁지

傳 安羅王宮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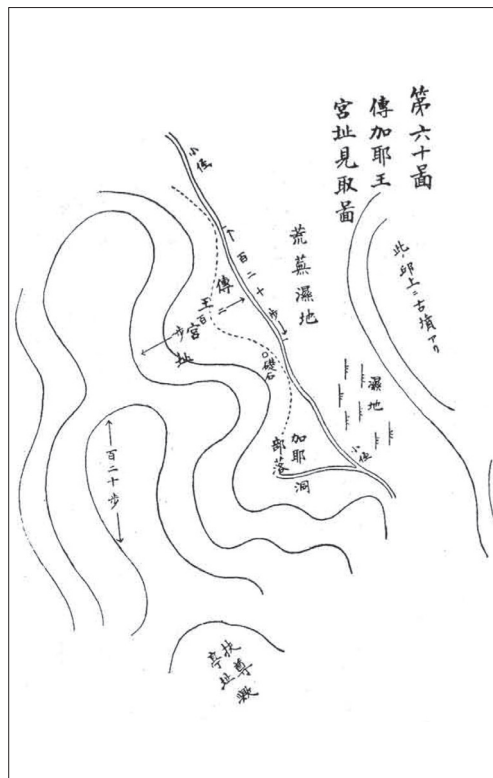
함안 전 안라왕궁지는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일대에 위치하는 아라가야의 왕궁 추정지이다.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1917년 고적조사 당시 이마니시 류에 의해 7군데의 후보지가 선정된 바 있는데, 『함주지』의 기록과 주민들의 구술을 통해 가야리 왕궁지가 그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유적으로 판단되었다. 그러한 추정은 고고학적으로도 설득력을 갖는데, 이곳에는 왕궁지를 둘러싼 성곽으로 추정되는 토벽의 일부가 확인되었으며 건물의 존재를 시사하는 초석이 확인된 바 있다. 이마니시 류는 보고서에 가야왕, 즉 한기와 차한기는 위급시에 산성으로 대피했을 것이지만 평소에도 궁저에 다소의 방어시설을 마련해 두었을 것이라 하였다. 즉 토성의 존재는 왕궁 비정에 직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5월 함안 연꽃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그 부지에 있던 토벽을 대상으로 시굴조사를 실시한 조사단은 그것이 아라가야의 토성벽이 아니라 삼국시대에 축조된 제방임을 규명하였다. 적어도 아라 가야왕궁지의 동쪽 경계로 생각되었던 토축벽은 왕궁과 전혀 관계없는 시설이었다는 것이다. 다만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의 발굴조사를 통해, 왕궁추정지 북쪽 언덕에서 새롭게 목책·토성·제사유구 등 왕궁을 비정할 수 있는 시설들이 확인되고 있어, 전통적으로 지목되어 왔던 가야리 후보지가 실제 왕궁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1917년 고적조사 당시 이마니시 류에 의해 선정된 나머지 6군데의 후보지는 함안읍내, 말이산 동쪽, 가야면 신음리 자관동, 봉산 아래 내동·외동, 동지산성 남쪽 대산리 언덕, 그리고 가야면사무소 북쪽 언덕이다.

이 유적은 왕궁터로서 지목된 역사는 상당히 길지만, 그에 대하여 전면적인 정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면모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제 이곳에 토성이 존재함이 확인되어 앞으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특히 토성이 발견된 언덕은 왕궁터로 추정되는 가야마을을 북-서쪽으로 감싸도는데, 이 언덕 능선을 따라 추가 발굴조사를 실시한다면 왕궁의 영역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2008년 조사를 통해 서기 5세기 이후의 제방으로 판단된 토벽이 단순히 제방인지, 혹은 토성과 연계되어 조금 더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시설인지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

조사내용

이마니시 류에 의해 1917년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가야마을의 추정왕궁지는 특히 『함주지』에 부존정扶尊亭과 연관되어 그 위치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하다. 부존정은 백사리 남쪽 고개, 사방이 조망되는 곳에 위치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현 괘안마을 뒷산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왕궁지는 그 북쪽에 있는 가야마을 일대로 판단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함주지』에서 묘사한 왕궁터는 약 486.6m(1,606尺)의 토축유구가 존재하던 공간이므로 가야마을의 상황과 맞물리는 지점이 있다. 보고서에는 대개 주변 유적과 지형, 위치관계에 대한 이야기들로 점철되어 있으며 유구 자체에 대한 조사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아울러 아라가야의 왕과 사회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바 있는데, 이마니시 류는 아라가야의 왕을 『일본서기日本書紀』의 용례에 따라 한기 혹은 차한기로 지칭하며 일본의 1만석 다이묘에 대응되는 존재로 상정하였다. 또한 부존정은 함안인들의 회의 장소인데, 이마니시 류는 이것이 아라가야 때부터 전래된 것이며 신라의 화백회의와 같은 성격의 귀족회의가 이곳에서 이루어졌으리라고 추정하였다.

전 가야왕궁지 견취도(朝鮮総督府 1920 도 60)

전 안라왕궁지 일부(건판 31187)

전 안라왕궁지 일부(건판 31190)

참고문헌

朝鮮総督府, 1920,『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8,「함안 가야리 아라가야 추정 왕궁지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집」.

05 안곡산성
安谷山城

개요

함안 안곡산성은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화산리 산332·251-1번지와 대산면 대사리 산89번지 일대에 위치한 관방시설이다. 안곡산 정상부에 동서축으로 뻗은 능선의 정선부에 위치해 있다. 1917년 일제강점기 때 현황조사가 실시 되었다. 해방 후 지표조사에서는 편축으로 쌓은 석축산성으로 추정되기도 하였으나, 2017~18년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석혼축의 성벽이 노출되었고, 내벽부에서 가야토기편이 다수 출토되었다. 성벽 축조수법이 가야산성으로 추정되는 함안 칠원산성(일제강점기의 유원리산성), 합천 전초팔성과 유사하여 주목된다.

조사내용

일제강점기의 조사에 따르면, 성은 토성이며 면적은 약 33.420㎡(3丁 3反 7畝)이다. 안곡산에 위치해 있어 현재는 안곡산성으로 불리는데, 일제강점기 조사 당시에는 '안국산성安國山城' 이라 명명되었다. 1917년 이마니시 류에 의해 조사되어 그 기록이 보고서에 남아 있으나, 약식으로 조사된 터라 내용이 상세하지는 않다. 해방 이후 지표조사에서는 성곽 축조기법과 산록에 고분군(신산고분군)이 동반한다는 점을 근거로 인근 무릉산성. 대산면산성(고종산성), 남양동산성(성지봉산성) 등 아라가야 산성들과 유사하다고 하였고 성내 채집 토기편 등을 미루어 삼국시대 가야의 성으로 추정하였다. 최근 시굴조사를 통해 토석혼축의 구조와 가야토기편 다수가 내벽부에서 출토되어 가야산성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참고문헌

朝鮮總督府, 1920,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昌原大學校博物館, 1995, 『阿羅伽耶文化圈 遺蹟 精密地表調査報告書』.
아라가야향토사연구회, 1996, 『安羅國古城』.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8, 「함안 화산리(산251-2) 안곡산봉수대 시굴조사 약보고서」.

06 칠원산성
漆原山城

개요

함안 칠원산성은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유원리 산177-2번지와 산58번지 일대, 즉 자양산으로부터 북서쪽으로 뻗은 능선 정선부에 위치하는 관방유적으로, 일제강점기 때 유원리산성柳原里山城으로 조사되었다. 2001년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소규모의 퇴뫼식 산성으로 성벽 너비가 5m이며 목조 흔적과 보축 흔적등이 확인된 바 있다. 현재는 북쪽사면에 대규모 암석채취공장이 들어서게 되면서 일부 훼손된 상태이다.

조사내용

이 유적은 1916년 일본이 이 지역에 대한 국유림 경계도 측량을 진행하면서, 유원리산성으로 명명하고 측량도면을 남겼다. 이후 1917년 이마니시 류에 의해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의 일환으로 구 칠원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처음 알려졌다. 당시 조사는 상당히 약식으로 이루어져, 보고서에는 성내 면적과 석축성이라는 정보만 기록되어 있는데, '유원리산성은 칠원면 유원리와 칠서면 신산리에 걸쳐있으며 석축성으로 성내면적은 약 12.495㎡(1丁 2反 7畝)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산성은 어령골-도둑골-대동골을 사이에 두고 안곡산성과 남북으로 마주보고 있는데, 이러한 형국은 이 두 산성이 짝을 이루어 길목을 방어할 목적으로 축조되었음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朝鮮總督府, 1920,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昌原大學校博物館, 1995, 『阿羅伽耶文化圈 遺蹟 精密地表調査報告書』.
아라가야향토사연구회, 1996, 『安羅國古城』.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2, 「함안 칠원산성 시굴조사 보고서」, 『연보 2001 별쇄본』.

Ⅳ. 진주

01 수정봉·옥봉고분군

水精峰·玉峰古墳群

개요

진주 수정봉·옥봉고분군은 진주시 옥봉남동에 위치하며, 고분군이 입지한 곳은 남강 북안北岸의 독립 구릉으로, 이 독립 구릉의 남봉(해발 64.7m)과 북봉(해발 92.3m)의 정상부와 완사면에 분포한다.

이곳 남봉과 북봉에는 원래 대형의 봉분을 가진 고총 7기가 구릉의 정상부를 따라 남-북 방향으로 열을 이루어 분포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도굴과 도시개발, 개간 등으로 인해 대부분 없어지고 옥봉고분군에 남아 있는 2기만이 경상남도 기념물 제1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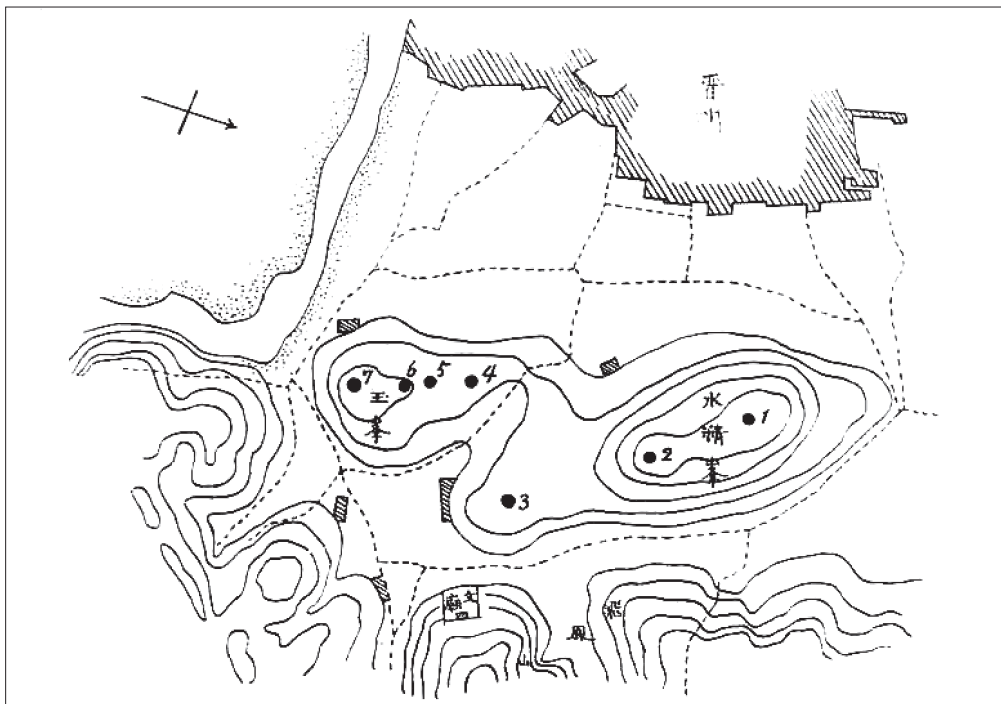
수정봉·옥봉고분군에 대한 첫 조사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으로, 이때 수정봉 2·3호분과 옥봉 7호분 등 3기의 고총이 발굴조사되어 고적조사보고에 전해지나 간략한 기술에 불과하였다. 이후 일본 동경대학에 소장되어 있던 수정봉 2호분과 옥봉 7호분의 출토유물 실측과 기술이 이루어져 소개되었다.

수정봉·옥봉고분군은 발굴된 유구와 유물로 보아 6세기에 이 지역의 유력집단에 의해 조영된 소가야 고분군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유구와 유물에서 엿보이는 외래적인 요소는 이 시기를 전후하여 소가야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해 온 백제와 대가야의 영향력과 상호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조사내용

세키노 다다시關野貞-야쓰이 세이이쓰谷井濟一조사단에 의해 진주 수정봉과 옥봉에서 고분이 조사된 것은 1910년의 일이다. 세키노조사단의 조선고적조사가 시작된 이듬해인데 개성과 평양을 조사하고 옥천에서 속리산을 오르고 이후 왜관에서는 경부철도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 성주를 거쳐 고령, 창녕, 영산, 함안, 진주, 하동, 구례, 남원, 곡성, 옥과와 광주, 나주 등지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된다(關野貞 1911). 이후 해로를 이용하여 인천까지 이동하였다가 경성으로 돌아갔다.

이 해 낙동강 연안에서 가야와 관련된 유적을 답사한 것을 특기했는데 진주에서는 2-3기의 고분을 발굴한 것이 가장 재미있는 성과라고 하였다. 조사 직후인 1911년에 잡지에 그 내용을 간략 보고하였다(關野貞 1911).

수정봉과 옥봉고분군과 관련된 정보는 1910년 11월 2일에 발간된 『경남일보』 수요일자 2면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여기에는 “당시 옥봉(일명 수정봉) 위에는 여러 기의 고총이 있는데 높이는 약 15~18m(5~6尺)이고 넓이는 약 12m(10步) 쯤 된다. 대총인데 어느 시기 어느 사람의 무덤인지 부지하였는데 올해 여름에 발굴(도굴)되어 그 속에

수정봉과 옥봉고분 분포략도(朝鮮總督府 1916 도판 812)

서 기괴한 물건이 다수 발굴되었음은 당시 본보에서 이미 보도하였다. 또한 여러 무덤이 잔존하였는데 이틀 전 도청에서 남은 고분 2곳을 파굴하였는 바, 또 다시 기괴한 고기물이 많이 출토되었다. 본 도청에서는 장차 본군 출신의 유식자와 또한 세키노 다다시 박사의 감정 품평에 붙이겠다고 하더라"고 하여 발굴조사가 1910년 10월 30일을 전후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수정봉과 옥봉에서 고분이 도굴된 것은 1910년 여름 무렵임을 알 수 있다. 누군가가 도굴하다 적발되어 그 출토유물이 경찰서에 압수되면서 언론에 보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상도 남부지역을 조사하던 세키노-야쓰이조사단에게 이 정보가 전해졌고 현지조사에 활용되었다.

그 후 수정봉에 있는 2기의 고분을 발굴했으며 이 중 2호분 출토유물을 도쿄제국대학 공과대로 반출하였다. 그리고 3호분 유물은 당시 이왕가박물관으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 유물은 세키노 다다시가 지니고 귀국한 것이 아니라 귀국 후에 도쿄제국대학으로 기증될 수 있도록 처리해 둔 것이다.

수정봉·옥봉고분군과 관련된 조사기록은 도쿄제국대학 국사학과 교수였던 구로이타가쓰미의 보고에서도 살펴진다. 1915년의 고적조사 복명서가 그의 사후 『구로이타가쓰미선생유문黑板勝美先生遺文』에 실렸다. 진주에서 조사된 고분기사를 살펴보자.

"경상남도 진주에서 전년도(1914년)에 발견되어 크게 알려진 고분은 그 소재지를 방문하였지만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 유감이었다. 이 고분에서는 종래 남조선에서 고경古鏡이 출토된 유일한 고분이었다. 근시 또한 (진주)읍 외에서 1고분이 발굴(도굴) 되었는데 그 유물이 압수되어 진주경찰서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여 고분을 실지 답사하였다."

이를 통해 2가지의 중요한 정보가 얻어진다. 우선 구로이타 가쓰미에게 고경, 즉 청동거울이 출토되는 고분은 대단한 관심사였다. 그의 보고문 전체에서 가야유적을 '임나일본부'의 프레임으로 살피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런 맥락에서 일본왕실 신보神寶인 '검·경·옥劍·鏡·玉'의 실물은 중요했다. 1921년 경주 금관총에서 출토된 '곡옥'이 주목받았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복명서의 사진으로 살피건데 그 고경이라는 것은 고려시대 거울이다.

복명서의 보고문에는 이 외에도 2장의 사진이 게재되었는데 수정봉. 옥봉 고분으로 판단된다. 사진설명은 '진주읍 동고분東古墳 연도'이다. 경사면에 축조된 석실분인데 연도부가 파헤쳐진 채였다. 또 한 장의 사진은 진주경찰서에 압수되었다는 유물을 촬영한 것이다. 통형기대가 1점, 발형기대가 2점, 대부장경호와 장경호, 단경호와 고배류가 다수이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세키노-야쓰이조사단이 1910년에 조사한 것은 수정봉 2호와 3호였고, 그보다 앞서 옥봉 7호가 도굴되었다. 1911년 봄에 세키노 다다시는 수정봉 2호와 압수된 옥봉 7호 출토유물이 도쿄제국대학으로 옮겨지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1912년의 도쿄제국대학 전람회에 이 유물들이 전시되었기 때문에 그가 기대했던 것처럼 1911년도에 유물들이 도쿄제국대학으로 반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구로이타 가쓰미가 1915년에 찍은 사진은 또 다른 도굴고분이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게다가 출토유물이 많은 점으로 보아 고분 1기의 출토품이 아닐 수도 있다. 1910년에 도굴, 발굴되고 남은 고분들이 1915년 전후하여 다수 도굴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유물 비교로도 검증이 가능한데 구로이타 가쓰미의 사진에 게재된 통형기대는 수정봉 2호에서 출토된 토기와는 닮아 있으되 수부의 형태가 다르다. 그리고 발형기대 2점 중 수부와 각부가 탈락된 자료는 도쿄대학으로 반출된 자료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자료는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3에는 아사히 여관 소장품이라 기록되었다. 반면 총독부박물관 소장이라 소개된 토기도 다수 확인된다. 이 당시 도굴된 유물들이 지역의 유력인사 손으로 넘어가기도 하였고 경찰서에 압수되었다가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귀속된 것으로 나누어진 듯하다.

1910년 발굴조사와 그 후 출토유물에 관한 내용은 1911년 잡지와 1916년 『조선고적도보』3의 별책으로 만들어진 『해설解說』에 사진별로 설명되었다.

수정봉 2호

1) 1911년 보고

진주성에서 가까운 동북면에 옥봉과 수정봉이 연접하는데 수정봉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들 구릉상에는 육안으로 보아 7~8기의 대형 고분이 관찰되는데 대체로 원분이었다.

수정봉 위에 대형 고분이 있는데 원분이며 내부에 석곽이 있다. 연도도 있는데 평면플랜과 구조가 모두 창녕에서 본 고분들과 동일하였다. 석곽 내부 후벽 가까이에는 목관을 2개 놓을 수 있는 관대석이 놓여 있었다. 목관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쇠붙이와 쇠못도 있었다. 부장품에는 토기가 있었고 불가사의한 철기도 있었다. 그 외 갑옷과 교구, 도기, 직도, 도자, 청동완, 소옥 등이라 생각되는 물건이 있었다. 토기 중에는 생선뼈가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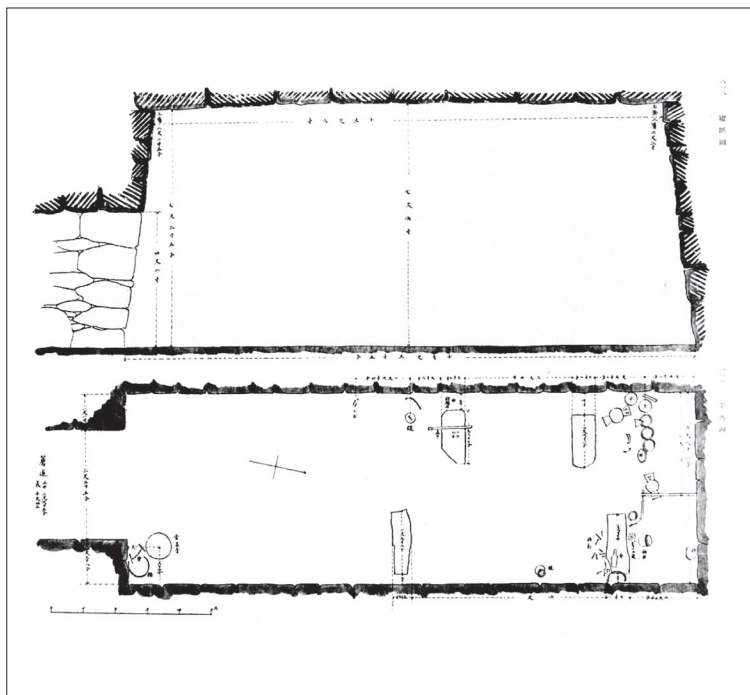
쁘게 남아 있는 것도 있다. 인골이라 여겨지는 것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 유물은 가까운 시일 내에 대학에 도착할 것이다. 그 석곽의 평면플랜이 작도되었는데 석곽은 남쪽이 약 10도 정도 동으로 면한다.

2) 1916년 보고

경상남도 진주군 읍동의 수정봉 및 옥봉 위에 약 7기의 고분이 존재한다.(임시로 제 1호에서 7호라는 명칭을 부여한다) 외형은 모두가 다수 파손되었다. 도판 813(朝鮮總督府 1916)은 옥봉에서 수정봉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다.

외형은 다소 파손되었지만 아마도 원분일 것이다. 현실은 장방형인데 길이는 폭에 대해 약 3배 정도의 길이를 가진다. 할석으로 벽을 쌓아 천장에는 긴 석재 9매를 가로로 놓았다. 실의 단면은 사다리꼴인데 전면 중앙에 연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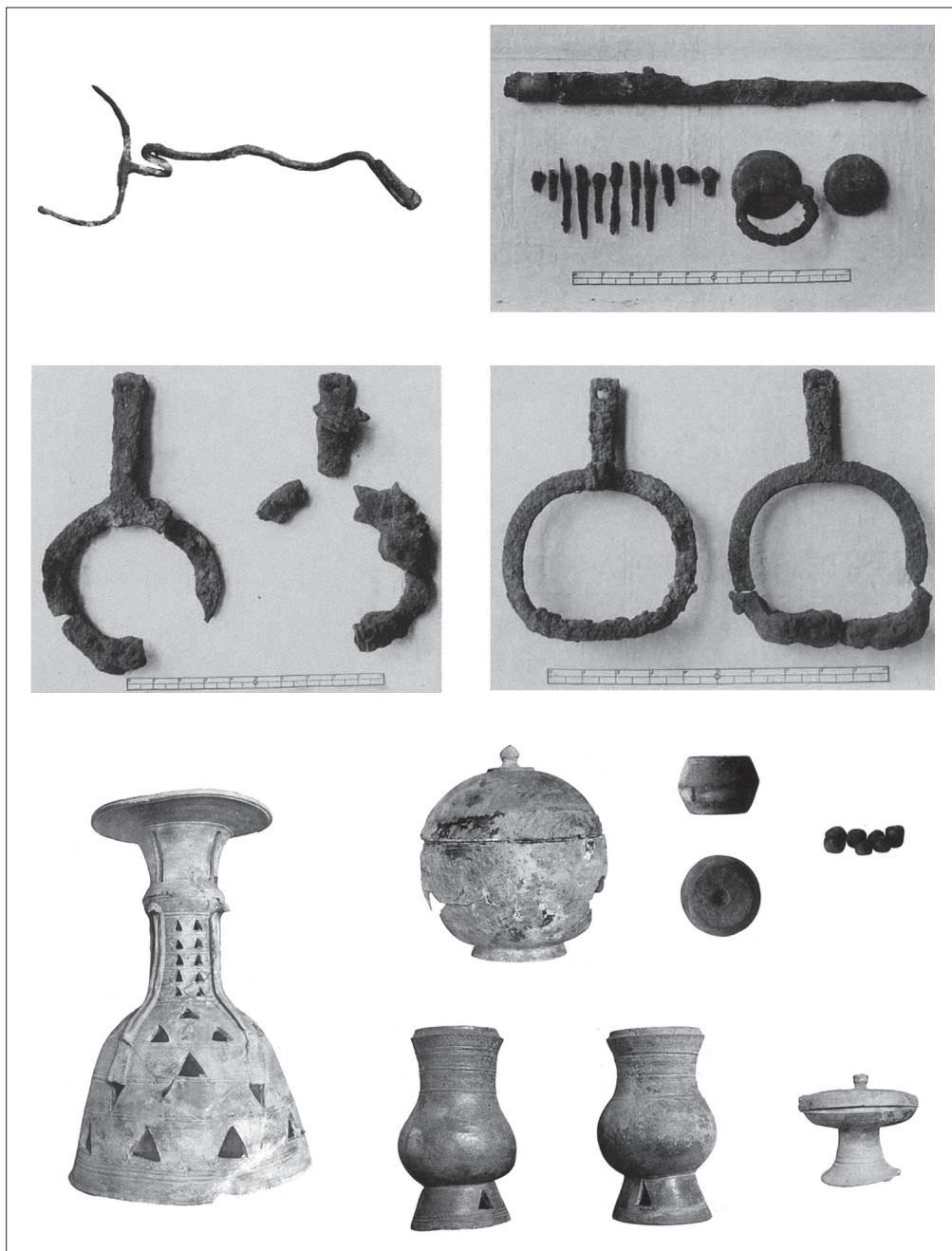
현실의 후부에는 좌우의 벽에 붙여 각 2개의 세장한 석재를 전후에 놓았다. 관을 올려 두는데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부장품의 배치를 통해서 참고하건데 2개의 목관을 부장한 것으로 보인다. 부장품은 도판 817(朝鮮總督府 1916)에 표시하는 것처럼 일부 내 좌우에 철제의 등자와 재갈을 포함하여 도기 14 여러 개와 호가 있었다.

왼쪽 관 주변에서는 철제도끼, 등자, 동완 등이 있다. 또한 오른쪽 관 부근에는 수 개의 대부호, 개배 및 직도 방추차, 소옥 등이 있다. 또한 후벽에 세워둔 기이한 철기를 발견하였다. 어떠한 용도인지 알지 못한다. 또 왼쪽 관 주변에는 철환 2개, 철정 약간을 얻었다. 목관을 움직일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정봉 제2호 고분 석곽 실측도(朝鮮總督府 1916 도판 817·818)

수정봉과 옥봉고분군 전경(朝鮮總督府 1916 도판 813)

진주 수정봉 2호분 원경(朝鮮總督府 1916 도판 814)

수정봉 2호분 근경(朝鮮總督府 1916 도판 815)

수정봉 2호분 현실(朝鮮總督府 1916 도판 816)

수정봉 2호분 출토유물(朝鮮總督府 1916 도판 819~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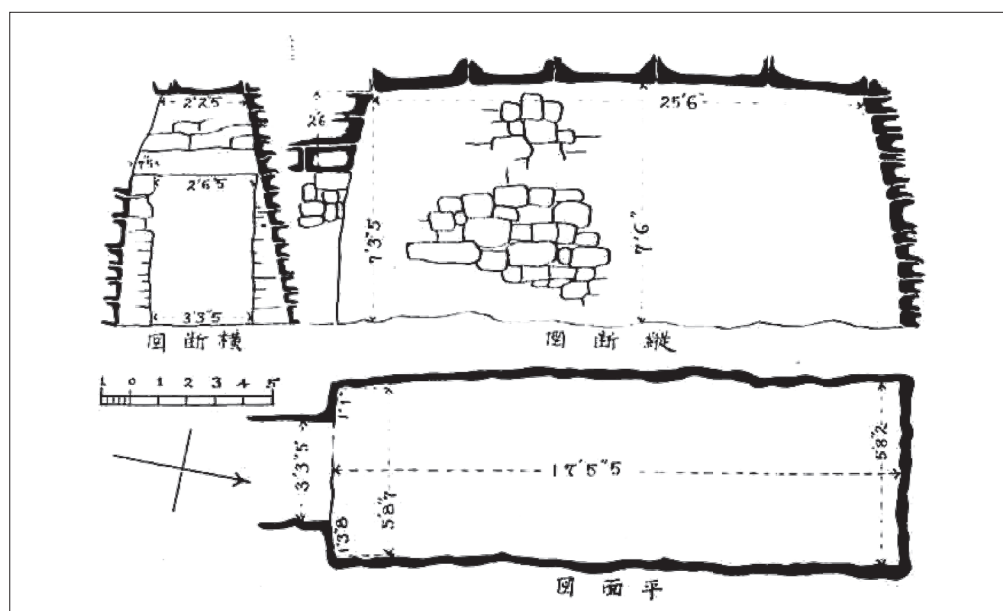
수정봉 3호

1) 1911년 보고

기타 1기의 고분을 발굴하였다고 하는데 부장품은 많은 수의 토기와 3자루의 철모, 그리고 2개의 직도가 출토되었다. 이 고분의 부장품은 경성의 박물관(이왕가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2) 1916년 보고

앞에서 기술한 제2호분의 동남에 있다. 또 세장한 현실과 현실이 중앙에 설치된 연도가 있다. 모두 할석으로 벽을 쌓고 세장한 석재를 횡으로 걸쳐서 천장을 덮었다.

현실은 단면 제형을 띤다. 후벽에 가깝게 좌벽에 붙여서 서로 대응되는 세장한 석재를 두었던 것은 제2호분과 같다. 이 고분에는 1개의 목관을 부장했던 같다. 내부에서는 도와 창 및 여러 종류의 도기가 출토되었다.

수정봉 제3호 고분 석곽 실측도(朝鮮總督府 1916 도판 831～833)

수정봉 3호분 전경(朝鮮總督府 1916 도판 830)

수정봉 3호분 현실 내부(朝鮮總督府 1916 도판 814)

수정봉 3호분 토기(朝鮮總督府 1916 도판 835)

수정봉 3호분 대부장경호·고배
(朝鮮總督府 1916 도판 836)

수정봉 3호분 출토유물(朝鮮總督府 1916 도판 837)

옥봉 7호분

1) 1911년 보고

그 외 지금 옥봉 위에서 이미 발굴(도굴)된 총이 있는데 그것도 석곽의 구조는 비슷하지만 연도는 한쪽에 치우친다. 그 총에서도 많은 토기와 철기가 출토되었는데 진주경찰서에 보관되어 있다. 이들이 도쿄대학 공과대학에 기증된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도착할 것이다.

2) 1916년 보고

경남 진주군 도동면 옥봉이 있다. 1910년에 도굴의 화를 입었지만 현실 내에는 철제의 칼, 도끼, 재갈, 등자 및 제 2호분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이형 철기 및 기타 여러 종류의 도기들이 남아 있었다.

참고문헌

關野貞, 1911, 「伽倻時代の遺蹟」, 『考古學雜誌』1-7, 考古學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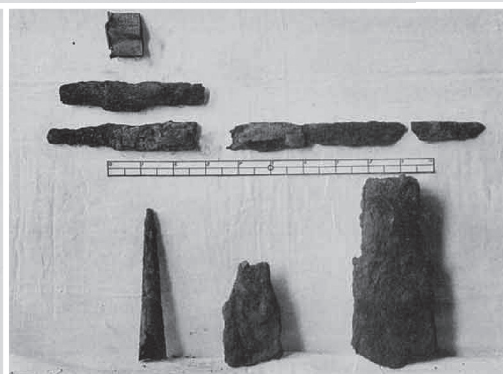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三.

黑板勝美, 1974, 『黑板勝美先生誕生百年紀念會』.

定森秀夫·吉井秀夫·內田好昭, 1990, 「韓國慶尙南道晋州水精峰2號墳·玉峰7號墳出土遺物」, 『伽倻通信』19·20.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한국고고학 전문사전(고분편)』.

옥봉고분군 전경(건판 31418)

옥봉 7호분(朝鮮總督府 1916 도판 838)

옥봉 7호분 출토유물(朝鮮總督府 1916 도판 839~8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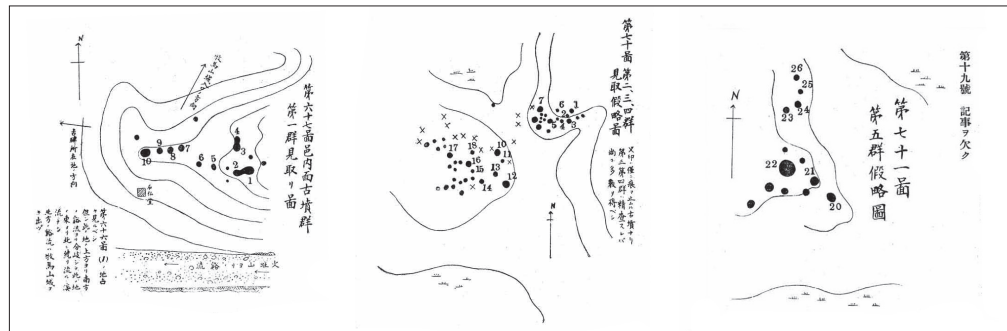
V. 창녕

01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校洞과 松峴洞古墳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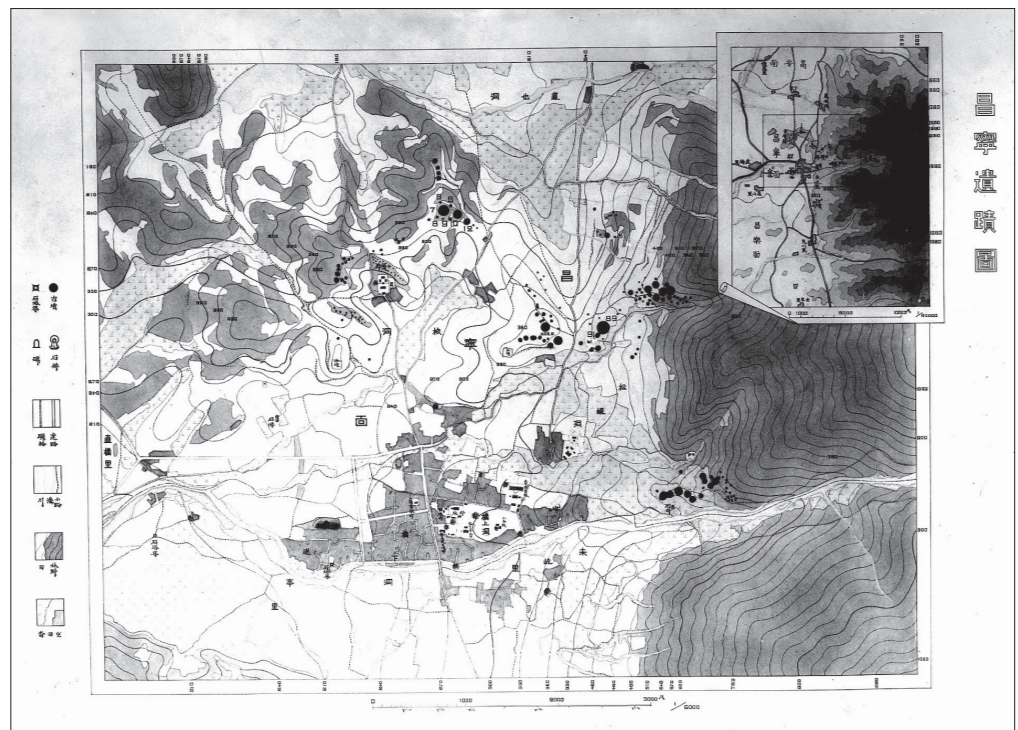
개요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은 행정구역상 창녕군 창녕읍 교리와 송현리 일원에 분포하는 고분군으로, 창녕 교동고분군(사적 제80호)과 창녕 송현동고분군(사적 제81호)으로 각각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나, 2011년 7월 28일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으로 통합되면서 사적 제514호로 다시 지정되었다.

이 유적은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의 일환으로 1910년(명치 43년)조사가 시작되어 1911년 세키노 다다시關野貞에 의해 처음 학계에 알려졌다. 이후 1914년에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와 1915년에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의 조사가 간략히 이루어졌으며, 위의 조사를 바탕으로 1917년(대정 6년) 고적조사에 포함되어 이마니시 류今西龍에 의해 창녕 교동 일대에 대한 분포·현황조사가 이루어졌다.

읍내면 고분군(교동고분군) 1군(좌)·2～4군(중)·5군(우) 견취도(1917년 이마니시 조사)

일제강점기의 발굴조사는 1917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마다 고사쿠濱田耕作와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가 1918년(대정 7년) 10월 18일과 10월 20일에 제21호분과 제31호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야쓰이 세이이쓰谷井濟一가 1918년과 1919년에 걸쳐 제5~8·10~12·89·91호분(총 9기)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1931년 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에 의해 제116호와 제117호분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발굴조사는 총 3차례이다. 그렇지만 민간에서 이루어진 도굴은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 조사내용은 크게 분포조사와 발굴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분포조사는 세키노 다다시, 도리이 류조, 구로이타 가쓰미에 의한 간략한 현황조사와 이마니시 류에 의한 대대적인 분포조사가 있다. 1917년의 분포조사를 통해 고분군을 6개군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고, 고분분포도를 작성하여 이후 발굴조사의 기초자료가 되었다.

직접적인 발굴조사는 하마다 고사쿠와 우메하라 스에지에 의한 발굴조사와 야쓰이 세이이쓰에 의한 발굴조사, 고이즈미 아키오에 의한 발굴조사가 확인된다. 이 중 조사자에 의해 보고가 이루어진 것은 하마다 고사쿠와 우메하라 스에지에 의한 발굴조사가 유일하다. 야쓰이 세이이쓰가 발굴조사한 내용은 정식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며. 1975년 고고학잡지에 우메하라 고고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되어 발표되었으며, 고이즈미 아키오가 발굴조사한 내용은 정식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회고담과 유리건판자료가 일부 남아있다.

창녕 유적도(1919년 오가와 실측, 朝鮮總督府 1922 도 85)

창녕군 고분(현 Ⅲ군) 분포도1(1930~32년 다나카 측량, 창녕군 고분 매수埋修 출장복명서)

창녕군 고분(현 Ⅰ·Ⅱ군) 분포도2(1930~32년 다나카 측량, 창녕군 고분 매수埋修 출장복명서)

현 Ⅰ군(중앙 7호분) 전경(1914년 촬영, 건판 130268)

5호분 방면 전경(1914년 촬영, 건판 5951)

7호분 정상부에서 본 1～4호분
(1918년 야쓰이 촬영, 건판 31563)

고분군 전경(건판 31625)

현 Ⅱ군 39호분 위쪽에서 본 Ⅱ군 전경(건판 310067)

현 Ⅲ군 원경(건판 123-7)

현 Ⅲ군(앞 Ⅲ군 2호분) 전경(건판 130270)

현 Ⅲ군 12호분 석실 노출 모습(건판 31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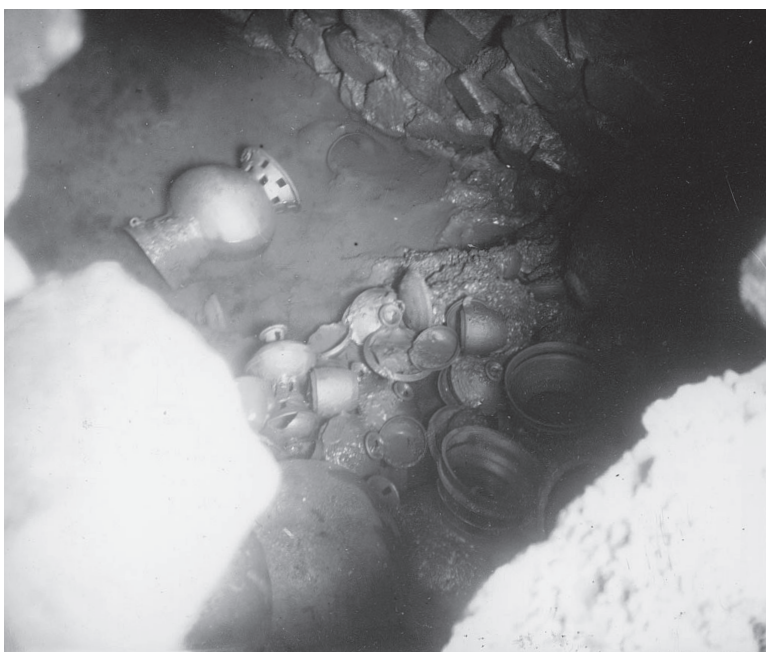
조사내용

교동 5호분

창녕 교동·송현동고분군의 교동 5호분(현 Ⅰ군 5호분)은 Ⅰ군의 군집에 속하는 고분으로 교동 7호분에서 북동쪽으로 분구를 접하고 있는 능선상에 조성되어 있다. 해방 후 재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12년도에 우리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시굴조사 되었으며, 현재는 복원되어 있다. 봉토의 규모는 직경 10~12m, 높이 1~3.9m이다. 조사는 야쓰이 세이이쓰에 의해 1918년 12월 1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조사되었다. 조사내용은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나, 우메하라 고고자료에 남아 있는 내용을 토대로 추후에 보고된 내용으로 보면 유물은 고배류 5점과 토기편 1점 등의 토기류와 철도자 3점, 금동환 1점, 금동이식 1점 등 금속류가 출토된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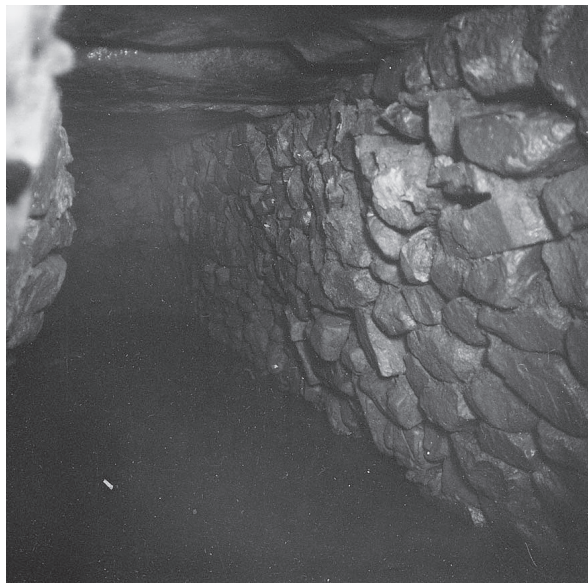
교동 6호분

창녕 교동·송현동고분군의 교동 6호분(현 Ⅰ군 6호분)은 Ⅰ군의 군집에 속하는 고분으로 교동 7호분에서 북쪽으로 분구를 접하고 있는 능선사면부에 조성되어있다. 해방 후 재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12년도에 우리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시굴조사되었으며, 현재는 복원되어 있다. 봉토의 규모는 직경 8~9.6m, 높이 1~1.8m이다. 조사는 야쓰이 세이이쓰에 의해 1918년 12월 1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조사되었다. 조사내용은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나, 우메하라 고고자료에 남아 있는 내용을 토대로 추후에 보고된 내용으로 보면 유물은 대부완 6점, 고배 4점, 합 1점, 소형발 5점, 완 12점 등의 토기류와 철도 1점, 철모 1점, 철촉 7점, 철부 2점 등의 철기류, 재갈 등의 마구류, 이식 등의 장신구류가 출토된 것으로 확인된다.

교동 고분(6호분 추정) 석실 내부 노출 광경
(1918년 야쓰이 조사, 건판 180359)

교동 6호분 석실 내부 토기 노출 (1918년 야쓰이 조사, 건판 31570)

교동 7호분

창녕 교동·송현동고분군의 교동 7호분(현 Ⅰ군 7호분)은 Ⅰ군의 군집에 속하는 고분으로 창녕박물관에서 서쪽으로 뻗어나온 구릉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며, 주변 고분군 중에서 가장 큰 봉분을 이루고 있다. 해방 후 조사는 2011년도에 우리문화재연구원에서 창녕군에서 수립한 교동·송현동고분군 복원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

교동 7호분 전경(1918년 야쓰이 촬영, 건판 31570)

교동 7호분 내부(안쪽이 북단벽)
(1918년 야쓰이 조사, 건판 315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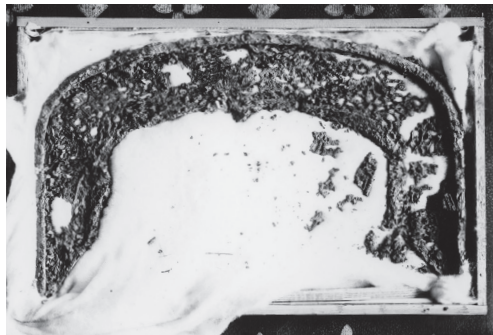
석실분(7호분 추정) 발굴 광경
(1918년 야쓰이 조사, 건판 31575)

으며, 현재는 복원되어 있다. 봉토의 규모는 직경 31.2m, 높이 8.5m이다. 조사는 야쓰이 세이이쓰에 의해 1918년 12월 1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조사되었다. 조사내용은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나, 해방 후 재조사 결과에 따라 횡구식석실로 밝혀졌으며, 수혈식석곽에서 횡구식석실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유물의 부장양상은 도면이 보고되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지만, 남아 있는 유리원판 사진자료를 통하여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유물부장공간을 두상부-시신부-족하부-입구부로 구분하여 부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족하부에는 순장의 가능성도 제시되었다.

출토유물은 우메하라 고고자료와 오바 쓰네키치小場恒吉가 1919년에 작성한 유물목록과 노모리 겐野守健이 1920년에 작성한 유물목록을 통해 유물의 수량을 파악할 수 있다. 유물은 총 700여점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133건 197점이다. 토기류는 유물목록에는 27건 211점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소장되어 있는 유물은 6건 43점만이 확인된다. 대체로 유개고배와 대부장경호, 파수부완, 기대, 연질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옥류는 현재 173점이 확인된다. 목록에는 곡옥, 절자옥, 관옥 등 다양한 형태가 출토되었으나, 현재 곡옥은 확인할 수 없다. 금속류는 장신구, 마구, 무기 등 다양한 종류가 확인된다. 목록에는 329점이 출토된 것으로 확인되나, 현재 남아 있는 자료는 50점이다. 대표적인 유물로는 금동투조안교와 은제대금구, 청동합, 청동용기 등이 있다.

교동 7호분 출토 청동각형용기
(1918년 야쓰이 조사, 건판 5387)

교동 7호분 출토 초두·청동합
(1918년 야쓰이 조사, 건판 710-06)

교동 7호분 출토 금제세환이식(좌측 2개)
(1918년 야쓰이 조사, 건판 665-17)

교동 7호분 안교(1918년 야쓰이 조사, 건판 5392)

교동 8호분

창녕 교동·송현동고분군의 교동 8호분(현 Ⅰ군 8호분)은 Ⅰ군의 군집에 속하는 고분으로 교동 7호분에서 남서쪽으로 떨어진 능선상에 조성되어 있다. 해방 후 재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12년도에 우리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시굴조사 되었으며, 현재는 복원되어 있다. 봉토의 규모는 직경 10.2m, 높이 2.6m이다. 조사는 야쓰이 세이이쓰에 의해 1918년 12월 1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조사되었다. 조사내용은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나, 우메하라 고고자료에 남아 있는 내용을 토대로 추후에 보고된 내용으로는 단경호 1점, 발형토기 1점, 파수부발 1점과 청동마령 2점이 출토된 것으로 확인된다.

교동 8호분 전경(1918년 야쓰이 촬영, 건판 31576)

석실(8호분 추정) 내부 토기 노출 상태
(1918년 야쓰이 조사, 건판 31577)

석실(8호분 추정) 내부 토기 노출 상태
(1918년 야쓰이 조사, 건판 315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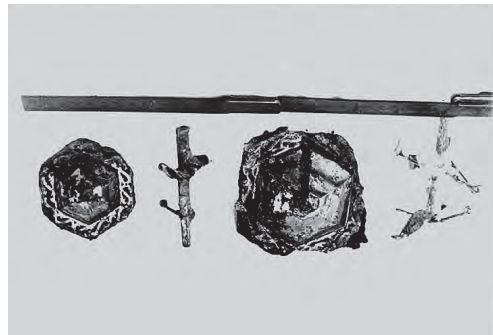
교동 8호분 출토 청동마령
(1918년 야쓰이 조사, 건판 755-09)

교동 10호분

창녕 교동·송현동고분군의 교동 10호분(현 Ⅰ군 10호분)은 Ⅰ군의 군집에 속하는 고분으로 교동 7호분에서 남동쪽으로 인접하여 조성되어 있는 소형분이다. 해방 후 재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12년도에 우리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시굴조사 되었으며, 현재는 복원되어 있다. 봉토의 규모는 직경 7.9m, 높이 4.4m이다. 조사는 야쓰이 세이이쓰에 의해 1919년 1월에 조사되었다. 조사내용은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나, 우메하라 고고자료에 남아 있는 내용을 토대로 추후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 유물은 연질파수부호 1점, 금은장쌍룡문환두대도 1점, 관옥 2점, 금동제운주 2점, 금동령 2점이 확인된다.

교동고분군 일부(10호분 추정)(건판 31583)

석실(10호분 추정) 내부 토기 노출 상태
(1919 야쓰이 조사, 건판 31586)

교동 출토(10호분 추정) 환두대도
(1919 야쓰이 조사, 건판 699-06)

교동 10호분 출토 금동운주
(1919 야쓰이 조사, 건판 710-20)

교동 11호분

창녕 교동·송현동고분군의 교동 11호분(현 Ⅰ군 11호분)은 Ⅰ군의 군집에 속하는 고분으로 교동 7호분에서 동남쪽으로 진행하는 능선상에 위치하는 고분이다. 해방 후 재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12년도에 우리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시굴조사되었으며, 현재는 복원되어 있다. 봉토의 규모는 직경 7.9m, 높이 4.4m이다. 조사는 야쓰이 세이이쓰에 의해 1919년 1월에 조사되었다. 조사내용은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나, 세키노 다다시의 『조선미술사』에 일부 기술된 것이 확인된다. 교동 11호분은 가야

교동 11호분 추정(건판 31589)

교동 11호분 출토 은제삼엽문환두·규두
(1919년 야쓰이 조사, 건판 31593)

시대의 부부합장의 외현실 전방에 3구의 유골이 확인되고, 후벽 가까이에 다수의 토기나 철부, 마구 등이 있고, 특히 풍부한 장식품이 시상위에 발견되었다고 전한다. 유물은 우메하라 고고자료에 남아 있는 내용을 토대로 추후에 보고된 내용으로는 대금구, 이식, 도검, 장신구, 마구, 토기 수 백점 등이 출토되었는데, 대표적인 유물로는 은제삼엽문환두대도, 규두대도, 은제조익형관식편, 은제대금구, 은제심엽형과대, 재갈, 행엽, 청동초두 등이 있다.

교동 11호분 석실 내부 축조 상태
(1919년 야쓰이 조사, 건판 31591)

교동 11호분 석실 내부 유물
(1919년 야쓰이 조사, 건판 74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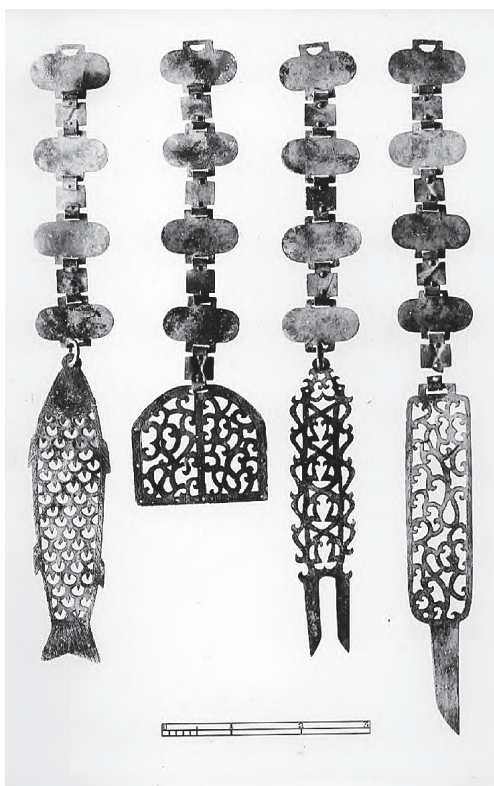
교동 12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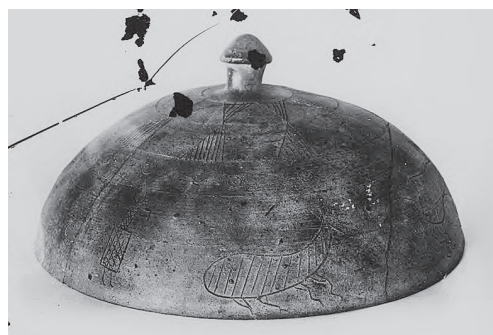
창녕 교동·송현동고분군의 교동 12호분(현 Ⅰ군 12호분)은 Ⅰ군의 군집에 속하는 고분으로 교동 7호분에서 동남쪽으로 진행하는 능선상에 위치하는 고분이다. 동일 능선으로 교동 13호와 교동 14호가 연접하여 위치한다. 해방 후 재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12년도에 우리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시굴조사 되었으며, 현재는 복원되어 있다. 봉토의 규모는 직경 7.9m, 높이 4.4m이다. 조사는 야쓰이 세이이쓰에 의해 1919년 1월에 조사되었다. 조사내용은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나, 우메하라 고고자료에 남아 있는 내용을 토대로 추후에 보고된 내용으로 보면 묘제는 적석목곽묘로 추정되고 있으며, 유물은 행엽, 재갈, 철부, 금·은제 장신구, 금제천, 은제지환, 소옥 등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대표적인 유물로는 금제태환이식, 은제대금구, 문양이 새겨진 대부장경호 등이 있다.

교동 12호분 전경(1919년 야쓰이 촬영, 건판 31596)

교동 12호분 적석(1919년 야쓰이 조사, 건판 31597)

교동 12호분 묘실 전경
(1919년 야쓰이 조사, 건판 31600)

교동고분군 출토 금제이식
(좌상·중-7호분, 좌하-87호분, 우-12호분)(건판 5384)

교동 12호분 출토 은제요패
(1919년 야쓰이 조사, 건판 15-5)

교동 12호분 출토 유개장경호
(1919년 야쓰이 조사, 건판 710-18)

교동 12호분 출토 고배 개
(1919년 야쓰이 조사, 건판 72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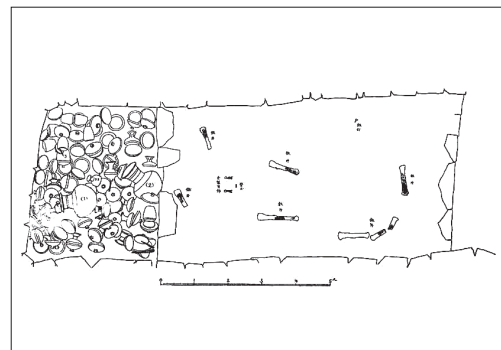
교동 21호분

창녕 교동·송현동고분군의 교동 21호분(현 위치 미상)은 정확한 위치는 확인할 수 없으나, 유리건판자료와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과 도판으로 확인하였을 때, Ⅱ군에 속하는 고분으로 창녕박물관 서쪽 구릉에 속하는 소형 고분이다. 해방 후 재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사는 하마다 고사쿠와 우메하라 스에지에 의해 1918년 10월 18일에 조사되었다. 조사는 오전 9시에 시작하였으나 도굴된 흔적을 확인하여, 오전중에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묘제는 횡구식 석실으로 석실은 봉토의 중앙에 위치하며, 입구는 북쪽으로 나있다. 길이 5.5m(18.3尺), 폭 1.5m(4.8尺), 높이 1.6m(6.3尺)이다. 개석은 7매로 이루어져 있다. 유물은 토사 내에서 인골파편과 토기편이 산란되어 일부 확인되었으나 도굴되어 다른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교동 31호분

창녕 교동·송현동고분군의 교동 31호분(현 위치 미상)은 정확한 위치는 확인할 수 없으나, 유리건판자료와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과 도판으로 확인하였을 때, Ⅱ군에 속하는 고분으로 교동 89호분의 주변에 위치하는 소형 고분이다. 해방 후 재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사는 하마다 고사쿠와 우메하라 스에지에 의해 1918년 10월 19일부터 1918년 10월 20일까지 조사되었다. 묘제는 횡구식석실로 석실은 봉토의 중앙에 위치하며, 입

교동 31호분 석실 실측도(朝鮮總督府 1922 도 62)

교동 31호분 고분 실측도(朝鮮總督府 1922 도 61)

교동 31호분 유물배치도(朝鮮總督府 1922 도 63)

교동 31호분 출토 금제이식
(1918년 하마다·우메하라 조사, 건판 380156)

교동 31호분 출토 금제이식·관옥·환상금구
(1918년 하마다·우메하라 조사, 건판 380158)

교동 31호분 출토 철정
(1918년 하마다·우메하라 조사, 건판 353-17)

교동 31호분 출토 장경호
(1918년 하마다·우메하라 조사, 건판 353-5)

교동 31호분 출토 유개파수부호
(1918년 하마다·우메하라 조사, 건판 353-6)

교동 31호분 출토 유개고배
(1918년 하마다·우메하라 조사, 건판 946-12)

구는 북쪽으로 나있다. 남쪽 단벽에 유물부장칸을 설치하였으며, 석실중앙부에 시상이 확인된다. 길이 5.5m(18.3尺), 폭 1.4m(4.8尺), 높이 1.5m(5尺)이다. 개석은 8매로 이루어져 있다. 유물의 부장양상은 주로 부장칸에서는 토기류가 확인되며, 시상에서는 인골과 이식, 철정이 확인된다. 유물은 토기 66점, 금제이식 1점, 환상금구 4점, 관옥 1점, 소옥 7점, 도자 7점 등이 출토되었다.

교동 89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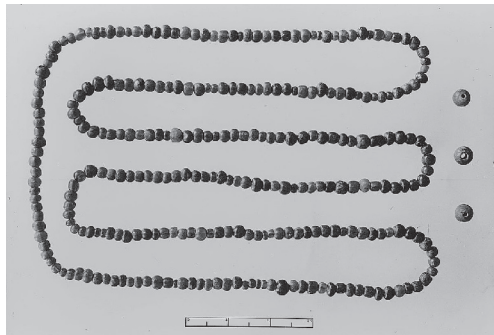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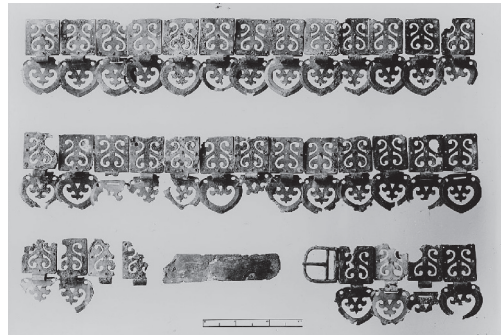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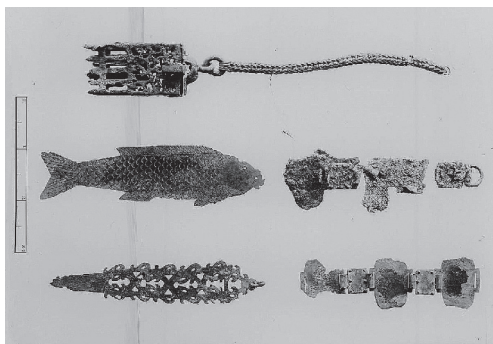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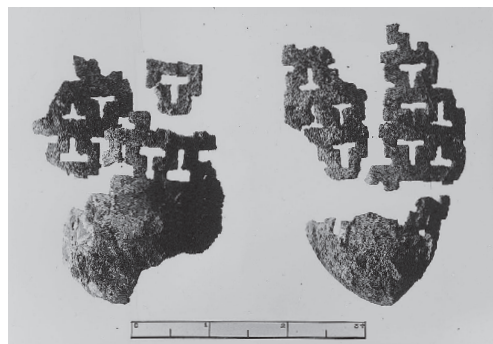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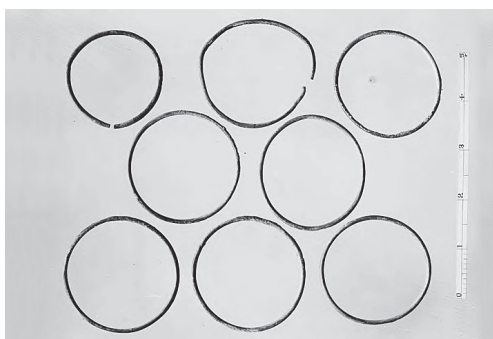
창녕 교동·송현동고분군의 교동 89호분(현 Ⅱ군 10호분)은 Ⅱ군의 군집에 속하는 고분으로 창녕박물관에서 북동쪽으로 진행하는 능선상에 조성되어 있으며, 그 중 가장 큰 고

분이다. 해방 후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는 복원·정비되어 있는 상태이다. 봉토의 규모는 직경 42.3m, 높이 10.8m이다. 조사는 야쓰이 세이이쓰에 의해 1919년 1월에 조사되었다. 조사내용은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나, 우메하라 고고자료에 남아 있는 내용을 토대로 추후에 보고된 내용으로는 묘제는 횡구식석실이고, 1단의 시상이 설치되어 있다. 유물은 7호분처럼 자세한 목록은 확인되지 않으며, 고배, 창, 도검, 마구, 은제장신구, 등자, 금환, 철촉, 철부 등이 출토하였다고 한다. 대표적인 유물로는 찰갑, 금제세환이식, 은제조익형관식편, 은제대금구, 금동식리편, 삼엽문환두대도, 동제마탁 등이 있다.

교동 89호분(건판 180402)

교동 89호분 현실 내부 유물
(1919년 야쓰이 조사, 건판 31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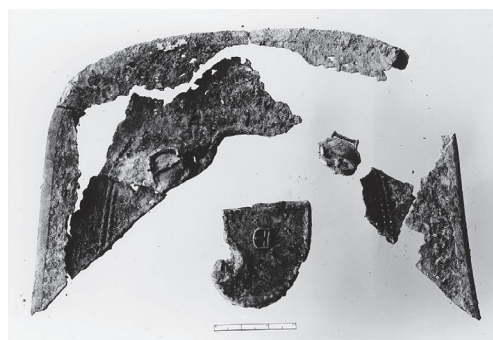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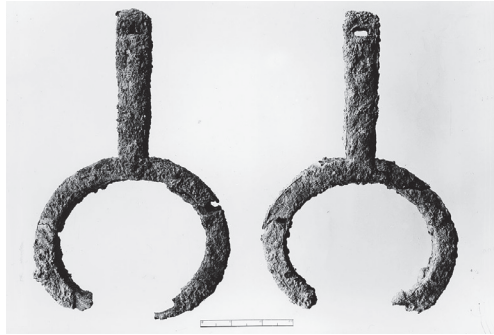
교동 89호분 출토 은제관식·관모
(1919년 야쓰이 조사, 건판 5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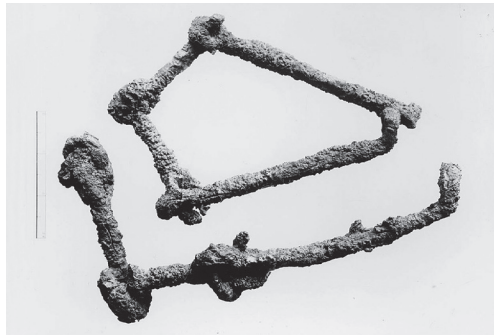
교동 89호분 출토 금제이식·곡옥
(1919년 야쓰이 조사, 건판 5315)

교동 89호분 출토 유리구슬
(1919년 야쓰이 조사, 건판 5316)

교동 89호분 출토 은제과대장식
(1919년 야쓰이 조사, 건판 5317)

교동 89호분 출토 은제과대수식
(1919년 야쓰이 조사, 건판 5318)

교동 89호분 출토 금동제식리
(1919년 야쓰이 조사, 건판 5322)

교동 89호분 출토 은제천
(1919년 야쓰이 조사, 건판 180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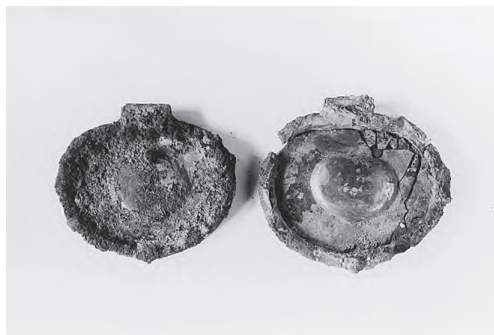
교동 89호분 출토 도자·단야구
(1919년 야쓰이 조사, 건판 180241)

교동 89호분 출토 괘갑
(1919년 야쓰이 조사, 건판 667-07)

교동 89호분 출토 삼엽환두대도
(1919년 야쓰이 조사, 건판 5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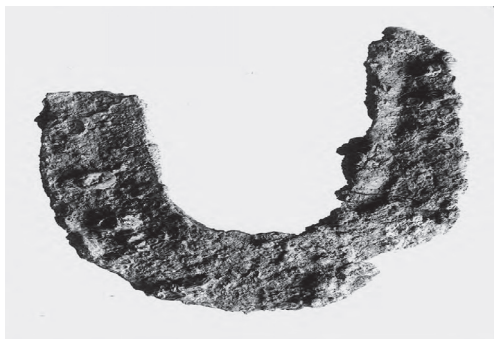
교동 89호분 출토 철모
(1919년 야쓰이 조사, 건판 5337)

교동 89호분 출토 안교
(1919년 야쓰이 조사, 건판 5343)

교동 89호분 출토 등자
(1919년 야쓰이 조사, 건판 5344)

교동 89호분 출토 사행상철기
(1919년 야쓰이 조사, 건판 5354)

교동 89호분 출토 철제비
(1919년 야쓰이 조사, 건판 5351)

교동 89호분 출토 행엽·성시구
(1919년 야쓰이 조사, 건판 5347)

교동 89호분 출토 행엽
(1919년 야쓰이 조사, 건판 755-10)

교동 89호분 출토 행엽
(1919년 야쓰이 조사, 건판 5346)

교동 89호분 출토 운주
(1919년 야쓰이 조사, 건판 5348)

교동 89호분 출토 마탁
(1919년 야쓰이 조사, 건판 5345)

교동 89호분 출토 철초
(1919년 야쓰이 조사, 건판 1041-03)

교동 89호분 출토 통형기대
(1919년 야쓰이 조사, 건판 5379)

교동 89호분 출토 원통형토기·장경호
(1919년 야쓰이 조사, 건판 5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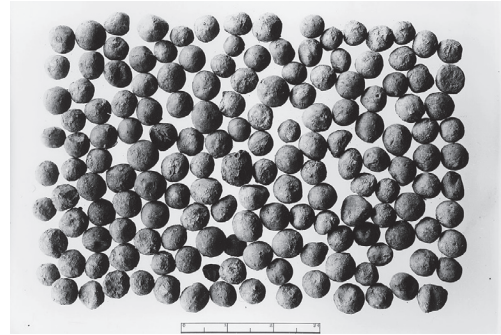
교동 89호분 출토 파수대부완
(1919년 야쓰이 조사, 건판677-16)

교동 89호분 출토 대부장경호
(1919년 야쓰이 조사, 건판 5365)

교동 89호분 출토 고배
(1919년 야쓰이 조사, 건판 5357)

교동 89호분 출토 발(1919년 야쓰이 조사, 건판 5378)

교동 89호분 출토 배(1919년 야쓰이 조사, 건판 5376)

교동 89호분 출토 배
(1919년 야쓰이 조사, 건판 677-14)

교동 89호분 출토 토제구슬
(1919년 야쓰이 조사, 건판 180269)

교동 91호분

창녕 교동·송현동고분군의 교동 91호분(현 Ⅱ군 11호분)은 Ⅱ군의 군집에 속하는 고분으로 교동 89호분에서 남서쪽으로 인접하여 조성되어 있다. 해방 후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는 복원·정비되어 있는 상태이다. 봉토의 규모는 직경 25.9m, 높이 6.1m이다. 조사는 야쓰이 세이이쓰에 의해 1918년 겨울부터 1919년 봄까지 조사되었다. 조사내용은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며, 우메하라 고고자료에 남아 있는 내용을 토대로 추후에 보고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교동 116호분

창녕 교동·송현동고분군의 교동 116호분(현 Ⅱ군 15호분)은 Ⅱ군의 군집에 속하는 고분으로 교동 117호분에서 동쪽으로 떨어진 능선상에 조성되어 있다. 해방 후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는 복원·정비되어 있는 상태이다. 봉토의 규모는 직경 11.5m, 높이 2.7m이다. 조사는 고이즈미 아키오에 의해 1931년에 조사되었다. 조사내용은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유리건판사진을 통해 대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묘제는 횡구식석실로 보이며, 교동고분군 내 석실의 양상과 동일한 양상으로 판단된다. 유물의 부장칸이 피장자 머리위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로 토기류가 출토된 것으로 보인다. 석실 바닥에는 할석을 이용하여 시상을 전면에 설치한 것이 확인된다.

유물은 조사당시의 사진은 일부 남아 있으나, 자세한 유물사진이나 목록이 확인되지 않아 자세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교동 117호분

창녕 교동·송현동고분군의 교동 117호분(현 Ⅱ군 22호분)은 Ⅱ군의 군집에 속하는 고분으로 창녕박물관 서쪽구릉 정상부에 조성되어있다. 해방 후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는 복원·정비되어 있는 상태이다. 봉토의 규모는 직경 11.5m, 높이 2.68m이다. 조사는 고이즈미 아키오에 의해 1931년에 조사되었다. 조사내용은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나, 조사 당시 유리건판사진이 일부 남아 있어서 이를 통해 추정해

교동 116호분 발굴 중의 상황
(1931년 고이즈미 조사, 건판 310040)

교동 116호분 석실 입구 외면 폐쇄석
(1931년 고이즈미 조사, 건판 310043)

교동 116호분 발굴 후 석실 내부
(1931년 고이즈미 조사, 건판 310050)

교동 116호분 두부 토기군
(1931년 고이즈미 조사, 건판 310046)

교동 117호분 발굴 중 남면 상황
(1931년 고이즈미 조사, 건판 310056)

교동 제117호분 석실 천장과 측벽 외부 노출 상태
(1931년 고이즈미 조사, 건판 310059)

교동 117호분 석실 천장 노출 상태
(1931년 고이즈미 조사, 건판 310058)

보면, 묘제는 횡구식석실로 추정되지만 천장부분이 함몰된 사진을 끝으로 더 이상의 사진이 남아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천장부분이 함몰되어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朝鮮總督府, 1920,『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1922,『大正七年度古蹟調査報告』.

穴澤咊光·馬目順一, 1975,「昌寧校洞古墳群-梅原考古資料を中心とした谷井濟一氏發掘資料の研究」,『考古學雜誌』第60卷 第4號.

國立文化財研究所, 2009,『韓國考古學專門事典 古墳篇』.

창녕군·우리문화재연구원, 2014,『사적 제514호 창녕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국립김해박물관, 2015,『昌寧 校洞 7號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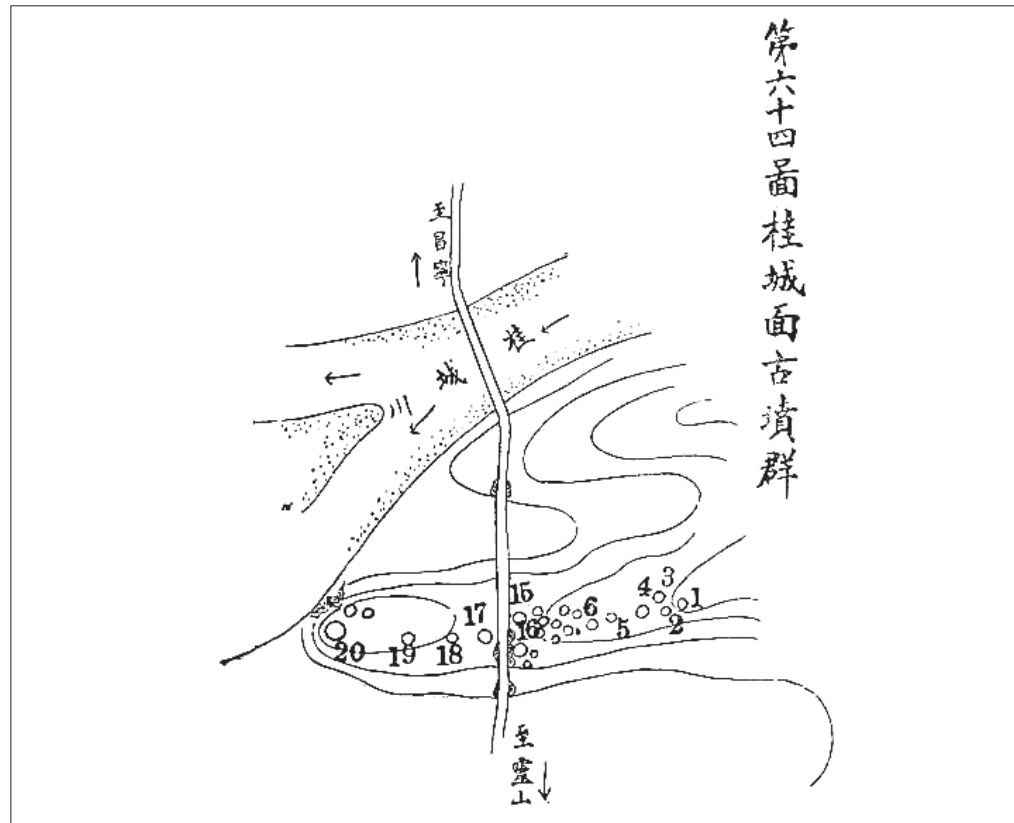
국립김해박물관, 2015,『유리건판으로 보는 창녕 고분군』.

02 계성고분군

桂城古墳群

개요

창녕 계성고분군은 행정구역상 창녕군 계성면 사리와 계성리 일원에 분포하는 고분군으로 영취산(해발 613.5m) 정상에서 서쪽으로 길게 뻗어 나온 능선 하단부의 해발 100m 미만의 낮은 구릉부 사면에 위치하며 삼국시대 고분은 해발 55~75m의 선상에 위치한다.

계성고분군은 일제강점기 1917년(대정 6년) 이마니시 류에 의해 현황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계성면고분군桂城面古墳群'으로 명명되었다. 계성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는 일제강점기의 정식조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해방후 1967년 문화재관리국에서 계남리고분군에 대한 정식발굴조사를 처음 실시하였으며, 1968년과 1969년에 영남대학교박물관에서 계남리 1호분과 4호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구마고속도로와 국도 5호선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대규모의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창녕 계성고분군에 대한 규모와 성격이 어느 정도 밝혀지게 되었다.

계성면고분군(朝鮮總督府 1920 도 64)

1917년 조사 당시 계성고분군은 영산읍에서 북으로 10여리 떨어져 위치하며, 영산과 창녕을 잇는 도로가 고분군의 중앙을 가로질러 가고 있다. 고분은 동서로 길게 분포하고 있으며 약 20여 기가 분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조사내용

1917년도 고적조사보고에 기록된 고분은 제1호~22호분이다. 1호분~6호분까지는 고분에 대한 소략한 설명이 확인되지만, 7호분~22호분은 대체로 간략한 설명만 되어있다.

제1호분

고분 중 동단에 위치한다. 봉토 위에 12~13년생 소나무가 자라고 있고, 도굴된 흔적이 남아 있다. 높이 3.6m(11.9尺)이며, 봉토위에 거친 돌을 산란해 즙석한 것이 관찰된다.

제2호분

제1호분과 나란하게 위치한다. 봉토 일부가 1호분과 공유하는 부분이 있으며, 약간 쌍총의 형태이다. 봉토 높이는 제1호분보다 약간 높은 4.5m(14.9尺)이며, 도굴된 흔적이 남아 있다. 제1호분, 제2호분은 고분군의 서쪽 끝의 제21호분과 함께 동서로 있는 고분군 중 주분主墳으로 보인다.

제3호분

제2호분의 서북쪽에 접하여 있다. 봉토가 유실되어 개석의 일부가 노출되었다.

제4호분

제3호분 아래에 위치한다. 봉토 높이 0.6m(2尺)이고, 봉토 표면에 역석이 즙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다량의 봉토가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제5호분

제4호분의 서쪽에 있고, 개석이 노출되어 파괴되었고, 묘광 형태는 잔존한다. 묘광은 장방형으로 네 측벽은 할석을 적석하여 상부를 좁혔고, 남북으로 걸쳐있어, 제지방諸地方에서 보이는 고분과 동일한 구조이다.

제6호분

제5호분의 서쪽에 있고, 봉토에 즙석이 있는 것으로 보아 1917년경 도굴된 것으로 보인다.

제7호분~제14호분

제7호분에서 제14호분에 이르는 8기, 제6호분부터 제15호분까지 10기가 군집되어 있고 파괴된 상태로 보이는데, 이 8기의 무덤은 묘광이 남북방향이거나 동서방향으로 일정하다. 보통의 형식이다.

제15호분

창녕-영산가도街道의 동측에 접한다. 봉토 높이 4.2m(13.9尺)이고, 반파되었다.

제16호분

제15호분의 남쪽에 있고, 창녕-영산가도의 동측에 접한다, 묘입구가 노출되어 있고, 네벽이 할석과 천석으로 적석하였고, 이 돌은 구릉아래 계성천에서 채집한 것이다. 묘광의 폭은 상단이 1m(3.3尺)이고, 하단은 1.4m(4.7尺)이다. 높이는 1.4m(4.7尺)이다. 묘광의 길이는 비교적 짧은 3m(10尺)이다.

제17호분~제19호분

창녕-영산가도의 서방에 위치하고, 황폐하다.

제20호분

구릉의 최서단에 위치한다. 봉토 높이 4.5m(15尺)이고, 민묘가 가까이 있고, 도굴된 흔적이 확인된다.

제21호분~제22호분

제20호분의 아래쪽에 위치한다. 계성천 하안에 인접하는 작은 고분이다.

참고문헌

朝鮮總督府, 1920,『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영남대학교박물관, 1991,『창녕 계성리고분군-계남1·4호분』.

昌寧郡·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4,『昌寧郡文化遺蹟分布地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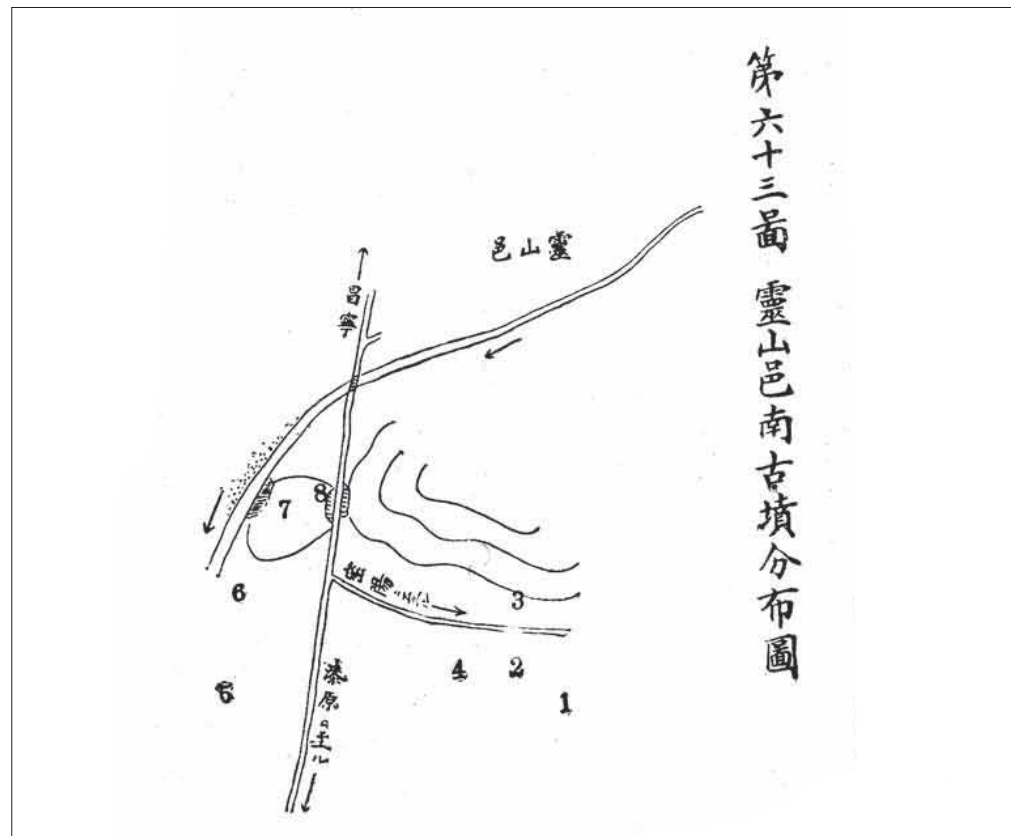
國立文化財硏究所, 2009,『韓國考古學專門事典 古墳篇』.

03 영산고분군

靈山古墳群

개요

창녕 영산고분군은 행정구역상 창녕군 영산면 동리 및 죽사리 일원에 분포하는 고분군으로 영산면 동쪽에 있는 함박산(해발 501m)의 남서쪽으로 뻗어내린 구릉에 위치하고 있다. 영산-길곡간 지방도로와 창녕-부곡간 1009번 도로가 교차하는 곳 주변에 산재하여 분포하고 있으며, 주 분포지역은 북동쪽 구릉사면부에 해당한다.

영산고분군은 일제강점기 1917년(대정 6년) 이마니시 류에 의해 '영산읍남고분군 靈山邑南古墳群'로 명명되었으나, 기존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동리고분군'으로 명명되었으며, 1997년 12월 31일 경상남도 시도기념물 제168호로 지정되면서 '영산고분군'으로 개명되었다. 기존에 10여 기의 도굴된 봉분이 있었으나 2000년에 영산고분군 정비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3기의 봉분이 더 확인되었다. 2011년에는 기존 영산고분군에 속해 있지 않았던 고분 복원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영산읍남고분 분포도(朝鮮總督府 1920 도 63)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대형 수혈식석곽분 1기와 11기의 소형 석곽묘 및 석실묘가 발굴되었고, 조사 후 복원하였다. 1호 수혈식석곽분은 봉토에 다량의 석재를 성토한 양상이 확인되었는데, 유리건판 사진과 고분 기술내용에 석재가 다량 확인된다는 내용과 부합하고 있다.

영산고분군의 존재는 1917년 이마니시 류의 조사에 의해 알려지게 되었다. 칠원가도漆原街道와 밀양가도密陽街道가 나뉘어지는 부근에서 여러 기의 고분을 확인하였다. 죽사리의 서북에서 서남에 해당하는 논에서 고분의 존재를 확인하여 고분의 분포양상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결과 8기의 고분이 확인되었다.

1917년도 고적조사보고에 기록된 고분은 제 1호~8호분이다.

조사내용

제1호분

밀양가도의 남에 위치하는 무덤 중 동쪽 끝에 위치한 것이다. 이미 발굴되어 넓게 개석이 산란되어 있고 봉토가 결실되었다. 동쪽에 접하여 민묘가 있으며, 현재 봉토 높이는 2.1m(7尺), 직경은 14.5m(12步)이다. 원형은 알 수 없다.

제2호분

1호에서 서북쪽으로 약 12m(10步) 떨어져 있다. 무덤 측면에 민묘가 조성되어 있으며, 여러 개의 도굴흔적이 남아 있다. 10년생의 소나무가 서 있으며, 봉토 높이는 3.3m(11尺), 직경은 24m(20步)이다.

제3호분

제2호분의 북쪽에서 약간 동쪽 편에 있다. 밀양가도가 2호와 3호를 가로질러 간다. 봉토의 상태는 고분군 중 제일 좋은 편이지만 도굴흔적이 다수 확인된다. 15~16년생의 소나무가 심어져 있으며, 봉토의 높이는 서쪽은 논을 기준으로 7.2m(24尺), 뒤쪽은 2.7m(9尺)이다. 직경은 8.4m(28尺)이다. 봉토 주위에 호석열이 확인된다.

제4호분

밀양가도 남측에 있고, 가도공사를 위해 봉토가 유실되어 개석 2~3개가 남아 있다. 개석의 최대크기는 길이 2.3m(7.8尺), 폭 0.9m(3尺)이고, 제2호분의 북서 30도에 있으며 약 30m 떨어져 있다. 제2·3호분과 마찬가지로 봉토의 끝이 논에 접하는 부분에 석단이 있다.

제5-1호분

제1호분에서 서남쪽으로 약 163m~218m 떨어져 있다. 칠원가도의 서쪽 논 가운데에 위치한다. 대부분 파괴되어 적석이 산란되어 있으며, 높이는 약 3m(10尺), 직경 약 19.2m(16步)이다. 모래가 많은 토양을 섞은 적석총으로 보인다. 묘광의 소재나 전체 상태로 미루어 보아 고분으로 볼 수 있다.

제5-2호분

제5-1호분과 18.1m 떨어져 있고, 봉토가 전부 유실되어 측벽의 돌이 산란되어 있다. 5-2호분에는 2개의 구덩이가 있는데 그 1개는 겨우 형태만 남아 있으며, 다른 1개는 봉토의 서단에 가까이 남동 30도 방향으로 길이 약 4.8m인 개석이 잔존하고 있다.

영산읍 5호분 할석 노출 상태
(1917년 이마니시 촬영, 건판 31145)

제6호분

제5-1호분에서 북쪽에 있으며, 거리는 54m 정도 떨어져 있다. 제5-1호분과 유사하게 봉분형태를 잃어버렸다. 현재 봉토 높이는 2.4m(8尺)이다.

제7호분

작약산에서 뻗어 나오는 언덕으로 영산-칠원가도로 절단된 구릉의 서변에 2개의 고분이 있다. 구릉 아래로 용두천이 인접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민묘가 조성되어 있다. 봉토는 높이 3m(10尺)로 역석이 퇴적되어 있으며, 표면에 노출되어 산란되어 있다.

제8호분

제7호분과 동일 구릉상의 상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봉토는 일부 유실되었다.

참고문헌

朝鮮總督府, 1920,『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경남문화재연구원, 2000,「창녕 영산고분군 복원·정비를 위한 시굴조사 결과보고」.
昌寧郡·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4,『昌寧郡文化遺蹟分布地圖』.
國立文化財硏究所, 2009,『韓國考古學專門事典 古墳篇』.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4,『창녕 영산고분군』, 학술조사보고 제61집.

Ⅵ. 고령

01 지산동고분군

池山洞古墳群

개요

지산동고분군은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산 8번지 일대에 분포한다. 1963년 1월 21일에 사적제 79호로 지정되었는데, 고령읍을 둘러싸고 있는 해발 310m의 주산에서 뻗어나온 주능선과 동·서쪽의 양 사면에 700기 이상의 고분이 분포하고 있다. 2010년도의 정밀지표조사에 의하면 봉토분은 40m 이상의 초대형분이 1기, 20m가 넘는 대형분이 19기, 10-20m에 이르는 중형분이 103기, 10m이하의 소형분이 582기를 이루고 있다.

지산동고분군에 관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는 일제강점기부터 행해졌는데, 그 최초의 조사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에 이루어졌다. 조선고적조사사업의 2년차 조사에 해당한다. 조사의 주축은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야쓰이 세이이쓰谷井濟一, 구리야마 슌이치栗山俊一 등의 3인인데, 1년차 조선고적조사사업이 주로 철도의 연선을 따라 조사된 것과는 달리, 지산동고분군이 속한 2년차 사업의 조사지역은 철도와는 거리가 있는 곳들도 포함되어 있다. 세키노 다다시 일행은 9월 22일에 경성에 도착한 후, 10월 12일부터 한반도 남부의 조사에 임하게 되는데, 고령지역을 포함한 창녕, 함안, 진주 등의 가야시대 유적에 관한 최초의 조사가 이때 이루어지게 된다. 그 중에서도 지산동고분군에 관한 발굴기록이 간략하게 남아 있는데, 1910년의 조사에서 찍은 지산동고분군 관련 사진들은 현재 국립

고령읍 부근 유물·유적도(朝鮮總督府 1920 도 77)

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과, 세키노가 1911년도에 『고고학잡지考古學雜誌』에 발표한 보고에 남아 있어서 당시의 발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1910년의 조사에서는 2~3기의 고분을 발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정식 보고는 아니지만 세키노 다다시 등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인 1914년에도 주산 고분군의 전경 사진이라는 이름으로 촬영된 사진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남아 있다. 이 당시의 고령지역을 조사해 사진을 기록으로 남긴 것은 도리이 류죠鳥居龍藏인데, 주산(또는 이산)고분군의 전경 사진 및 지산동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류에 관한 사진만 확인되고, 관련된 상세한 조사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이후 구로이타 가쓰미黒板勝美는 1915년 4월 6일에 조선총독부와는 별도로 동경제국대학의 출장명령에 의해 4월 17일에 동경을 출발한 후, 4월 22에 경성에 도착했다. 8일간 경성에 체재하면서 조사 준비를 하고, 4월 30일에 경성을 출발해 100여일에 걸쳐 한반도 조사를 행한 후, 8월 6일에 동경에 도착한다. 그 중에서 고령지역은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조사하게 된다. 이 조사에는 학무국 편집과의 촉탁인 가토 간가쿠加藤灌覺와 사진기사 1명이 동행했다. 구로이타는 이미 경주, 선산, 고령, 함안, 김해, 부여 지역에 관한 발굴 허가를 조선총독부에서 받았으므로, 주산의 동쪽에 위치한 3기의 무덤(갑·을·병분)을 발굴할 수 있었다.

1917년에도 고령지역에서는 3기의 무덤(지산동 주산 제12호·18호·22호)에 관한 일제강점기의 발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련된 상세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

이산고분군 전경(1914년 도리이 촬영, 건판 2463)

이산고분(1914년 도리이 촬영, 건판 24640)

이산고분(1914년 도리이 촬영, 건판 24660)

이산 고분 (1914년 도리이 촬영, 건판 2465)

지산동고분 출토 토기(1914년 도리이 촬영, 건판 2447)

지산동고분 표형토기(1914년 도리이 촬영, 건판 2449)

만,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유리건판에는 1917년에 촬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일련의 사진들이 남아 있다. 지산동 주산 제12호·18호·22호로 표기된 사진들에는 조사자나 촬영자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판목록 및 이 시기에 고적조사사업을 담당한 인물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이마니시 류今西龍와 구로이타일 가능성이 높다.

1918년도의 조사는 교토대학 소속의 하마다 고사쿠濱田耕作와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 및 조선총독부 촉탁이었던 임한소林漢韶에 의해 시행되었다. 주산에서 남서쪽으로 뻗은 구릉 말단에 온전한 형태를 갖추고 도굴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한 1·2호분과, 여기서 북쪽으로 떨어진 별개의 구릉 일단에 당시 고령-거창간 도로건설 공사에서 우연히 발견된 3호분을 조사하게 된다. 발굴조사는 10월 14일에 촉탁이었던 우메하라 스에지의 주도로 인부 10명을 동원해 실시했는데, 양 일간에 걸쳐 모든 조사를 졸속으로 끝내게 된다. 이때 발굴된 고분들은 대부분 직경 10m 내외인 중·소형의 원분이었다.

1920년에도 지산동고분군이 조사되었으나 보고서는 남아 있지 않다. 다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유리건판에 관련된 사진들이 남아 있어서 당시의 발굴 정황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때 조사를 담당한 사람은 야쓰이인데 절상천정총으로 명칭한 고분의 발굴모습과 지산동고분군의 전경 및 주산성, 고령읍의 전경 등에 관련된 사진들이 남아 있다.

일제강점기에 행해진 고령지역 고분군에 관한 마지막 조사는 1939년에 있었다. 동년 6월 하순부터 7월에 걸쳐 아리미쓰 교이치有光敎一와 사이토 다다시齊藤忠등에 의해 4기의 고분 발굴이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 3기의 고분에 관한 발굴조사가 먼저 이루어 진 후, 마지막으로 현재 39호분(현 5호분)으로 불리던 전 금림왕릉傳 錦林王陵이 발굴되었다. 그러나 발굴 도중이던 7월 초에 발굴 책임자였던 아리미쓰가 운강석굴 조사로 착출되어 사이토로 교체되었다. 또한 1940년에 사이토는 문부성 사적조사촉탁으로 발령을 받아 동경으로 돌아갔다. 이와 같은 발굴조사 책임자들의 갑작스러운 이동으로 인해 39호분의 발굴조사 보고서는 간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02년에 개보적 성격의 보고가 이루어졌지만, 나머지 3기에 관해서는 관련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서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이 일제강점기에 행해진 고령지역 고분의 발굴조사는 총 6회에 걸쳐 16~17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당시에 조사된 각각의 고분이 현재의 어떤

고분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 당시에 조사된 대부분의 고분이 지금의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추정할 수 없다. 향후 이와 같은 고분들을 역추적해 낼 필요가 있다.

조사내용

1910년

세키노를 비롯한 조사 일행들은 전 금림왕릉(당시 39호분)의 아래쪽에 있던 작은 분묘 2~3기를 발굴했다. 수혈은 폭과 깊이가 모두 0.6m(2尺) 전후이고 길이가 1.5~1.8m(5~6尺)에서 3m(10尺) 전후에 이르는데, 주위는 안산암으로 쌓았고 천장에는 판석으로 덮었다. 판석을 이용해 네 벽을 만들었는데, 작은 것은 폭이 0.6~0.7m(1尺 2~3寸), 길이가 1.3~1.4m(4尺 5~6寸)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도 있다.

석곽 내에서 철제 못이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목관을 안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곽 내에서는 다수의 토기가 발견되는데, 이 중에서 한 점의 개배에는 성게 껍질이 2점, 다른 개배에는 작은 고동과 같은 조개 10점이 들어 있었다. 그 이외에도 방추차를 모방한 토기도 출토되었다. 이때 발굴된 고분들에서 출토된 토기가 소성법이나 형상으로 볼 때, 당시 일본의 고분에서 출토되는 것들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또한 신라의 고분들이 주로 평지에 위치한 것과 달리, 고령 지역의 고분군은 산록에 입지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고분 내부의 구조가 신라의 무덤과는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때 발굴된 2~3기의 고분들에 관한 상세한 조사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어느 고분에 해당하는지를 알기 어렵다.

고령산성과 고분군 전경(건판 877-11)

주산 남방고분군(건판 877-01)

주산 동남산록 고분 석곽(건판 877-5)

주산 동남산록 고분 출토 방추차·철제이기(건판 877-13)

주산 동남산록 고분 출토 개배(건판 877-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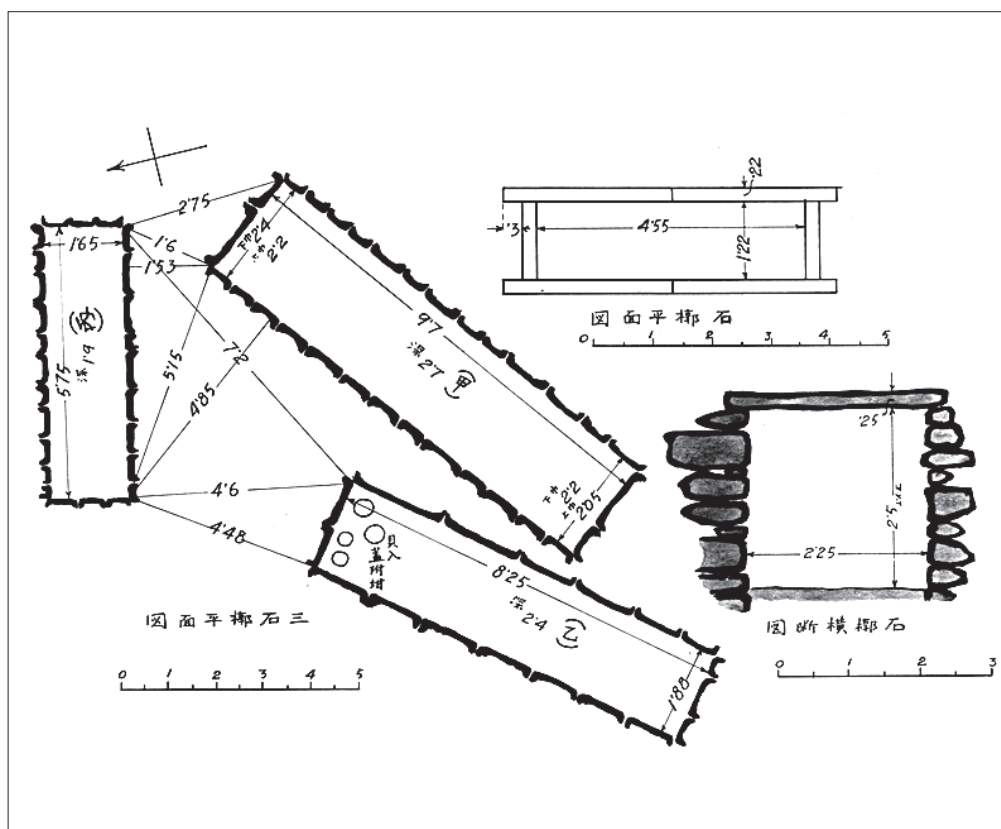
주산 동남산록 고분 출토 장경호·개배(건판 877-15)

주산 동남산록 고분 출토 파수부합·양이호(건판 877-14)

1915년

구로이타 등에 의해 1915년에 조사된 무덤은 총 3기로, 각각 갑분甲墳, 을분乙墳, 병분丙墳으로 불렸다. 이 3기의 무덤 중 병분은 석곽 안에 판석으로 이루어진 석곽묘 구조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병분 이외의 나머지 갑분과 을분에 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세부적인 양상을 알기 어렵다.

당시 고분 안에서 발견된 유물의 제특징에 관해서도 기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토기의 경우에는 함안, 창녕, 선산 등의 지방에서 발견되는 토기류와 비교해 볼 때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적고 있다. 그 특징에 관한 세부적인 양상으로는 우선 토기가 편평하다는 점으로 특히 고배나 완 등의 뚜껑 표면의 완곡이 현저하게 적어서 수평에 가깝다고 기술했다. 또한 손잡이가 뿔 모양인 것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손잡이 부분에 장식적 세공이 많다는 점도 기술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토기 속에 성게나 소라 등의 해산물 껍데기가 남아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지역이 바다에서 먼 지방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당시 발굴을 주도한 구로이타의 수집품 중에는 소형의 유리제 곡옥 및 유리옥이 있었지만, 곡옥은 거의 발견하지 못해서 매우 희소한 것으로 여겼다. 또한 금속제 고리류는 일본에서 발견되는 것의 단면이 주로 타원형인데 반해, 고령에서 발견되는 것은 약간 각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기술해 그 차이점에 관해서도 적고 있다. 무기로는 철촉과 철부류 등이 있다고 적고 있다.

지산동고분 석곽 실측도(1915년 구로이타 조사, 건판 34711)

주산성고분군(1915년 구로이타 촬영, 건판 3924)

주산성고분군(1915년 구로이타 촬영, 건판 3925)

주산성 석곽묘 발굴(1915년 구로이타 조사, 건판 3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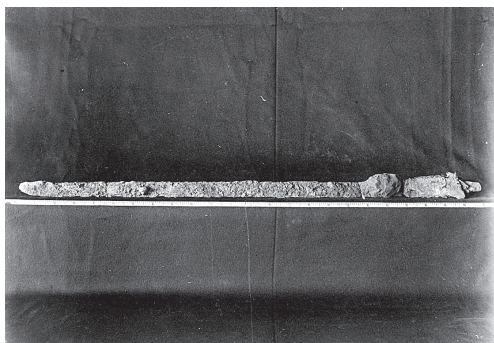
고령 2호 석곽묘 내부(1915년 구로이타 조사, 건판 3929)

주산성 석곽묘 현실(1915년 구로이타 조사, 건판 3926)

고령 석곽묘 내 석관(1915년 구로이타 조사, 건판 3928)

고령 2호 석곽묘 내부
(1915년 구로이타 조사, 건판 3930)

고령 2호 석곽묘 내부
(1915년 구로이타 조사, 건판 3931)

고령 고분 발견 금제이식
(1915년 구로이타 조사, 건판 3942)

고령 고분 출토 은제식부대도
(1915년 구로이타 조사, 건판 3943)

고령 출토 토기
(1915년 구로이타 조사, 건판 3943)

고분 출토 토기
(1915년 구로이타 조사, 건판 3938)

고령 고분 출토 토기
(1915년 구로이타 조사, 건판 3937)

고령 고분 출토 토기
(1915년 구로이타 조사, 건판 3936)

고령 고분 출토 토기
(1915년 구로이타 조사, 건판 3940)

1917년 조사

1917년에 발굴된 3기의 무덤은 각각 지산동 주산 12호분, 18호분, 22호분으로 명칭이 부여되었다. 이때 사진 이외의 관련 조사기록이 확인되지 않아서 상세한 발굴양상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현재의 위치에 관해서도 추정하기 쉽지 않은 점도 있지만, 현재의 지형과 1917년에 촬영된 사진을 비교해 볼 때 12호분과 18호분이 지산동고분군의 정밀지표조사에서 부여된 56호분과 71호분이 분명하고, 22호분은 현재의 131호분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신종환 2013).

12호, 18호, 22호에 관한 발굴당시의 사진을 통해 당시의 발굴 정황을 살펴보면, 정확한 내부구조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12호분과, 18호분, 22호분은 모두 석실분으로 추정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18호분의 발굴조사에는 16~17명의 인부가 동원되어 실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1918년도에 조사된 3기의 고분 조사에 10명의 인부가 동원된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큰 규모의 발굴이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3기의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에 관련된 사진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주산성(이산의 성)에서 본 지산동고분군
(1917년 구로이타 촬영, 건판 31219)

지산동고분군 원경
(1917년 구로이타 촬영, 건판 31199)

지산동 12호분 발굴 전 동면
(1917년 구로이타 조사, 건판 4961)

지산동 12호분 석실 남면 외벽 노출
(1917년 구로이타 조사, 건판 4962)

지산동 12호분 석실 내부
(1917년 구로이타 조사, 건판 4963

지산동 12호분 발굴 후 석실 내부
(1917년 구로이타 조사, 건판 4965)

지산동 12호분 발굴 후 상태
(1917년 구로이타 조사, 건판 4964)

지산동 18호분 발굴 전 서면
(1917년 구로이타 촬영, 건판 4970)

지산동 18호분 발굴 전 남면
(1917년 구로이타 조사, 건판 4969)

지산동 18호분 발굴 작업
(1917년 구로이타 조사, 건판 4972)

지산동 18호분 석실 남면 천장
(1917년 구로이타 조사, 건판 4973)

지산동 18호분 석실 남면
(1917년 구로이타 조사, 건판 4976)

지산동 18호분 석실 외벽 노출
(1917년 구로이타 조사, 건판 4975)

지산동 18호분 석실 외벽 노출
(1917년 구로이타 조사, 건판 4973)

지산동 22호분 발굴 전 남면
(1917년 구로이타 조사, 건판 4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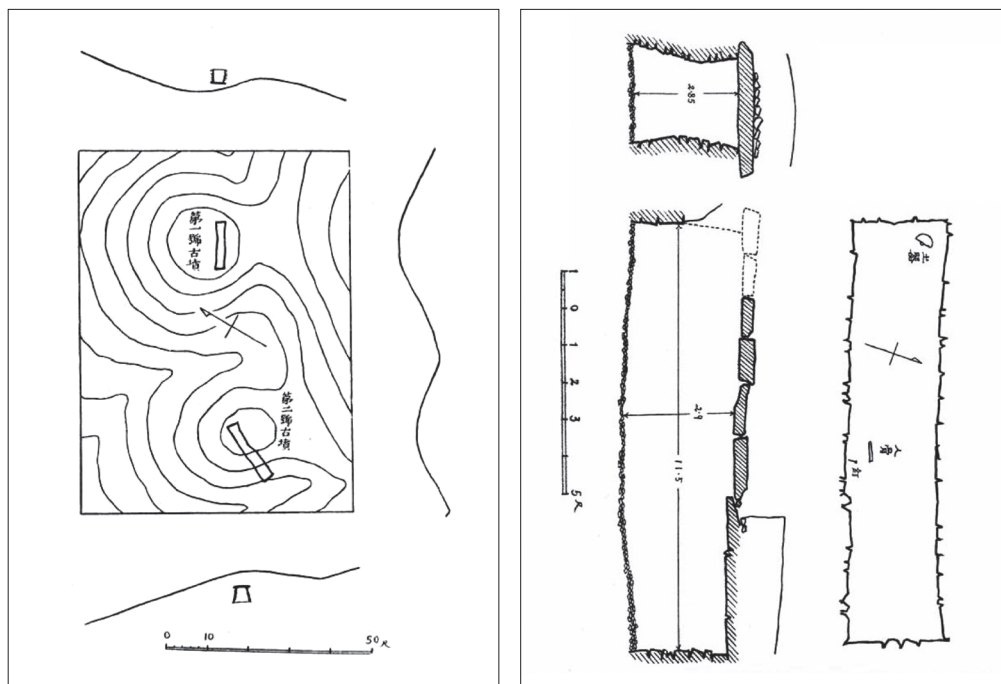
지산동 22호분 석실 남면 일부
(1917년 구로이타 조사, 건판 4968)

지산동 22호분 발굴 전 동면
(1917년 구로이타 조사, 건판 4967)

1918년 조사

하마다 고사쿠와 우메하라 스에지의 주도하에 3기의 고분이 발굴 조사되었는데, 각각의 무덤에는 각각 지산동 제1호분, 제2호분, 제3호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고분들은 모두 10월 14일에 인부 10명을 동원해 1호분부터 발굴하기 시작해 오후 5시에 조사를 완료하고 봉토의 복구까지 끝마쳤다.

제1호분

제1호분에 관한 일제강점기의 발굴 상황과 고분의 형태 및 출토유물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지산동 제1호분과 제2호분
(朝鮮總督府 1922 도 66)

지산동 제1호 고분 석실 실측도
(朝鮮總督府 1922 도 67)

이 고분은 직경 약 10.2m(34尺)인 원분으로, 높이는 서쪽 중복부가 약 1.8m(6尺)으로 조사되었다. 1호분에는 소나무가 자생하고 있고 도굴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해 우메하라 감독하에 발굴이 시작되었다. 우선 봉토의 서쪽을 위에서부터 파 내려가서 석실의 위치를 파악했다. 봉토는 모래와 자갈이 섞인 적토로 되어 있었는데,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바로 서쪽 끝으로 생각되는 부분에 도달했고, 천장석도 발견한 후 측벽의 일부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서부터 남북 양 방향으로 발굴을 진행해 석실 전부를 노출시켰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석실 동쪽은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서쪽은 심하게 도굴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봉분의 남쪽에 편재된 1호분의 석실구조는 동서 방향으로 세장한 방형인데, 천장석은 지표에서 0.3m(1尺) 아래에 있었다. 길이 3.5m(11尺 5寸), 폭이 0.7~0.8m(2尺 4寸~7寸)인데, 네 벽은 소형 할석을 이용해 교묘하게 쌓았다. 그 높이는 0.6~0.9m(2~3尺)에 이른다. 천장은 편평한 판석을 가로로 걸쳐 덮었는데, 판석 사이사이에 작은 돌을 충진해 토사가 유입되는 것을 막았다. 천장석은 현재 7장이 남아 있지만, 원래 9장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석실의 바닥에는 모두 잔자갈을 깔았는데, 그 두께가 3~6㎝(1~2寸)이다. 그 아래는 점토로 채워 견고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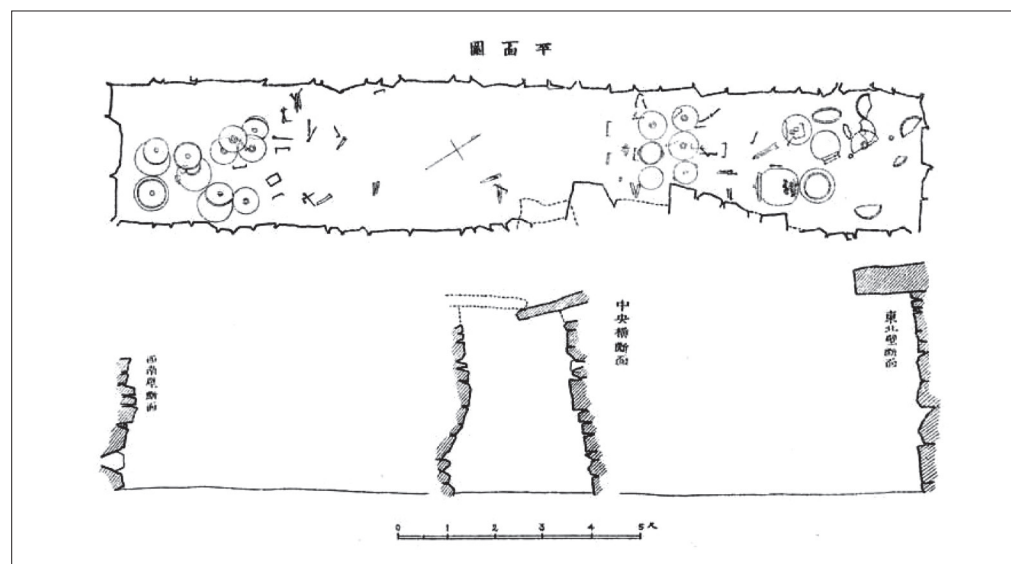
1호분에서 발견한 유물로는 석실의 서북쪽 구석에서 토기 뚜껑의 파편 1점, 대략 중앙부의 남벽 가까이에서 철제 못 1점 이외에도, 대퇴골의 일부가 동서쪽 방향으로 일부가 남아 있었다. 고분의 현재 위치는 불분명하다.

지산동 1호 고분 석실(朝鮮總督府 1922 도 65)

지산동 1호·2호분 출토 개
(우메하라 조사 추정, 朝鮮總督府 1922 건판 28154)

제2호분

제2호분에 관해서는 2010년 지산동고분군 정밀지표조사에서 부여된 408호분이 분명하다는 견해가 있다(신종환 2013). 2호분에 관한 일제강점기의 발굴 상황과 고분의 형태 및 출토유물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2호분도 1호분과 마찬가지로 원분으로, 직경이 약 9m(30尺) 정도이다. 봉토의 서쪽 끝은 비로 인해 일부가 유실되었지만, 대체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봉토는 자갈을 섞은 적토로 되어 있다. 1호분의 발굴 경과가 좋아 인부 8명을 나누어 오전 10시 반부터 봉토 중앙부를 발굴하기 시작했다. 2시간 후에 표토 아래 약 0.9m(3尺)에서 석실의 천장석 및 측벽 일부에 도달했다. 바로 동서로 넓혀갔더니 천장석의 대부분은 중앙에서 절단되어 실내로 함락, 토사가 유입되어 있었다. 동남쪽 장벽의 일부분도 붕괴되어 있었는데 의심의 여지없이 도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후 4시가 되어 천장석의 부위에서 아래로 0.9m(3尺 1寸) 깊이의 석실 중앙부 가까이에 토기가 매납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바닥면을 조사해 토기, 철제 못 등을 수집하고 오후 5시 반에 조사를 끝내게

지산동 제2호 고분 석실 실측도(朝鮮總督府 1922 도 70)

된다. 다음날인 15일에 인부 5명을 동원해 오전 9시부터 발굴을 재개한다. 이때 우메하라는 석실의 동북쪽 구석에서 철제 못, 창, 도자, 토기 뚜껑 등을 채집했다. 한편, 고령군 서기인 김씨는 인부의 일부를 데리고 석실의 서쪽을 발굴하는데, 전날 석실 벽의 끝이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은 천장석이 낙하한 파편이어서, 석실은 더 서남쪽으로 세장하게 뻗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하부에서도 유물을 발굴하게 되었다. 바닥에 떨어진 한 장의 큰 천장석을 제거했더니 토기 6점 및 철제 못 십 수점을 발견했다. 더욱이 그 안쪽에 떨어진 한 장의 천장석을 제거해 처음으로 서남쪽 안벽에 도달할 수 있었다. 오후 3시에 이르러서야 조사를 전부 완료할 수 있었다. 그 후 복구공사에 착수했는데, 천장석을 올리고 석실의 형상을 보존했다. 그 위에 토사로 덮고 오후 5시에 이르러서야 조사를 완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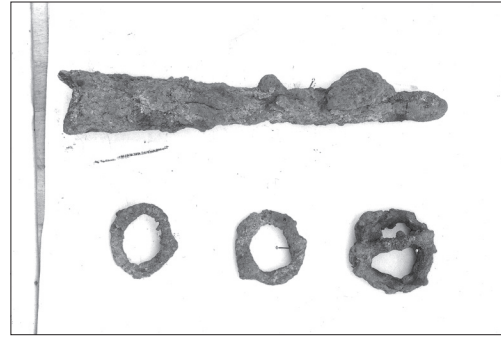
2호분의 석실 구조는 봉토의 중심에서 약간 서남쪽에 치우쳐 있었다. 석실의 평면형태는 직사각형으로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장축을 가진다. 길이는 5m(16尺 5寸) 정도이고, 폭은 0.8m(2尺 8寸) 내외이다. 측벽의 높이는 동북쪽 끝이 1.3m(4尺 2寸)로, 서남부가 약간 더 낮다. 측벽은 할석을 쌓아 올렸는데, 1호분과 마찬가지로 거의 완존하는 서북쪽 장벽으로 볼 때, 점차 상부의 석재를 안쪽으로 들여와, 높이 1.2m(3尺 9寸)에 이르러서는 0.2~0.3m(8~9寸)로 축소시켜 평면형태가 단면이 사다리꼴형이다. 이 고분의 가장 큰 형태적 특징은 석실의 평면형태가 세장하고 폭이 협소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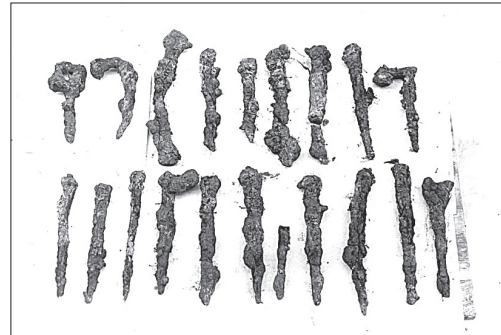
2호분에서 출토된 유물로는 장경호 1점, 호 1점, 개부호 7점(뚜껑과 몸체가 함께있는 것 5점 및 뚜껑만 있는 것 2점), 개부고배(뚜껑이 있는 고배) 8점, 합자형토기 2점과 같은 토기류가 수습되었다. 또한 모신矛身 1점, 도자 2점, 못 형태의 철기, 꺾쇠, 환형금구 3점, 부형금구斧形金具 9점, 겸형철기鎌形鐵器 수 점 등의 철기류도 출토되었다.

지산동 2호분 석실
(1918년 우메하라 조사, 건판 35839)

지산동 2호분 석실
(1918년 우메하라 조사, 건판 35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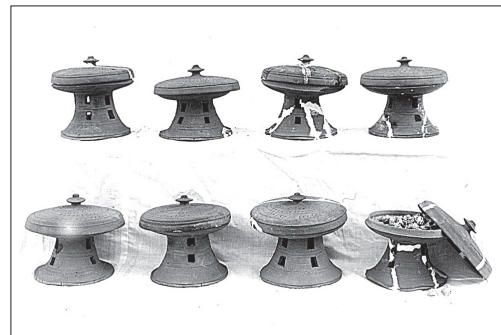
지산동 2호분 석실 서남부 출토 토기
(1918년 우메하라 조사, 건판 35926)

지산동 2호분 2소석실
(1918년 우메하라 조사, 건판 35841)

지산동 2호분 철모·철환·교구
(1918년 우메하라 조사, 건판 21690)

지산동 2호분 부형과 겸형철기 모제품
(1918년 우메하라 조사, 건판 21685)

지산동 2호분 철정
(1918년 우메하라 조사, 건판 21687)

지산동 2호분 철제꺾쇠
(1918년 우메하라 조사, 건판 21686)

지산동 2호분 토기
(1918년 우메하라 조사, 건판 216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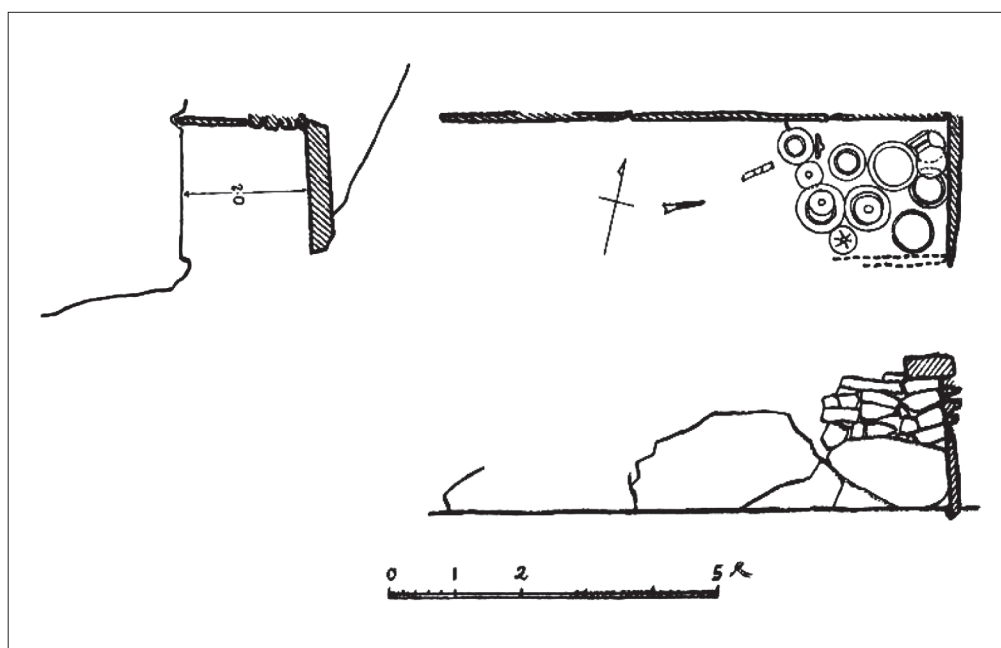
지산동 2호분 유개호
(1918년 우메하라 조사, 건판 21679)

지산동 2호분 유개고배
(1918년 우메하라 조사, 건판 21675)

제3호분

제3호분이 지산동고분군 정밀지표조사에서 부여된 409호분이 분명하다는 견해가 있다(신종환 2013). 제3호분에 관한 일제강점기의 발굴 상황과 고분의 형태 및 출토유물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3호분은 10월 14일 오후 2시경에 도로공사 중에 구릉의 한쪽 끝부분을 잘라내는 과정에서 약 18m(6尺) 높이의 위치에서 석실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이 소식을 들은 우메하라는 도로공사의 필요성으로 인해 고분을 보존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유물을 채집하면서 조사를 하게 된다. 3호분의 봉토는 거의 남아 있지 않았고 구릉 경사면에 묘실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었다. 석실은 장방형으로 1호분이나 2호분과 다르지 않았다. 네 벽은 큰 석반석을 나란히 세워 구성했는데, 그 상부 석재의 뒤틀림에 의해 생긴 틈을 할석으로 채워 보충했다. 석실의 길이는 2.3m(7尺 7寸)이고 폭이 0.6m(2尺)이다. 앞뒤의 짧은 벽면은 각각 1장의 돌로 되어 있었다. 천장석은 겨우 동쪽 끝에 한 장이 남아 있었는데, 측벽과 같이 약간 두꺼운 반석으로 덮었던 것 같다. 바닥면에서 겨우 높이가 0.6m(2尺)에 지나지 않았다. 1호분이나 2호분과는 다른 형식의 소위 상자식 석관 계통에 속하는 것이다.

3호분에서 수습된 유물로는 장경호 5점, 호 1점, 대부호, 호 1점, 개배 2점, 뚜껑 1점, 호 2점 등의 토기류와 모 1점, 접합하면 원형으로 복원이 가능한 철겸 추정품 등이 있다.

이 3호분은 석실의 구조가 소위 말하는 상자식 석관과 유사한 점에서 다른 고분들과는 차이가 있다. 이 고분의 피장자에 관해서 추정할 만한 어떤 단서도 없지만, 부장된 토기는 그 성격이 고령의 여타 고분 출토품들과는 상이한 점이 있어서 주목된다고 한다.

지산동 3호 고분 석실 실측도(朝鮮總督府 1922 도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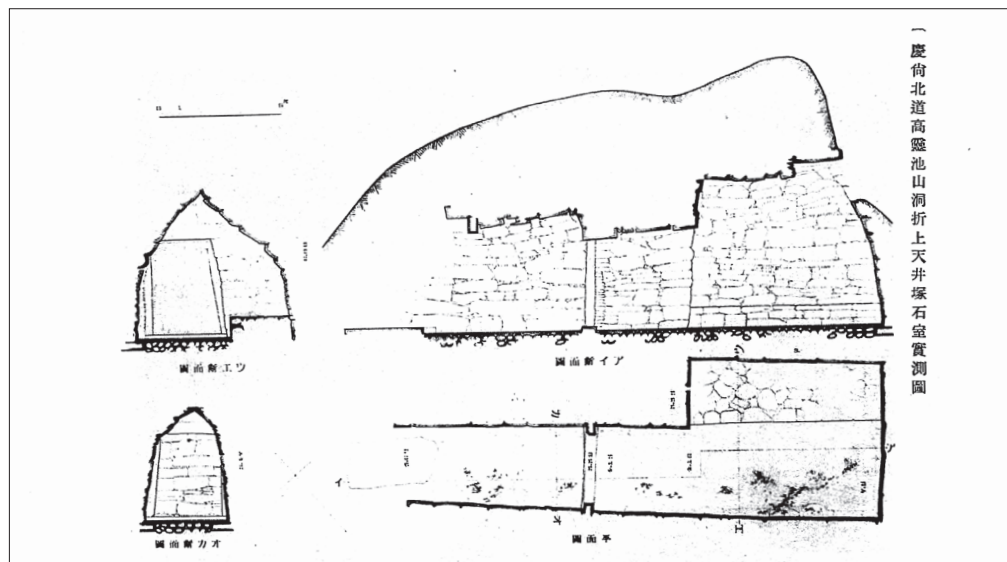
지산동 3호 고분 석실
(1918년 우메하라 조사, 朝鮮總督府1922 건판 219)

지산동 3호 고분 석실
(1918년 우메하라 조사, 朝鮮總督府1922 건판 280)

지산동 3호분 장경호·단경호
(1918년 우메하라 조사, 朝鮮總督府 1922 건판 21693)

지산동 3호분 개배·개·대부호 등
(1918년 우메하라 조사, 朝鮮總督府 1922 건판 21694)

1920년

1920년에 고령지역에서 조사된 것으로 생각되는 1기의 고분은 절상천정총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당시의 조사관련 기록은 확인되지 않지만, 도면을 비롯해 절상천정총의 연

절상천정총 실측도(1947년 梅原末治 도 29)

도, 연도와 내부, 현실의 내부, 석실의 입구 등을 찍은 사진이 현재 남아서 전해진다. 야쓰이가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출토 유물에 관한 정보는 알려진 것이 없다.

지산동 절상천정총 석실 입구
(1918년 우메하라 조사, 건판 32148)

지산동 절상천정총 현실 내부
(1918년 우메하라 조사, 건판 32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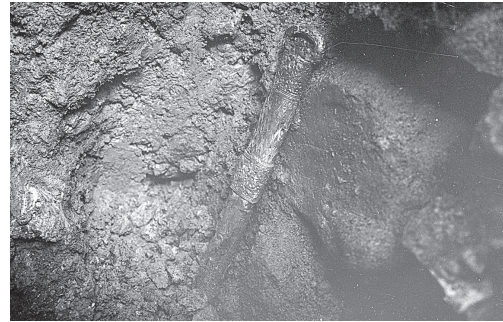
지산동 절상천정총 연도
(1918년 우메하라 조사, 건판 32144)

지산동 절상천정총 연도와 내부
(1918년 우메하라 조사, 건판 32146)

1938년

1938년에는 아리미쓰 교이치와 사이토 다다시에 의해 고령지역에 위치한 4기의 고분이 발굴된다. 3기의 고분을 먼저 발굴한 후, 가장 마지막에 발굴조사되는 것이 전 금림

왕릉으로 불리는 39호분(현 5호분)이다. 나머지 3기의 고분에 관한 발굴 정보는 확인되는 것이 없다. 지산동 39호분에 관해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29 고령현 고적 조에 '현의 서쪽 2리 남짓 되는 곳에 옛 무덤이 있는데, 세간에서 금림왕릉이라고 일컫는다.(縣西二里許 有古藏 俗稱錦林王陵)'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무덤은 주석실과 수 기의 소석실로 구성되어 있었다. 발굴조사는 먼저 소석실 1기를 조사한 후, 주석실의 조사를 진행했고, 그 후에 1기 소석실을 조사하게 된다. 이것으로 조사가 완료되었는지, 혹은 소석실을 더 발굴했는지는 불명확하다.

지산동 39호분 유물 출토 상태
(1938년 사이토 조사, 건판 21176)

지산동 39호분 주실 환두대도
(1938년 사이토 조사, 건판 19947)

지산동 39호분 주실 출토 유물
(1938년 사이토 조사, 건판 13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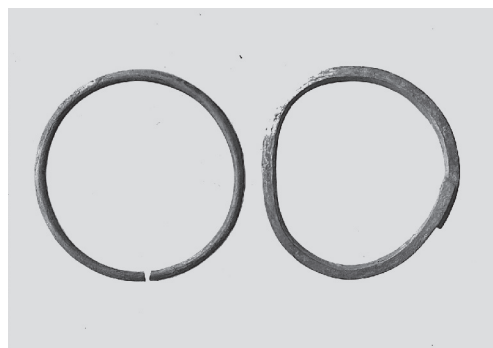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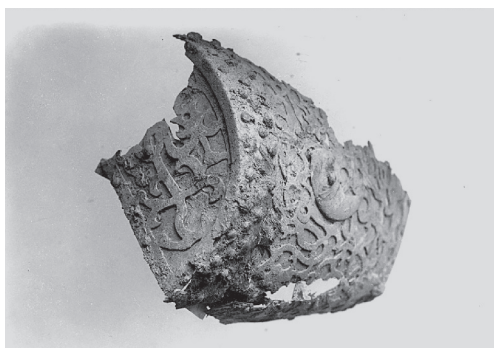
지산동 39호분 주실 출토 유물
(1938년 사이토 조사, 건판 138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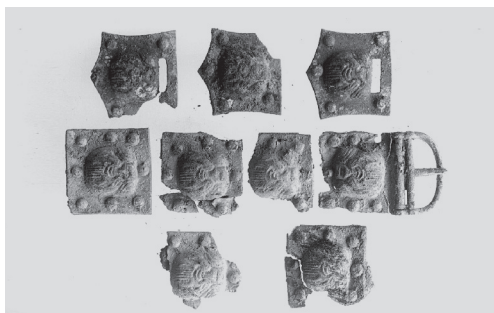
지산동 39호분 주실 출토 환두대도
(1938년 사이토 조사, 건판 13834)

지산동 39호분은 직경 49m인 대형 원분인데, 소석실은 할석을 쌓아 만든 수혈식석실과 판석으로 만든 수혈식석실 등의 2종류 이상이 있다. 천정석은 모두 큰 판석을 나열해 덮었다. 규모는 불분명하다.

지산동 39호분의 주 석실은 무덤 꼭대기에서 8.4m 아래에 조영되었는데, 동서 방향으로 폭이 1.8m, 길이가 9.8m인 장대한 수혈식석실로 되어 있었다. 천정석이 낙하되어 깨어져 있었는데, 바닥에는 잔 자갈을 깔았다.

지산동 39호분에서 출토된 유물로는 금제세환이식, 금제관모전립식, 청동제등자, 금동제안교, 이형금동제품, 금동제호록, 금제세환이식, 경식, 연주형이식, 은제천, 환두대도, 금동제귀면문대금구, 개배와 장경호 등 다수의 토기류가 있다. 다수의 유물이 발견되었지만, 원래 자리에 보존된 것이 적고 흐트러진 상태인 점에서 추가장이 생각되는 고분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지산동 39호분 주실 철촉 시통
(1938년 사이토 조사, 건판 19944)

지산동 39호분 주실 출토 은제천
(1938년 사이토 조사, 건판 13833)

지산동 39호분 주실 출토 화살통장식
(1938년 사이토 조사, 건판 13838)

지산동 39호분 주실 출토 화살통장식
(1938년 사이토 조사, 건판 13837)

지산동 39호분 주실 출토 과대장식
(1938년 사이토 조사, 건판 13835)

지산동 고분군 39호분 주실 출토 유물
(1938년 사이토 조사, 건판 13744)

지산동 39호분 주실 출토 철촉
(1938년 사이토 조사, 건판 13839)

지산동 39호분 기대
(1938년 사이토 조사, 건판 21645)

지산동 39호분 유개장경호
(1938년 사이토 조사, 건판 21640)

지산동 39호분 유개장경호 기대
(1938년 사이토 조사, 건판 21630)

지산동 39호분 유개파수대부완
(1938년 사이토 조사, 건판 21636)

지산동 39호분 유개평저호
(1938년 사이토 조사, 건판 21632)

지산동 39호분 파수대부호
(1938년 사이토 조사, 건판 21706)

지산동 39호분 고배
(1938년 사이토 조사, 건판 21629)

참고문헌

『新增東國輿地勝覽』.

關野貞, 1911, 「伽倻時代の遺蹟」, 『考古學雜誌』1-7, 考古學會.

朝鮮總督府, 1920,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梅原末治, 1947, 『朝鮮古代の墓制』, 座右寶刊行會.

黑板勝美, 1974, 『黑板勝美先生遺文』, 吉川弘文館.

국립대구박물관·고령군,1996, 『주산성지표조사보고서』.

계명대학교박물관,1998, 『문화유적분포지도-고령군-』.

有光敎一·藤井和夫, 2002, 『朝鮮古蹟硏究會遺稿 Ⅱ』, 유네스코동아시아문화연구센터·財團法人 東洋文庫.

신종환,2013, 「일제강점기 고령지역의 고고학적 조사와 그 영향」, 『일제강점기 영남지역에서의 고적조사』, 학연문화사.

02 박곡리고분군

朴谷里古墳群

개요

박곡리고분군은 고령군 대가야읍에서 동쪽으로 약 10㎞ 떨어진 박곡리 원동마을 뒷산에 위치한다. 이 고분군에서 서북쪽으로 약 4㎞ 정도 올라간 지점에 의봉산성이 있다. 박곡리고분군이 입지한 산등성이에는 직경 8~15m, 높이 1~3m에 이르는 봉토분 수십 기와 400여 기로 추산되는 소형의 석곽묘가 분포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도굴된 후 매몰된 상태로 남아 있다. 봉분의 지름이 10~15m인 중형의 고분은 주로 능선의 정상부에, 그보다 작은 소형의 석곽묘는 그 주위와 사면에 등고선 방향으로 조영되어 있다. 중형의 고분은 판석이나 할석을 쌓아 축조하였으며, 소형분 중에는 판석을 세워 축조한 것이 확인되는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모두 수혈식인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곡리 고분군의 주변에서는 다수의 토기편이 발견되었는데 대가야 양식이 주를 이루지만, 낙동강의 동쪽 지역에서 제작된 토기류도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략적인 축조 시기는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를 전후한 시기로 본다.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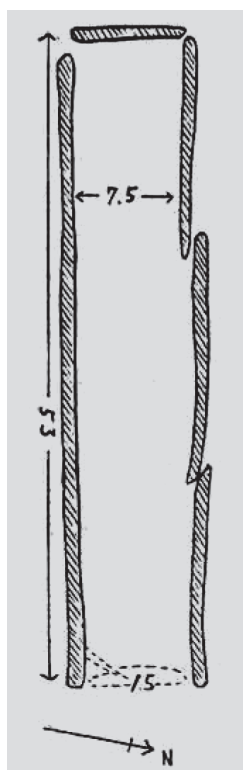
박곡리고분군에 관한 일제강점기의 조사도 측량 제도원과 사진 촬영원 각 1명씩을 대동한 구로이타 가쓰미에 의해 1917년 8월 28일 이후에 행해졌다. 당시에는 '성산면박곡동군星山面朴谷洞群고분군'으로 소개했다. 1917년도의 조사보고에서 1기의 박곡리고분에 관한 조사 기록과 함께 간략한 평면도와 사진을 남겼다. 이 이외에 일제강점기의 박곡동고분군에 관한 조사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1917년의 조사기록은 다음과 같다. 박곡리고분군은 진주에서 고령을 거쳐 낙동강의 중류지방인 대구로 나오는 요충지에 위치하는데, 북쪽에서 뻗어 나온 죽전산竹畑山의 남쪽 언덕에 군집한다. 산 위에서 1기의 소형 고분을 확인했다. 군청의 취조서에는 고분의 숫자가 123기로 적혀 있지만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아 보인다. 이 고분 군집지는 오래전에 가리현加利顯, 다시 말해 신라시대 성산군의 치소로서 성산가야의 소재지였던 곳으로 전한다.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왜관이 존재해 화물도 이 부근까지 밀려 들어왔었던 것처럼 예전부터 요지였다.

이 고분군에는 소위 성산가야 관계의 것과 후대의 것이 혼재되어 있는데, 산의 높은 곳이나 동쪽에만 존재하고 가리현지에 면하는 서쪽은 급경사이므로 확인되지 않는다. 박곡리의 고분들은 모두 소형으로 파손이 심한데, 석축의 광실 흔적이 있어서 그 구조를 소위 수광식竪壙式으로 볼 수 있다. 개석을 옆으로 걸친 일반적인 것이지만 그 사이에 석실을 설치하고, 석판석을 이용한 장방형의 소형 광(또는 곽)을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 종종 혼재된 이러한 종류의 광이 운라산성 아래에도 남아 있다. 이와 같이 절석의 소형 광은 다수는 석축광의 분묘 봉토의 측면을 구성하는데, 길이 1.6m(5尺 3寸)에, 폭 0.2m(7寸 5分)이고, 깊이는 불명확하다. 전방을 구성한 돌이 결실되었고, 개석 중 하나도 행방이 불분명하다.

이 고분군의 소재지에는 광 내에서 출토된 것으로 인정되는 상대의 와기 파편 이외에도 청자 파편이 있는데, 이로 인해 이 지역이 청자의 산지로서 비교적 많이 사용되었고, 분묘 내에 매장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명백히 고려시대의 분묘가 혼재된 것을 알 수 있다.

박곡리고분군은 지산동고분군과 비교해 볼 때 거대 고분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출토된 유물 중에는 다수의 대가야권역 토기편 이외에도 신라권역에서 들여온 토기와 같은 외래유물도 있어서 당대의 고분문화를 알려주는 중요 고분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직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박곡리고분군의 상세한 성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신라권역으로 통하는 낙동강 루트에 조영된 고분군으로, 피장자들은 주로 일대에 살았던 유력층일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박곡동 석판 석소광
(朝鮮總督府 1920 도 80)

죽전산에서 본 가리현지
(1917년 이마니시 촬영, 건판 31208)

박곡동 죽전산 원경
(1917년 이마니시 촬영, 건판 31185)

박곡동 죽전산 고분군 일부
(1917년 이마니시 촬영, 건판 31184)

박곡동 죽전산 고분 석실
(1917년 이마니시 촬영, 건판 31120)

참고문헌

朝鮮總督府, 1920,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김종철, 1986, 『가야문화유적보존 및 자연자원개발계획』, 경상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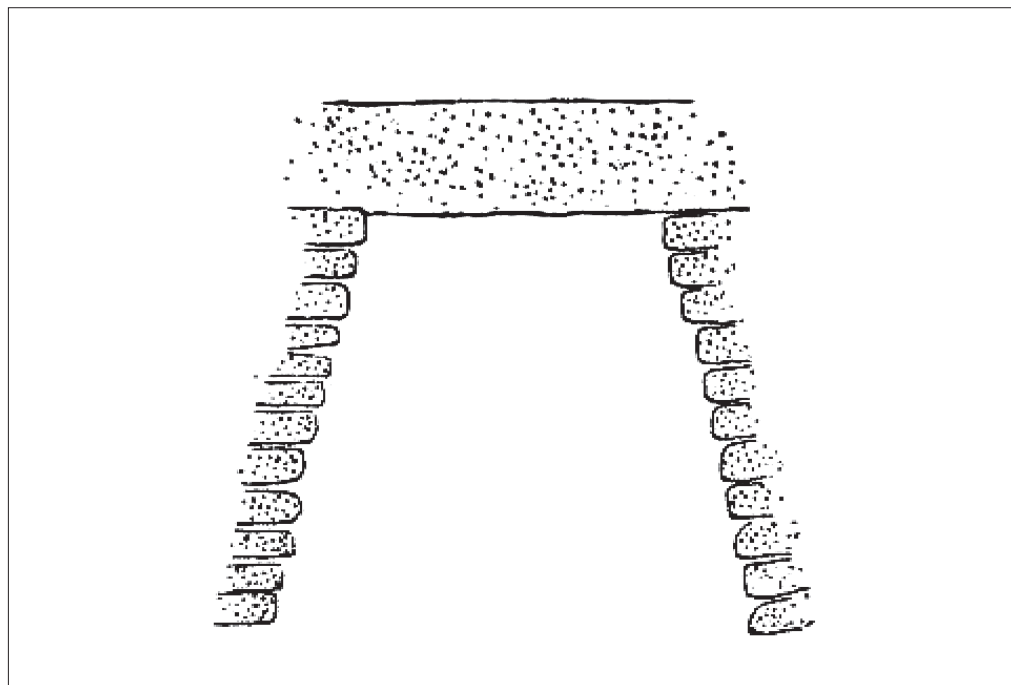
계명대학교박물관, 1998, 『문화유적분포지도-고령군-』.

03 월산리고분군
月山里古墳群

개요

대가천으로 흘러드는 소가천의 하류 북쪽 연안에 위치하는 월산리고분군은 고령군 대가야읍의 중심부에서 북쪽으로 약 4.3㎞ 떨어진 운라산성의 산등성이와 경사면 네 곳에 나뉘어 분포하고 있다. 월산리 고분군은 지표조사를 통해 직경 10~15m의 봉토분 25기 이상과 소형 봉토분, 550여기가 넘는 소형 석곽묘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확인된 유물로는 각종 토기류 이외에 금동제안교의 파편도 있다.

조사내용

월산리고분군에 관한 일제강점기의 조사는 측량 제도원과 사진 촬영원 각 1명씩을 대동한 구로이타 가쓰미에 의해 1917년 8월 28일 이후에 행해졌다. 당시에는 '운수면월산동군雲水面月山洞群고분군'으로 소개했다. 이 이외에 일제강점기의 월산동고분군에 관한 조사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1917년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운라산에서 뻗어 나온 구릉 위에 다수의 고분이 존재하는데, 운라산성과 관계된 고분군으로 파악했다. 이 조사에서는 총 2기의 고분에 관한 조사 기록과 함께 고분의 간략한 단면도를 남기기도 했다.

월산리 1호분 실측도(朝鮮總督府 1920 도 79)

제1기

운라산성 동 내성(동서의 양 내성이 있다)의 봉우리에서 월성동 동쪽으로 내려오는 언덕 배후의 중턱에 있다. 광실은 석축으로 이석野石의 자른 면을 정돈해 쌓았는데, 석재가 비교적 얇고 편평하다. 방향은 남북으로 나 있고, 남북의 양 측면에는 모두 내부에서 쌓은 소위 수혈식이다. 광의 길이는 3.3m(11尺) 정도이고, 높이는 1.3m(4尺 3寸) 정도인데, 폭은 상부가 0.9m(2尺 9寸), 하부가 1.4m(4尺 5寸)이다. 개석은 5개가 있었다.

제2기

제1기의 아래쪽에 위치하는데, 봉토의 대부분이 유실되고 겨우 광이 매몰되어 있는 정도였다. 광은 동서로 나 있었는데, 야석野石을 정연하게 쌓았다. 길이 4m(13尺 2寸), 높이 1,5m(5尺 1寸), 폭은 상부가 1m(3尺 9寸), 하부가 1.5m(5尺) 정도인데, 광의 안쪽벽은 양 측벽과 서로 접하지만 각을 이루지 않고 완곡하도록 서로 연결되었다. 그 현존하는 개석과 측벽과의 관계를 보면, 그 완곡은 그 위에 상당한 개석에 광의 폭 보다도 짧은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끼워 넣기 위해 그 폭을 좁였던 것 같다. 개석은 앞쪽 부분의 2장분이 없어져 지금은 4장만 남아 있다. 두께는 0.3m(1尺)이다.

월산리고분군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정식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1917년의 조사기록은 월산리고분군에 관한 최초의 보고로서 가치가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포양상에 관한 세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사된 2기의 고분도 노출된 고분 내부의 구조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이 지역 고분의 상세한 내부구조와 외부구조를 면밀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참고문헌

朝鮮總督府, 1920,『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김종철, 1986,『가야문화유적보존 및 자연자원개발계획』, 경상북도.
계명대학교박물관, 1998,『문화유적분포지도-고령군-』.

04 본관동고분군

本館洞古墳群

개요

본관동고분군은 고령군 대가야읍의 중심지에서 북쪽으로 약 3.5㎞ 떨어진 용수봉 일대의 야산에 위치한다. 소가천小伽川을 앞에 두고 높이 240m의 야산 정상에 위치한 지름 25m의 대형 봉토분 1기를 비롯하여, 동쪽으로 뻗어 내린 세 줄기의 능선 상에 지름 10~20m인 중·대형의 봉토분 39기와, 이 능선의 사면과 말단부 능선 상에 석곽분 300여 기가 분포한다. 현재 본관동고분군으로 불리는 무덤군으로, 1983년 계명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북쪽 능선에 있는 중대형의 봉토분 3기와 석곽분 9기가 발굴조사되었다.

조사내용

이 고분군에 관한 일제강점기의 조사는 구로이타 가쓰미에 의해 1917년에 행해졌다. 그는 측량 제도원과 사진 촬영원 각 1명씩을 대동하고 서울을 8월 27일에 출발해 다음날인 8월 28일에 고령군에 도착한다. 이후 김해지역의 조사를 위해 이동하기 이전에 본관동고분군을 조사하게 되는데, 당시에는 '읍내면북부군邑內面北部群고분군'으로 소개했다. 이 이외에 일제강점기의 본관동고분군에 관한 조사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1917년의 조사기록을 간략히 살펴보면 본관동本館洞과 자관동字館洞 방면의 구릉의 넓은 지역에 고분이 밀집해 산재해 있고, 산재한 고분 중에는 대형인 것도 있다고 기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 조사기록을 본관동고분군에 관한 최초의 조사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기록이 아주 소략해 지표조사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지산동고분군을 제1군으로 삼고 본관동고분군을 제2군으로 구분하고 있어서, 일제강점기의 본관동고분군에 관한 인식은 지산동고분군에 속하는 하나의 무덤군으로 파악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朝鮮總督府, 1920, 『大正六年度古蹟調查報告』.

계명대학교박물관, 1994, 『고령 본관동 고분군』.

05 사부리고분군
沙鳧里古墳群

개요

고령군 대가야읍에서 달성군으로 가는 국도 26호에서 약간 북쪽으로 치우친 사부리에 위치하는 고분군이다. 서쪽에는 도룡곡이, 동쪽에는 기싯이 있다. 사부리고분군의 인근에는 사적 제510호로 지정된 고령 사부동과 기산동요지가 있다.

조사내용

사부리고분군에 관한 보고는 1920년에 간행된 『대정6년도고적조사보고』에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당시에는 '성산면사부동星山面沙鳧洞고분군'으로 알려져 있었고, 군청의 기록에 3기의 무덤이 있다고 적고 있다. 고령지역의 조사자였던 구로이타 가쓰미는 조사 당시에 혼자서 사부리고분군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의하면 사부리고분군은 기산리고분군과 함께 고령에서 박곡동을 거쳐 대구방면으로 나가는 도로의 북방 산록에 위치한 고분군으로 중형의 무덤이 산록에 있다고 적고 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사부리고분군에 관한 실질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참고문헌

朝鮮總督府, 1920,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06 기산리고분군

箕山里古墳群

개요

고령군 대가야읍에서 달성군으로 가는 국도 26호에서 약간 북쪽으로 치우친 기싯에 위치하는 고분군이다. 서쪽에는 사부리가, 동쪽에는 지경골이 있다. 기산리고분군의 인근에는 사적 제510호로 지정된 고령 사부동과 기산동 요지가 있다.

조사내용

기산리고분군에 관한 보고는 1920년에 간행된 『대정6년도고적조사보고』에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당시에는 '성산면기산동星山面箕山洞고분군'으로 알려져 있었고, 군청의 기록에 3기의 무덤이 있다고 적고 있다. 고령지역의 조사자였던 구로이타 가쓰미는 조사 당시에 혼자서 기산리고분군을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지 조사를 실제로 행했는지는 불명확하다. 그 이후 지금까지 기산리고분군에 관한 실질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참고문헌

朝鮮総督府, 1920,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07 용리고분군

龍里古墳群

개요

고령군 대가야읍의 중심부에서 서쪽으로 5.2㎞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용리고분군은 미숭산 동쪽 산등성이에서 남으로 파생된 가지 능선과 비교적 완만한 서쪽 비탈면에 분포한다. 해발 362~300m 산등성이와 그 동쪽 비탈면의 반룡사 아래 계곡까지 비교적 넓게 고분군이 분포하는데, 봉토분 10여 기와 다수의 석곽묘가 확인되었다. 규모가 큰 봉토분은 직경 15m 내외, 높이 2m로 중형급이다. 소형인 석곽묘는 모두 수혈식으로 추정된다.

조사내용

용리고분군에 관한 보고는 1920년에 간행된 『대정6년도고적조사보고』에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당시에는 '임천면용동林泉面龍洞고분군'으로 알려져 있었고, 당시 군청의 기록에 1기의 무덤이 있다고 적고 있다. 고령지역의 조사자였던 구로이타 가쓰미는 용리고분군이 미숭산의 동남록에 있는 위치상의 특징을 근거로 미숭산성과 관계가 있는 고분군으로 보았지만 실제로 조사에 임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용리고분군에 관한 실질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용리고분군은 중형급 봉토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속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분포상의 특징이 일반적인 대가야고분군의 분포 양상과 다르다. 따라서 용리 고분군은 대가야시대의 후기로부터 신라에 병합된 직후의 고분 문화를 보여주는 자료이며, 중형급을 포함한 봉토분의 피장자는 안림천 중류와 하류 지역 대가야의 유력층 인물들로 추정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계명대학교박물관, 1998, 『문화유적분포지도-고령군-』.
김종철, 1986, 『가야문화유적보존 및 자연자원개발계획』, 경상북도.
朝鮮總督府, 1920,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08 노곡리고분군
蘆谷里古墳群

개요

고령군 다산면의 북변에 형성된 낙동강 충적지 서쪽 끝 산등성이와 동쪽 비탈면에 노곡리고분군이 위치한다. 지표조사를 통해 삼국시대의 토기편과 석곽의 재료로 추정되는 할석 등이 발견되어 삼국시대의 석곽묘가 다수 분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조사내용

노곡리고분군에 관한 보고는 1920년에 간행된 『대정6년도고적조사보고』에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당시에는 '다산면노곡동茶山面盧谷洞고분군'으로 알려져 있었고, 당시 군청의 기록에 1기의 무덤이 있다고 적고 있다. 고령지역의 조사자였던 구로이타 가쓰미는 노곡리고분군에 관한 조사는 하지 않고 원거리에서 바라보았는데, 산의 서쪽 중턱에 1기의 고분이 보인다고 기술하고 있다.

신라권역과 접경을 이루는 대가야 동북단에 위치하므로, 당시의 접경지대 고분문화의 양상을 추정할 수 있는 고분군으로서 가치가 인정된다.

참고문헌

계명대학교박물관, 1998,『문화유적분포지도-고령군-』.

朝鮮總督府, 1920,『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朝鮮総督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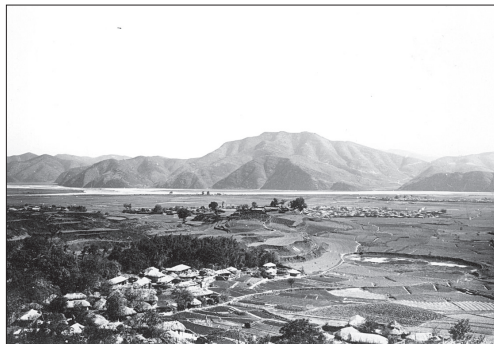
09 전 대가야왕궁지
傳 大加耶王宮地

개요

주산에서 뻗어 나온 연조리의 나지막한 구릉상의 대지 위에 대가야의 궁성지로 추정되는 유적이 있는데, 지금은 조선시대에 건립된 고령향교가 세워져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고령현의 남쪽 1리에 대가야 궁궐지가 있다. 그 옆에는 우물이 있는데 세간에는 어정이었다고 전한다'라고 적고 있다. 궁성지로 추정되는 대지는 동서로 긴 타원형을 이루고 있고, 둘레가 약 550m 정도이다. 이 유적은 일제강점기에 학교 부지로 이용되었는데, 숙소와 배수로, 축사 등의 부속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원래 지형이 많이 훼손되었다. 추정 대가야 왕궁지는 경북대학교박물관이 2000년에서 2001년에 걸쳐 지표 및 시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유적의 동남쪽 경사지에서 소위 대벽건물지大壁建物址를 비롯한 부속 건물로 추정되는 다수의 유구와 토기류, 기와류, 벽돌 등이 발견되었다. 이후 2017년에는 해자시설과 토축성벽이 확인되어 대가야 왕궁 또는 궁성의 존재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조사내용

고령의 전 대가야왕궁지에 관한 일제강점기의 최초 조사는 세키노 다다시와 야쓰이 세이이쓰에 의해 1910년에 이루어졌다. 당시의 조사보고는 논문 형식으로 세키노 타다시에 의해 1911년에 발표되었다. 이 기록에 따르면 구릉 위에 입지한 당시 문묘의 위치를 대가야의 왕궁지로 추정했는데, 『고령읍지高靈邑志』의 기록에 문묘 건립 당시에 초석과 기와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하나의 근거로 삼았다. 세키노와 야쓰이는 1910년 당시에 문묘 뒤에서 연화문 수막새를 발견했는데, 문양적 특징과 경주의 고분에서도 비슷한 문양의 기와가 발견되는 점을 근거로 이 수막새를 삼국시대의 것으로 보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이 유적을 가야시대의 왕궁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후 1917년에 구로이타 가쓰미에 의해 다시 조사되었는데, 1920년에 간행된 『대정6년고적조사보고』에서 추정 왕궁지에 관해서 간략하게 소개했다. 조사자였던 구로이타 가쓰미 또한 『신종동국여지승람』이나 『고령읍지』 등의 문헌기록과 1910년의 조사에서 출토된 기와류 등을 참고해 당시 문묘가 있던 이 유적을 왕궁지로 추정했다. 또한 왕궁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군청 북쪽의 우물을 '어정御井'이라고 칭하고 사진을 남겼다.

고령 전 대가야왕궁지(건판 27190)

고령 전 대가야왕궁지(건판 27194)

고령 어정(이마니시 촬영, 건판 31177)

고령 전 대가야왕궁지, 기와(건판 35636)

참고문헌

『新增東國輿地勝覽』.

關野貞, 1911, 「伽倻時代の遺蹟」『考古學雜誌』1-7,考古學會.

朝鮮總督府, 1920,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朝鮮総督府.

계명대학교박물관, 1998, 『문화유적분포지도-고령군-』.

경북대학교박물관, 2006, 『전 대가야궁성지』.

10 주산성
主山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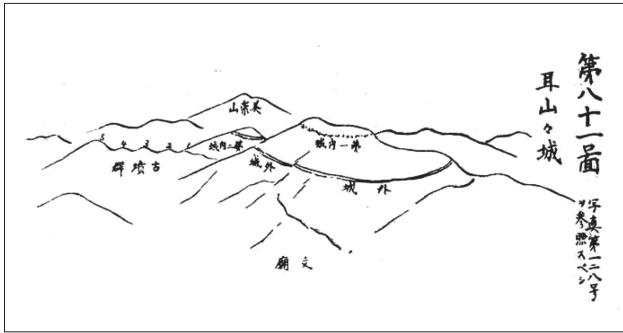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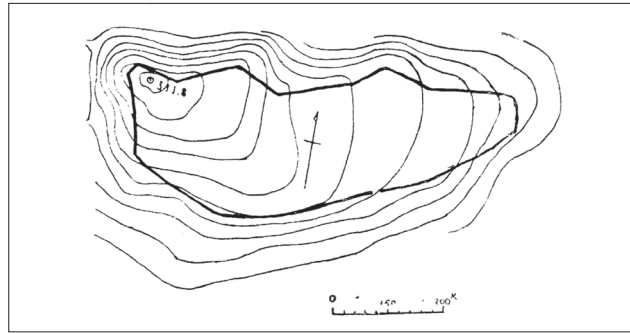
개요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의 지산리와 연조리 일대에 걸쳐 있는 주산主山은 고령의 진산으로 주산의 서쪽 능선은 미숭산과 연결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남북의 두 봉우리가 사람의 귀 모양을 하고 있어서 이산耳山, 혹은 산 중턱에 옛 무덤이 아홉 봉우리를 이루고 있어서 구미산九尾山이라고도 불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현에서 서쪽으로 2리에 있으며 진산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주산에는 대가야의 산성으로 추정되는 주산성(사적 제61호)이 위치하는데, 해발 311m 주산主山 정상부와 능선을 따라쌓은 토석혼축土石混築의 산성이다. 성의 구조는 내·외의 2중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 정상부에는 내성을 쌓았고, 산의 6부 능선을 따라서 외성을 쌓아 방어를 튼튼하게 했다. 내성의 북쪽 벽 및 외성의 동쪽 벽에 각각 4곳, 총 8곳에 치雉를 설치했던 흔적이 남아 있다. 내성의 내부는 대체로 평탄하고 서쪽 끝부분에는 건물터로 보이는 대지가 확인된다. 외성 안에서는 집수지와 건물터 2곳이 확인되었다. 산성 안의 유구에서는 대가야의 유적에서 주로 발견되는 토기류를 비롯해, 와전류, 자기류 등이 출토되었다.

조사내용

1910년에 주산성을 조사한 세키노와 야쓰이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산 정상부에 폭이 72.4m(40間), 길이 218.2m(2町), 327.3m(3町)인 2단으로 된 평탄한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 성벽을 둘렀다. 주산의 후방과 우측은 단애로 되어 있어서 성벽을 설치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면과 좌측에는 성벽이 남아 있다. 서쪽 성벽의 뒤쪽 절반도 단애로 되어 있어서 성벽을 설치하지 않았다. 성벽은 폭이 1.2m(4尺), 높이가 1.2m(4尺) 정도이다. (고령)읍지에는 설명이 없지만 산성이 명확하다. 또한 이 산의 중복에는 토벽으로 보이는 것도 있다. 이 산성은 이중의 장벽이 존재했다. 산 위에는 무수한 기와편이 산재되어 있는데, 암키와와 수키와가 섞여 있다. 모두 그 재질이 견치함으로 가야시대의 것으로 봐야 하는 이유이다. 이 산성과 산록의 궁궐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평시에는 작은 구릉 위의 왕궁에서 기거하나, 일단 외적이 침입해오면 산성에 의지해 방어했다. 성벽은 급경사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높이가 1.2m(4尺)이라도 흉벽으로서 기능이 가능해 적을 막기에 충분하다.

이후 1917년에 구로이타 가쓰미에 의해 주산성이 다시 조사되었는데, 1920년에 간행된 『대정6년도고적조사보고』에서 간략하게 소개했다. 조사자였던 구로이타 가쓰미의 기록에 의하면 이산耳山으로도 불리고 주산으로도 불리는 이 산성에는 2곳의 내성과 1

주산(이산)성(朝鮮總督府 1922 도 81)

성벽 평면도(朝鮮總督府 1922 도 6)

곳의 외성으로 되어 있다. 두 내성 사이에는 산 정상의 서쪽 가장자리를 따라서 석벽을 쌓아 연결시켰다. 더욱이 제1성의 북변에서 제2내성의 동북변까지는 산의 앞면에 약 200m 정도인 등고선을 따라서 토성 벽을 연결시킨 외성으로 되어 있다. 양 내성을 연결시킨 외성벽이 제2내성벽에 거의 연접하는 모습인 점으로 미루어 보면, 제2내성이라고 하는 곳은 외성의 한 부속된 성이라고도 볼 수 있다. 내성과 외성 모두 심하게 파괴되어 겨우 그 흔적만 남아 있는 부분이 많다. 제1내성 및 외성 안에서는 기와편이 발견되나 연대를 알 수 있는 것은 없다. 외성 안에는 건물터와 대지가 있어서 건축물의 존재했던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산성은 함안의 봉산성 및 운라산성과 완전히 동일한 형식의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주산성은 대가야산성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고대 가야의 관방체계와 사회적 양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주산성에 관한 전체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초축시기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가야의 도성 방어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며, 대가야 멸망 이후에는 신라의 거점성으로서, 그리고 고려~조선시대까지도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상정된다.

참고문헌

『新增東國輿地勝覽』.

關野貞, 1911,「伽倻時代の遺蹟」,『考古學雜誌』1-7,考古學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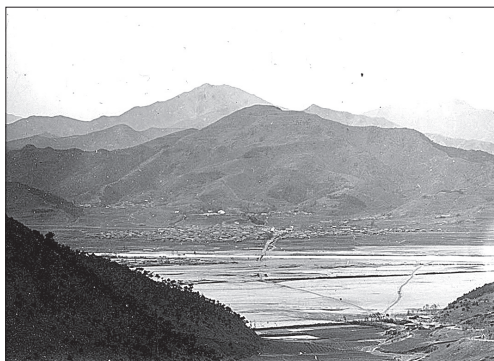
朝鮮總督府, 1920,『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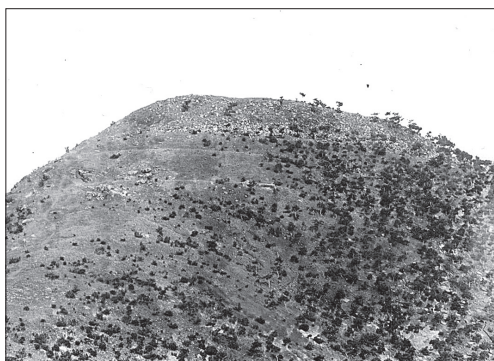
국립대구박물관·고령군, 1996,『주산성지표조사보고서』.

계명대학교박물관, 1998,『문화유적분포지도-고령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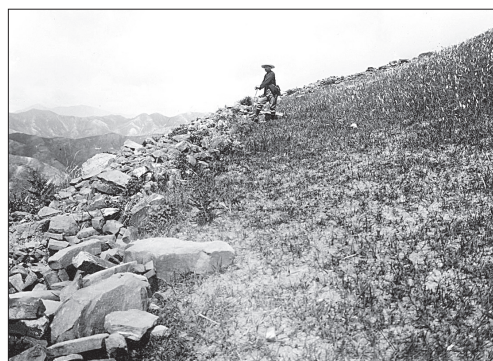
경북대학교박물관, 2006,『전 대가야궁성지』.

대동문화재연구원, 2010,『고령 지산동 고분군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밀지표조사결과 보고서』.

최재현, 2014,「발굴조사 성과로 본 대가야 주산성」,『대가야의 고분과 산성』, 대동문화재연구원.

고령 주산성 원경(야쓰이 촬영, 건판 32127)

고령 주산성 전경(야쓰이 촬영, 건판 32129)

주산성(건판 32138)

고령 주산성 성벽(건판 27196)

고령 주산성 전경(야스이 촬영, 건판 32136)

주산성(1915년 촬영, 건판 3923)

주산성 성벽(야쓰이 촬영, 건판 32123)

주산성 성벽(야쓰이 촬영, 건판 32137)

Ⅶ. 성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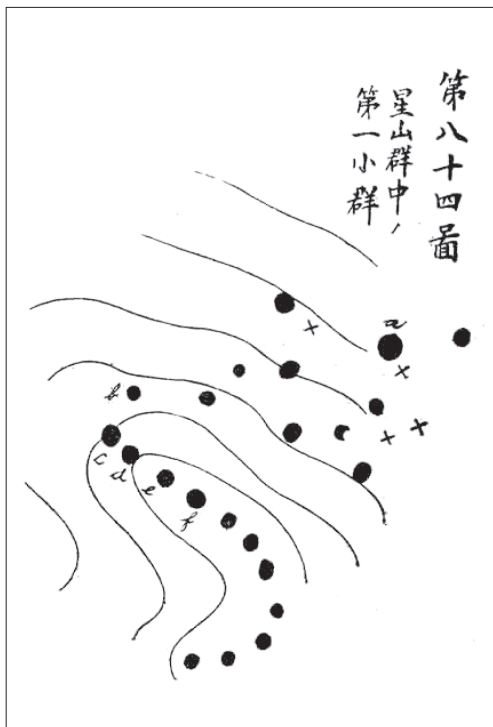
01 성산동고분군
星山洞古墳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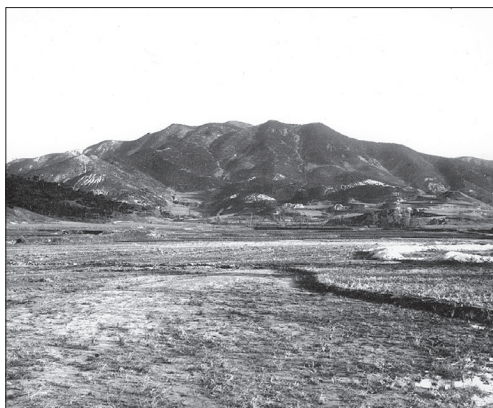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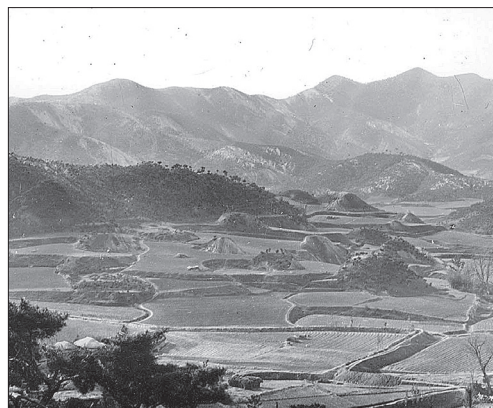
개요

성주 성산동고분군은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동 승왜리 마을 뒷산 능선과 그 사면 일대에 약 130여 기의 고분이 분포하는 고분군으로, 성산의 서·북쪽 능선과 사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원형봉토분이다. 현재 사적 제86호로 지정되어있다. 이 유적은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의 일환으로 조사가 시작되어 1917년(대정 6년) 실시된 현지조사에 의해 고분군의 분포와 위치가 처음 학계에 알려졌다. 이마니시 류今西龍에 의해 보고된 대정6년(1920년 발간)·7년(1922년 발간)고적조사보고서와『가라경역고加羅境域考』 등에 이 고분군의 분포와 위치가 소개되어 있다. 이후 1918년(대정 7년) 하마다 고사쿠浜田耕作와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에 의해 제1호분(현 56호분)·제2호분(현 57호분)·제6호분(현 62호분)이, 야쓰이 세이이쓰谷井濟一에 의해 성산동대분(현 48호분)·팔도분(현 53호분)이 발굴조사 되었고, 해방 후 1986년 계명대학교에 의해 38·39·57~59호분이 발굴조사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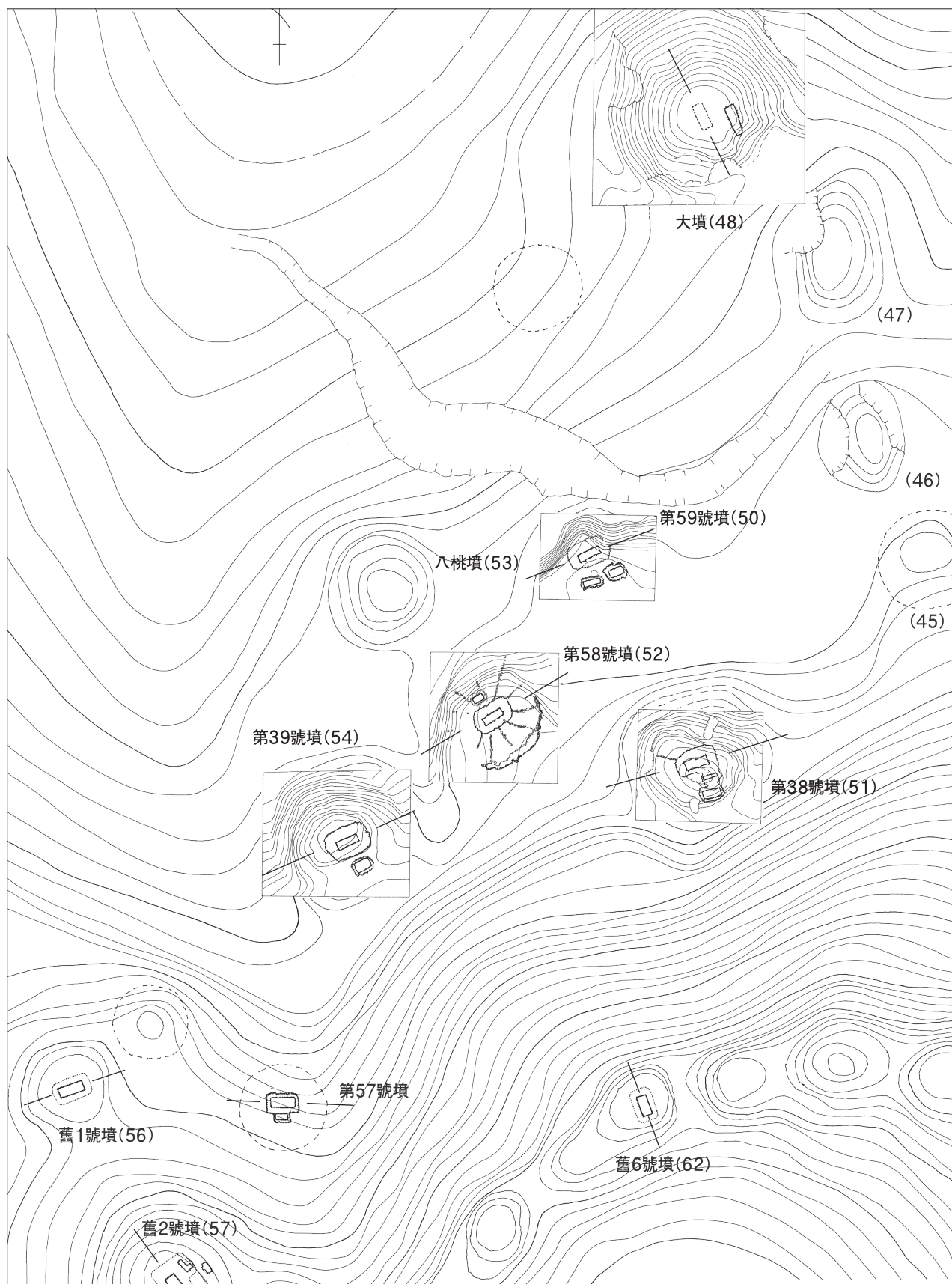
1917년 이마니시에 의해 이루어진 지표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성주에 분포된 고분을 크게 3개의 군으로 나누고 각 군에서 고분의 크기와 위치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도면과 사진으로 나타내었다. 당시의 보고에 따르면 임시로 명명된 용상동의 구릉에 있는 거대한 고분군을 제1소군으로, 고령과 성주를 잇는 도로로, 성현고개로 가는 길 양측에 군집하는 소형분을 제2소군으로, 신점동에 있는 소형의 고분군을 제3소군으로 분류하여 총 46기의 고분군을 파악하였다. 당시 조사는 잔존한 봉토만을 기준으로 나눈 것으로 현재는 그보다 더 많은 기수의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는데, 지형으로 나누어보면 총 13개의 소군으로 나뉘고, 그 외에도 22기의 소형봉토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조사가 이루어진 1·2·6호분은 성산의 서쪽 산기슭에 위치한 수혈식석곽묘로 유개식이단투창고배, 일단투창고배, 대부장경호, 통형기대 등의 토기류와, 금제심엽형세환이식, 은제관식, 은제과대 등의 장신구류, 환두대도, 철모, 철촉, 철도자 등의 무기류가 출토되었다.

이후 계명대학교박물관에서 5기(38·39·57~59호분)를 발굴조사하여 성산동고분군의 묘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성산동고분군의 묘제 가운데 특이한 점은 매장주체부 한쪽 장벽에 잇대어 감실을 설치한 감실부곽고분으로, 네 벽을 쌓지만 한쪽 장벽 쪽을 넓게 확장하여 바닥보다 약간 높게 벽장처럼 만들어 부곽으로 사용하는 묘제이다.

이러한 성주 성산동고분군은 현재 총 13개 소군으로 이루어진 군집분으로 밝혀지게 되었고 출토유물의 질과 양, 고분의 입지, 묘제의 형태 등으로 보아 5~6세기를 중심으로 성주지역에 존재했던 유력지배층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산군 중 제1소군(朝鮮總督府 1920 도 84)

성산동고분 분포도(朝鮮總督府 1922 도 2)

성산동고분군 원경(야쓰이 촬영, 건판 32080)

성산동고분군 전경(야쓰이 촬영, 건판 32083)

성산동고분군 일부 원경(야쓰이 촬영, 건판 31155)

성산동고분군 일부 전경(야쓰이 촬영, 건판 31156)

성산동 발굴고분의 입지와 위치(계명대학교박물관 2006 도 8)

성산 서쪽 산기슭의 고분군 중에서 성산동 남쪽에 있는 구릉의 척량부를 따라 연주상連珠狀으로 위치하는 고분군으로, 고령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왼쪽 구릉상에 23기의 대·형 고분군이 위치하고 그 북쪽의 경사면에 대·소형분 십 수기가 위치한다.

조사내용

제1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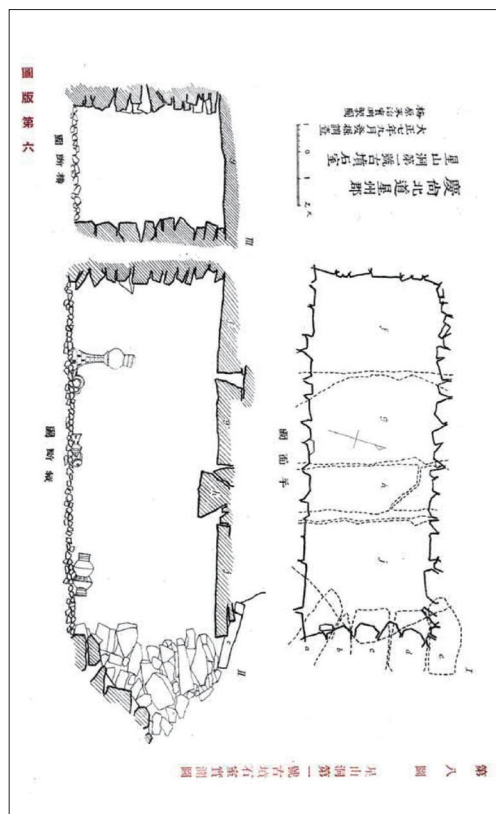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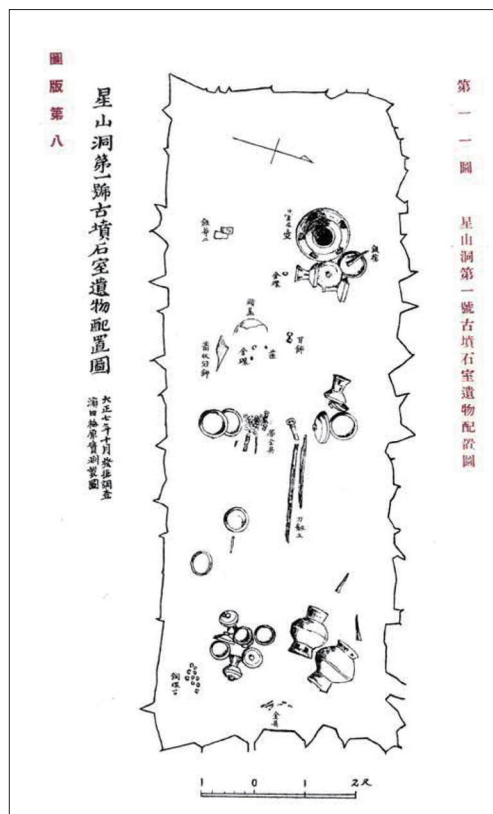
제1호분(현 56호분)은 현재 '살망태마을'의 서쪽 사면의 소능선을 따라 군집한 표고 65~150m에 위치한 고분군 중의 하나이다. 제1호분은 현재의 57호분의 서쪽 약 20m 지점에 위치하고, 당시 2호분의 북쪽에 위치해 있다. 고분의 발굴은 1918년(대정 7년) 9월 27일 오전 10시부터 9월 29일 까지 진행되었는데, 복원공사 후 2호분 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잔존한 봉분의 지름은 13.6m(45尺), 높이 3.6m(12尺)이고, 봉토 내부 중앙 3.9m(13尺) 아래에 자리 잡은 석실(주곽)의 크기는 길이 3.6m(12尺), 너비 1.4m(4尺 5寸)이며, 네 벽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할석으로 쌓여있는데 높이는 1.6m(5尺 2寸) 정도로 파악되었다. 당시의 발굴조사는 석실의 입구부로 보았던 동단벽부를 향해 트렌치를 굴착하고 동단 개석과 동단벽 상부 사이의 틈을 통해 석실로 통했던것으로 보이는데, 동측이 수직이 아닌 비스듬하게 쌓여 있고, 편평한 석재 5개가 엉성하게 쌓인 형태 등을 지적하는 점으로 보아 이를 입구부 폐쇄용으로 오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해방 후, 38·39·58호분을 발굴하면서 장대석을 종횡으로 덮는 양상으로 확인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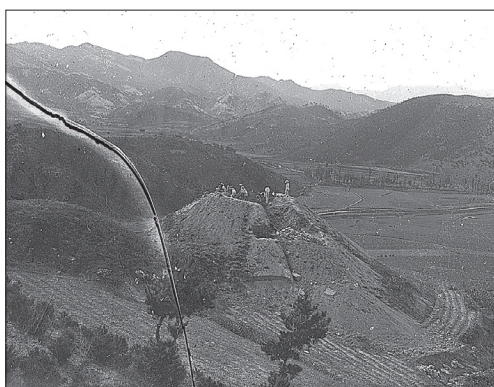
석실의 천장석은 4매의 대석이 횡방향으로 거의 천장의 원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석실 바닥부분은 소할석층이 있고, 석괴가 2~3중으로 깔려있다. 그 상부에는 흐르는 물에 침전된 점토층이 있고 측벽의 내면에는 칠을 한 흔적이 남아있다.

주곽 내에서 확인된 유물은 총 48점으로 유개식이단투창고배, 일단투창고배, 대부장경호, 통형기대, 금제심엽형세환이식, 은제관식, 은제과대, 환두대도, 철모 등이 출토되었다. 우선 토기류는 통형기대 1점, 장경호 1점, 대부장경호 2점, 유개고배 11점으로 총 15점이 출토되었고, 금속장식구는 금환 2점, 동환 10점, 금제이식 1점, 은제과대 1식, 은제관식 1점 등 총 15점이 출토되었다. 무기·공구류는 환두대도 2점, 직도 1점, 도자 3점이 출토되었고, 철모 4점, 철부 3점, 불명금구 2점, 철기잔편 3점 등 총 18점이 출토되었다. 마지막으로 인골치아 4점이 확인되었는데 감정 결과, 건강한 중년의 치아로 밝혀졌다.

성산동 1호분은 2호분보다 작은 편이지만 은제과대, 금제이식, 환두도 등과 같이 풍부한 유물이 출토된 점으로 보아 지방 유력층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출토위치로 보아 피장자의 두향은 동향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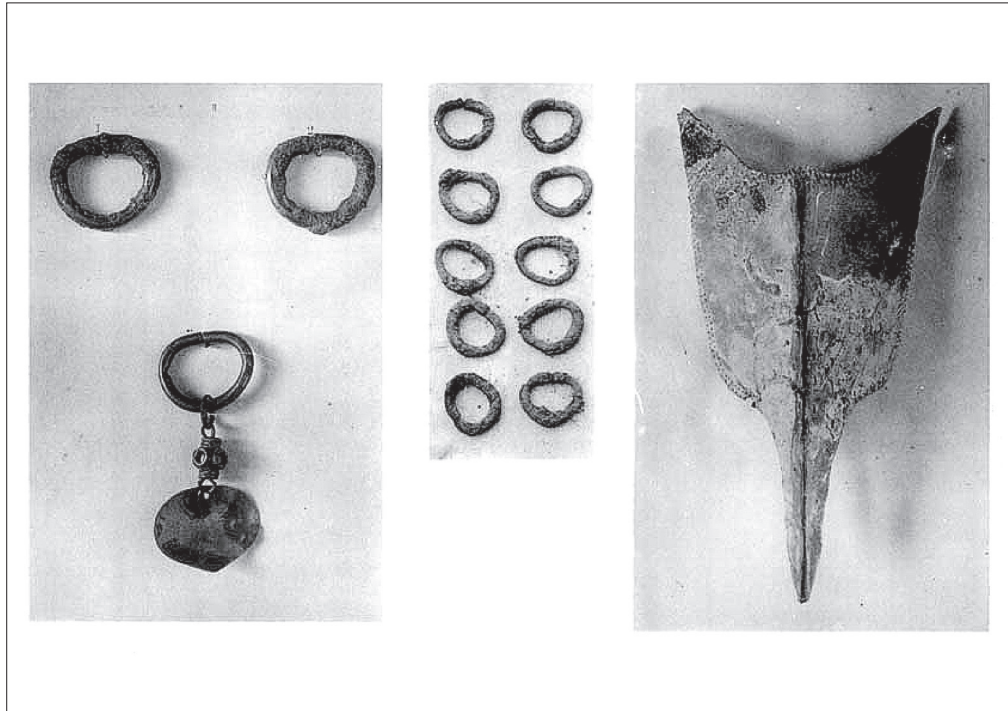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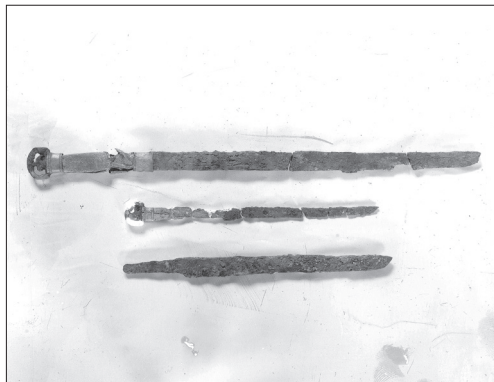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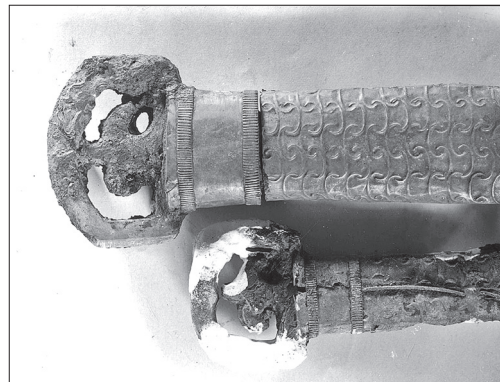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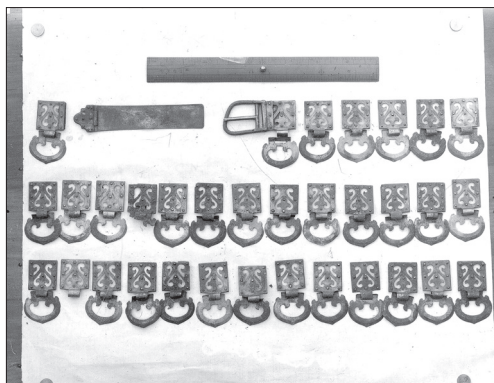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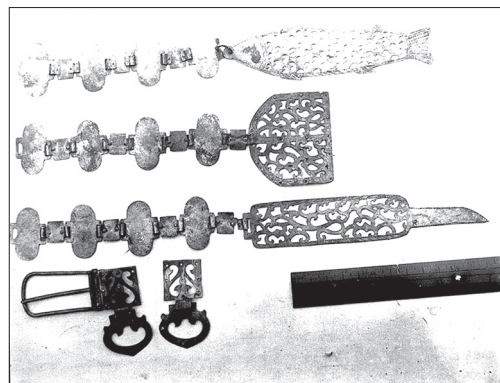
1호분 실측도(朝鮮總督府 1922 도 7)

1호분 석실 실측도(朝鮮總督府 1922 도 8)

1호분 석실 유물배치도(朝鮮總督府 1922 도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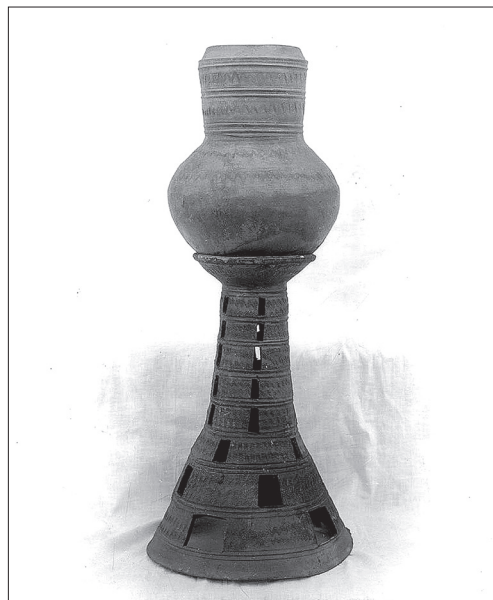
성산동 1호분 석실 동부 유물
(1918년 우메하라 조사, 건판 35830)

성산동 1호분 석실 서부 유물
(1918년 우메하라 조사, 건판 35845)

성산동 1~3호분(1918년 우메하라 조사, 건판 35851)

성산동 1호분 발굴 후 동면
(1918년 우메하라 조사, 건판 35849)

성산동 1호분 발굴 작업
(1918년 우메하라 조사, 건판 35827)

성산동 1호분 석실 동부 유물
(1918년 우메하라 조사, 건판 35832)

성산동 1호분 출토 장신구(朝鮮總督府 1922 도 16~18)

성산동 1호분 환두대도
(1918년 우메하라 조사, 건판 21680)

성산동 1호분 환두대도 두부
(1918년 우메하라 조사, 건판 21682)

성산동 1호분 은제과대
(1918년 우메하라 조사, 건판 21697)

성산동 1호분 은제과대
(1918년 우메하라 조사, 건판 25278)

성산동 1호분 철부·철모
(1918년 우메하라 조사, 건판 21696)

성산동 1호분 장경호·기대
(1918년 우메하라 조사, 건판 21692)

성산동 1호분 대부장경호
(1918년 우메하라 조사, 건판 21691)

성산동 1호분 유개고배
(1918년 우메하라 조사, 건판 21673)

제2호분

성산동 제2호분은 제1호분에서 남동쪽으로 20m 정도 떨어져 위치하며, 잔존한 봉분의 높이가 3.6m(12尺), 지름이 27m(90尺)에 이른다고 한다. 발굴조사는 9월 27일 오후부터 9월 30일 오전까지 진행되었는데, 봉토의 동북동쪽 부분에 트렌치를 설치하였고 그 과정에서 순장곽 2기가 확인되어다. 석실의 평면형태와 직교되는 방향으로 트렌치를 설치함으로써 석실의 양단벽은 훼손되지 않을 수 있었다. 당시 봉토 지름을 27m(90尺)로 추정하였으나, 실제로는 22m로 추정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1소석실(부속 제1석실-순장곽)은 내부에서 신전장의 인골이 확인되었고, 토기(축부풍고배祝部風高杯)가 부장되어 있었다. 이 석실의 동쪽 1.8m(6尺), 봉토 표면에서 1.2m(4尺) 위치에 또 하나의 소석실(부속 제2석실-순장곽)이 발견되었는데, 내부에서 고배 4점이 출토되었다. 10월 2일 표면에서 아래로 3m(10尺)에 이르러서 주실이 확인되었고 이후 적석층위를 확인하면서 주실의 천장석에 이르게 되었다. 주석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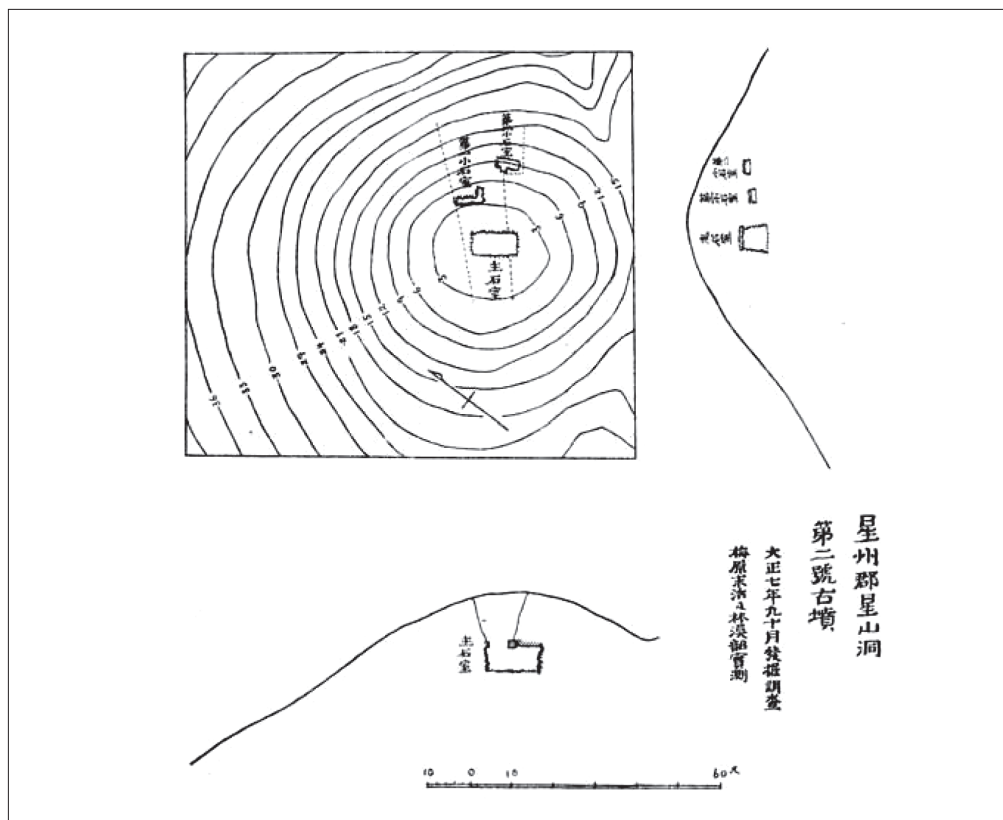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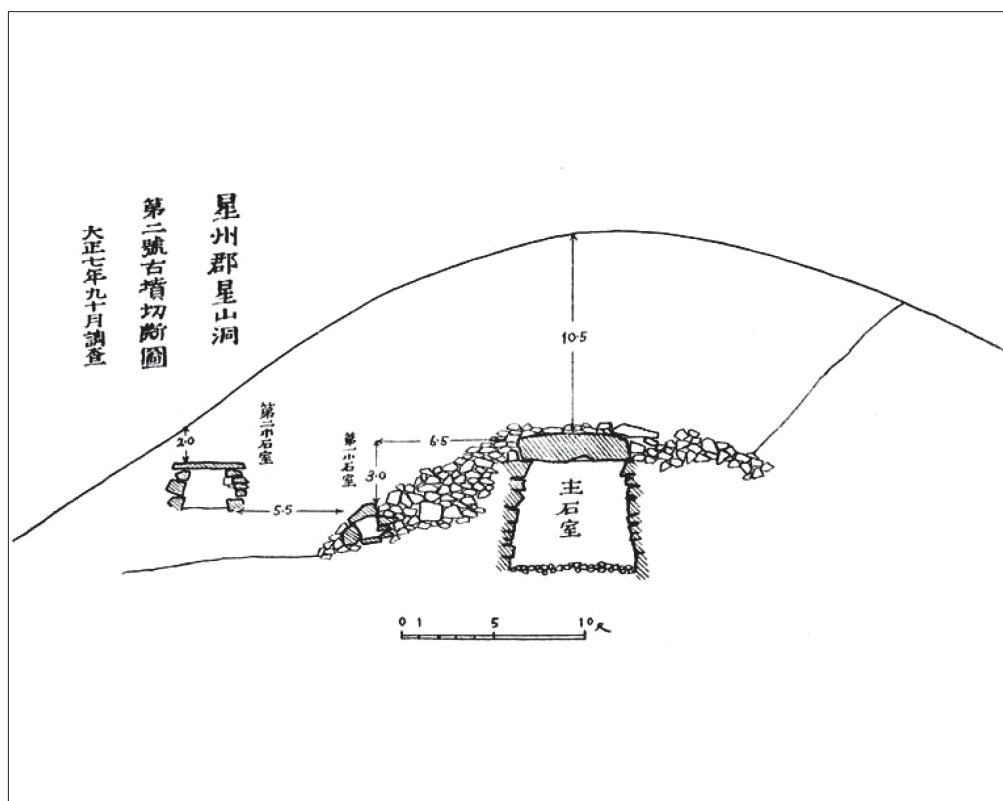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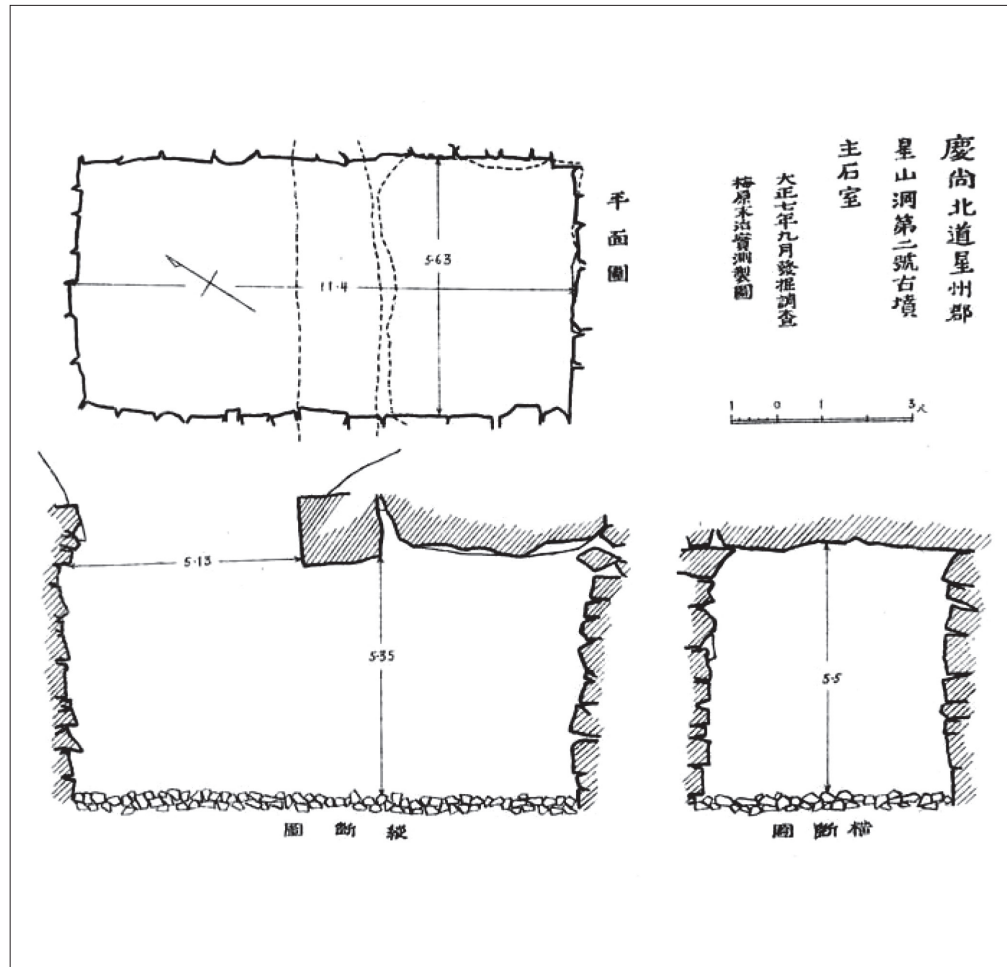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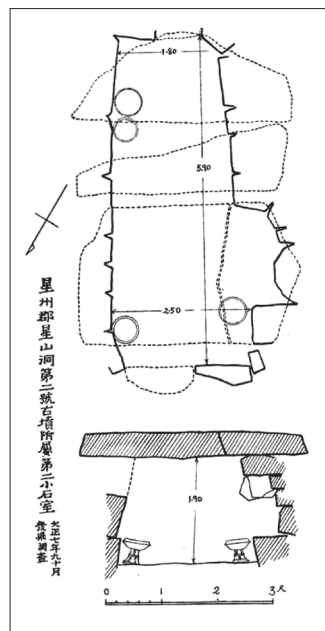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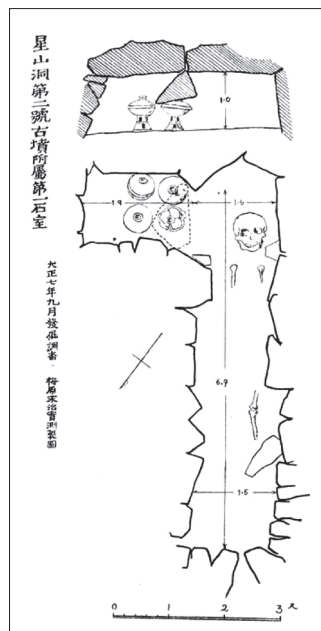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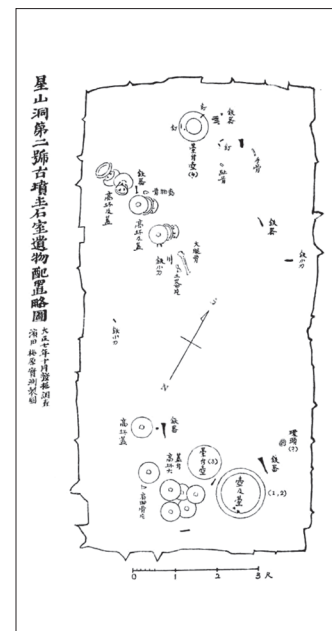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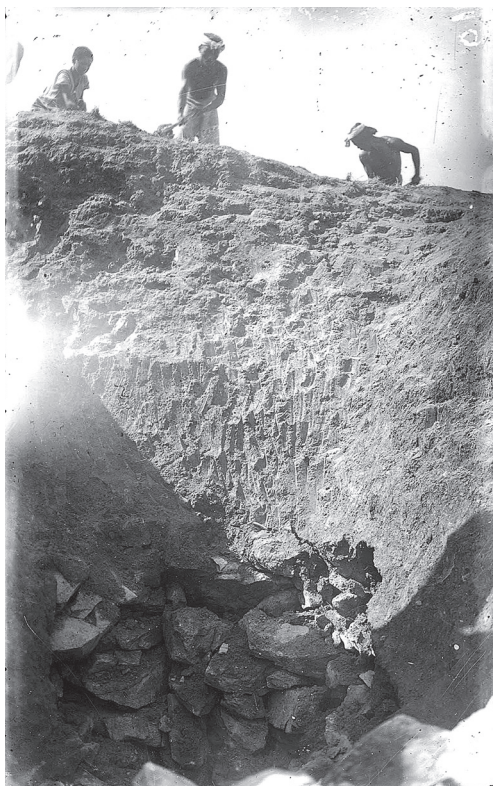
은 남북으로 긴 직사각형의 형태로 길이 3.4m(11尺 4寸), 너비 1.7m(5尺 7寸)이다. 벽면은 1호분과 동일한 모습으로 할석을 이용해 쌓았고 높이 1.7m 내외에 달한다. 또한 석실의 구조 역시 1호분보다 정교함이 더해져 석재의 절단면을 정리하여 수직에 가깝게 측면을 만들었다. 벽면을 구성하는 석재 외에 대형의 석괴를 쌓았고, 천장부는 화강암을 쌓아 감실竪牢을 만들었다. 천장부는 화강암의 커다란 석재를 옆으로 쌓았는데, 현재 2개의 돌만 남아있다. 하나는 너비 0.4m(1尺 5寸)의 방주상方柱狀의 할석이고, 그 남쪽에 접해 길이 1.5m(5尺) 의 대형의 평석平石이다. 북쪽 절반부에 천장석은 추락하여 원래의 모습이 남아 있지 않는데, 원래의 모습은 잔존하는 석재보다 컸을 것이며, 서서히 편평해지는 큰 돌 여러개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석실의 바닥부는 소형의 할석을 3~4겹 깔았고, 발굴조사 중 이 조약돌층 상부에 흑색 재층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남쪽벽은 실측단면도에 보이는 것과 같이 경사가 이루어지며, 유해는 북쪽에 안치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물은 호 1점, 기대 1점, 대부호 2점, 고배 11점으로 총 15점의 토기가 출토되었고, 철기류는 도자의 파편이 출토되었으나 정확한 수량은 알 수 없고, 환두도 1점, 철모 파편, 철부 1점, 방형좌금구方形座金具 1점, 잡구雜具 일부가 출토되었다.

2호분 1순장곽(부속 제1석실)

부속 제1석실은 주실의 동쪽벽에서 2.1m(7尺) 외부적석 상에 축조되어 있었다. 길이 2m(6尺 7寸), 너비 0.4m(1尺 5寸) 내외로 직사각형이다. 특히 동남모서리에 세로 0.4m(1尺 3寸), 가로 0.6m(1尺 9寸)의 익실翼室-감실이 설치되었다. 석실의 장축방향은 주석실의 방향과 일치하고, 대형의 할석으로 벽면을 쌓았고, 상부는 대형의 석재를 사용하였다. 바닥은 주실 외측의 적석과 맞닿아 있고, 그 경사면을 따라서 작은 석실이 동서로 배치되었다. 이러한 점들로 보아 석실은 주실을 구성할 당시 간격 없이 지어져 있었으며, 아마 주실축조 과정 중 또는 특수한 사정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내부에서는 고배 5점이 출토되었고, 완전한 형태의 인골 1기가 신전장되어 있었는데, 장년 남자로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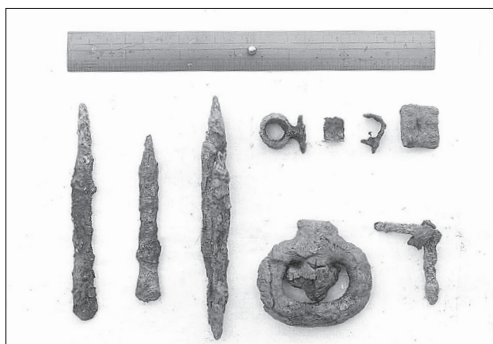
2호분 2순장곽(부속 제2석실)

부속 제2석실은 제1소석실보다 0.7m(2尺 5寸) 높고, 그 동남동쪽으로 1.8m(6尺)에 떨어져 위치한다. 봉토의 경사면 아래 0.7m(2尺 5寸)에 천장석이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약간 방패모양撥形으로 보이는 직사각형이고 서북쪽 모서리 근처에 소형의 감실이 확인된다. 석실의 길이는 1.8m(5尺 9寸), 너비는 넓은 부분을 기준으로 0.7m(2尺 5寸)이다. 장축방향은 제1소석실(제1순장곽)과 일치하고, 측벽은 높이 0.6m(2尺)로 할석을 사용하여 축조했고 상부로 갈수록 약간 줄어드는 형태이다. 천장석은 편평한 석재 3매를 이용해서 덮었고, 북쪽의 개석은 길이 1.2m(4尺) 너비 0.7m(2尺 3寸)의 대석을 사용해 덮었다. 다른 2개의 개석은 소형이다. 석실의 바닥에는 점토층이 굳어있고, 사력층 설비가 되어있다. 석실 내부에서는 고배 4점이 출토되었다.

2호분 고분 외형 실측도(朝鮮總督府 1922 도 29)

2호분 고분 단면도(朝鮮總督府 1922 도 37)

2호분 고분 주석실 실측도(朝鮮總督府 1922 도 38)

2호분 부속 제2소석실
(朝鮮總督府 1922 도 40)

2호분 제1부속석실
(朝鮮總督府 1922 도 39)

2호분 석실 유물배치도
(朝鮮總督府 1922 도 41)

성산동 2호분 주석실 발굴 상태
(1918년 우메하라 조사, 건판 35850)

성산동 2호분 주석실 측벽
(1918년 우메하라 조사, 건판 35846)

성산동 2호분 주석실 측벽
(1918년 우메하라 조사, 건판 35842)

성산동 2호분 2소석실
(1918년 우메하라 조사, 건판 35841)

성산동 2호분 1소석실 내부 토기
(1918년 우메하라 조사, 건판 35852)

성산동 2호분 주실 출토 각종 철기
(1918년 우메하라 조사, 건판 28150)

성산동 2호분 주실 철부·철창
(1918년 우메하라 조사, 건판 21684)

성산동 2호분 주실 출토 유개고배·대부장경호
(1918년 우메하라 조사, 건판 28140)

성산동 2호분 소석실 출토 유개고배
(1918년 우메하라 조사, 건판 28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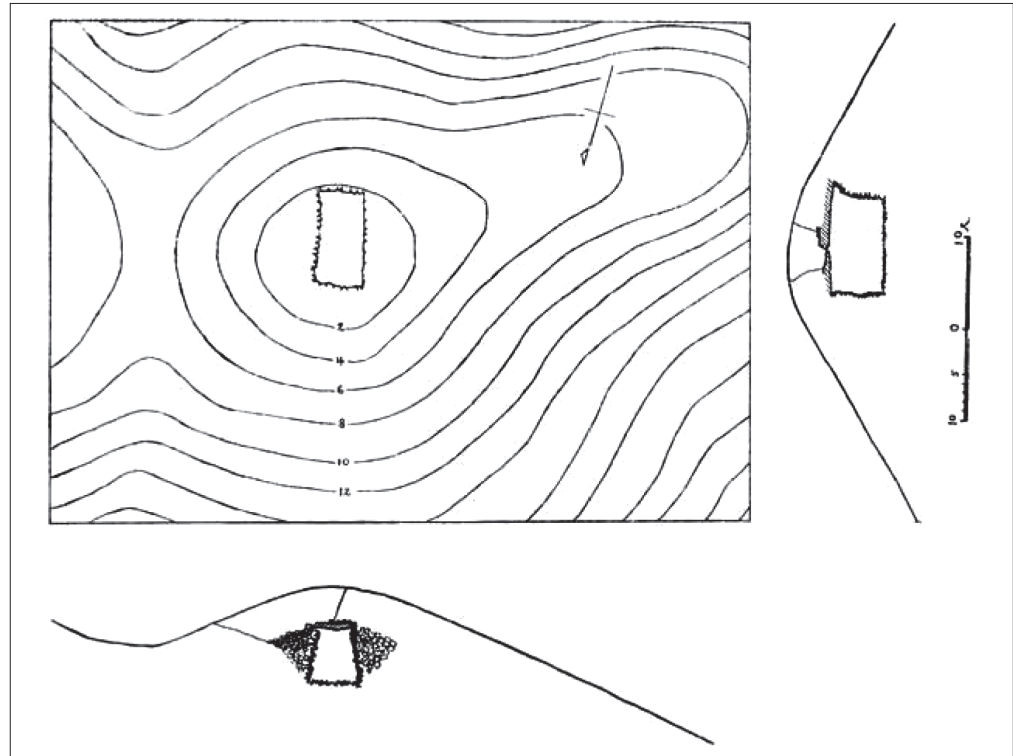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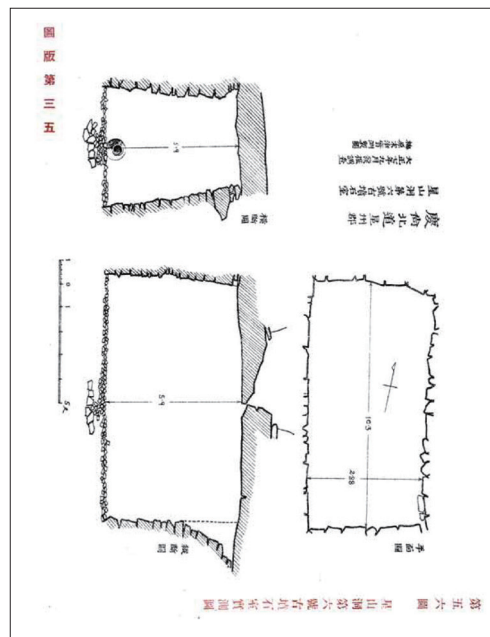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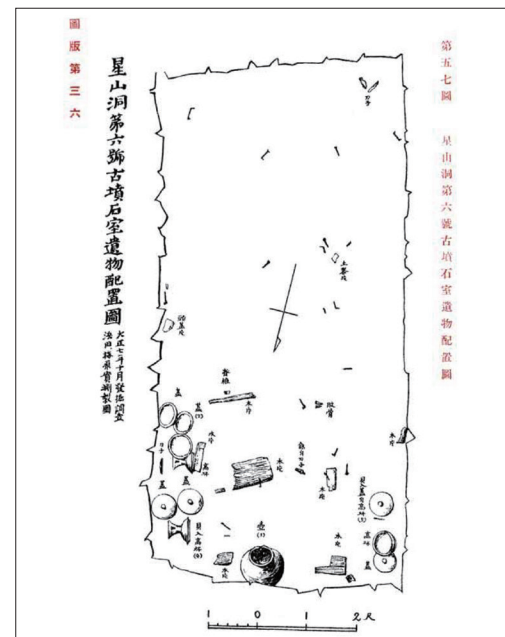
제6호분

성산동 제6호분은 제1호분(현 57호분)의 동쪽 약 40m 지점에 위치하며, 동·서·남쪽 삼면은 구릉의 경사면에 접해있다. 남-북쪽 방향을 장축방향으로 한 장방형의 석실로, 석실의 저면에서 봉토의 정상부까지 높이는 약 3m(10尺), 저경은 약 9m(30尺) 이다.

고분발굴은 10월 3일부터 복구공사를 포함해 10월 7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는 석실로 통하기 위해 봉토의 동쪽 부분에 트렌치를 설치하였는데, 이 트렌치를 통해서 동장벽의 벽석 일부를 들어내고 내부로 들어가 석실을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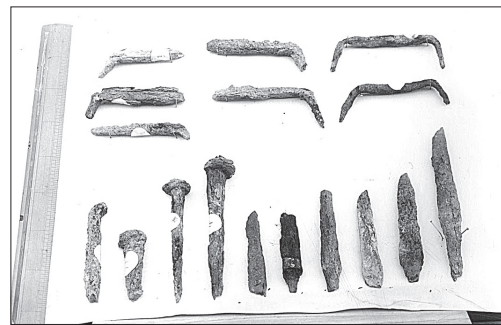
지표면 약 1.1m(3尺 8寸) 아래에서 석실의 천장석이 발견되었는데, 석실은 남북으로 긴 장방형으로 봉토의 중앙부에서 약간 남쪽으로 편재되어 있다. 길이는 약 3m(10尺), 폭은 0.9m(3尺)이다. 남쪽과 북쪽의 양단벽은 수직인데 반해 동쪽과 서쪽의 양장벽은 위로 내경하여 횡단면이 제형梯形을 보이는 형태로, 높이는 중앙부에서 약 1.8m(6尺)이다. 돌이 쌓여있는 수법은 사진과 도면을 통해 엿볼 수 있는데, 크고 작은 할석의 편평한 면을 내면으로 하여 쌓은 형식으로, 돌 사이의 공간은 꼭 맞는 소석편을 끼워 넣었다. 부분적으로 회반죽을 발랐던 흔적이 보인다. 또한 석실의 외부도 꼭 맞는 할석을 이용하였는데, 석실의 북단벽은 수직에 가깝지만 남단벽은 상반부는 바깥으로 급격하게 경사져 있어 이 부분이 횡구부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남벽은 석실의 출구로, 매장 후 외부에서 보강하여 부정형으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처럼 양장벽이 내경하고 남단벽의 상부가 바깥으로 경사져 있는 점은 이 석실의 구조유형이 횡구식임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천장석은 거대한 판석 3매를 이용하였고, 상부편에 두텁게 작은 소석재를 두었다. 바닥은 주먹크기를 넘는 석괴를 이용하여 지표면의 삭평면을 덮었다. 그 위에 자갈을 이용하여 부석하였는데, 그 부석층의 두께는 15~18㎝(5~6寸)이고 표면은 암갈색이다.

유물은 석실의 북벽에 인접하여 수 개의 토기 외에 철정, 목관 잔편 등 부석층의 도처에서 발견된다. 토기는 호 1점, 고배 5점이 출토되었고, 이 중 조개가 담진 고배가 주목된다. 철기류는 도자 6점, 철정 및 철송鐵鋌(꺾쇠), 목재편 등이 출토되었다.

이상의 제6호분은 도굴되어 유물이 빈약하지만, 제1호분, 제2호분에 비해 피장자의 위치가 열등하다고 볼 수 있다. 성별은 불명확하나 도검류가 없는 점으로 보아 여성으로 추정된다.

6호분 고분 실측도(朝鮮總督府 1922 도 53)

6호분 석실 실측도(朝鮮總督府 1922 도 56)

6호분 석실 유물배치도(朝鮮總督府 1922 도 57)

성산동 6호분 발굴 광경
(1918년 우메하라 조사, 건판 358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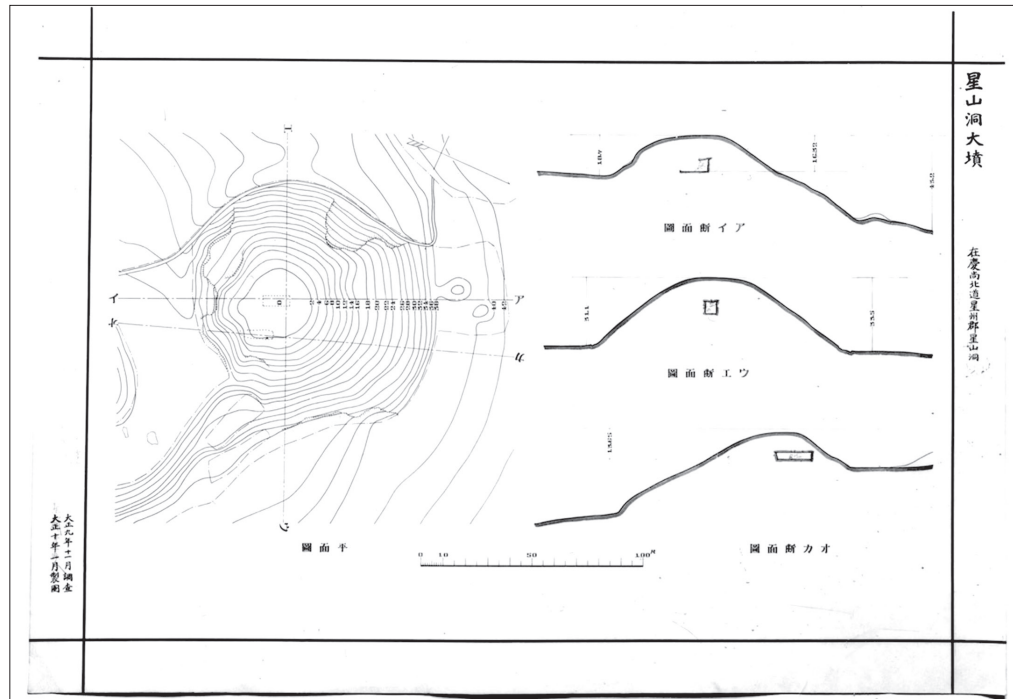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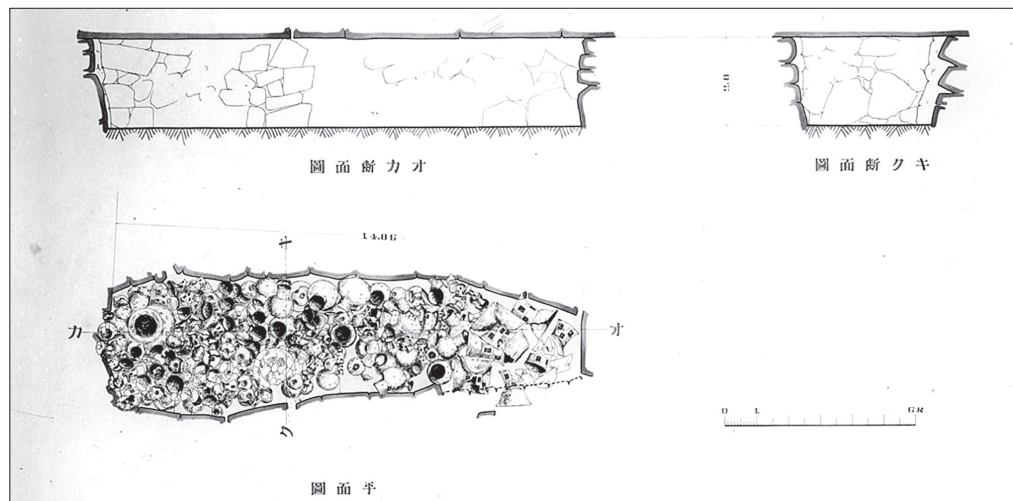
성산동 6호분 발굴 종료 후 광경
(1918년 우메하라 조사, 건판 358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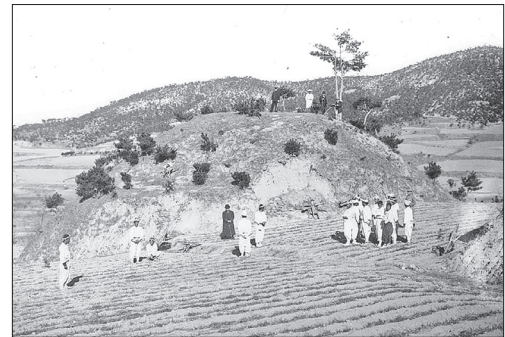
성산동 6호분 석실 내부 동북우 유물
(1918년 우메하라 조사, 건판 35828)

성산동 6호분 철정·철솥·도자
(1918년 우메하라 조사, 건판 21688)

성산동 6호분 출토 유개고배
(1918년 우메하라 조사, 건판 28152)

성산동 6호분 출토 유개고배
(1918년 우메하라 조사, 건판 28155)

대분大墳

야쓰이에 의해 조사된 성산동 대분은 현재 승왜마을 뒷산의 사면과 살망태마을 뒷산 소능선 최말단부 정부에 위치하는 고분으로, 1931년 발간된『대정12년도고적조사보고서』에 삽입된 도면자료만 확인되고, 자세한 조사상황은 알 수 없다. 고분은 같은 크기의 석실 2기가 장축을 남북방향으로 해 나란히 축조되었다. 서쪽에 있는 석실이 주실 주곽主槨이며 동쪽의 것은 부실 부곽副槨이다. 주곽의 규모는 길이 4m, 너비 1.5m, 높이 1.5m이다. 부곽에는 약 300여 점의 토기가 부장되어 있다.

성산동고분군 대분 봉토 실측도(朝鮮總督府 1931 건판 21020)

성산동고분군 대분 실측도(朝鮮總督府 1931 건판 21018)

성산동 대분 전경(1918년 야쓰이 조사, 건판 32084)

성산동 대분 전경(1918년 야쓰이 조사, 건판 32085)

성산동 대분 전경(1918년 야쓰이 조사, 건판 32086)

성산동 대분 발굴 전경(1918년 야쓰이 조사, 건판 32088)

성산동 대분 앞 기념촬영
(1918년 야쓰이 조사, 건판 32087)

성산동 대분 주실 입구 전경
(1918년 야쓰이 조사, 건판 32089)

성산동 대분 주실 입구 폐쇄 상태
(1918년 야쓰이 조사, 건판 32090)

성산동 대분 주실 입구 폐쇄 상태
(1918년 야쓰이 조사, 건판 32090)

성산동 대분 부실 토기 노출 광경
(1918년 야쓰이 조사, 건판 32092)

성산동 대분 부실 토기 노출 광경
(1918년 야쓰이 조사, 건판 32092)

성산동 대분 부실 토기 노출 광경
(1918년 야쓰이 조사, 건판 32094)

성산동 대분 부실 토기 노출 광경
(1918년 야쓰이 조사, 건판 320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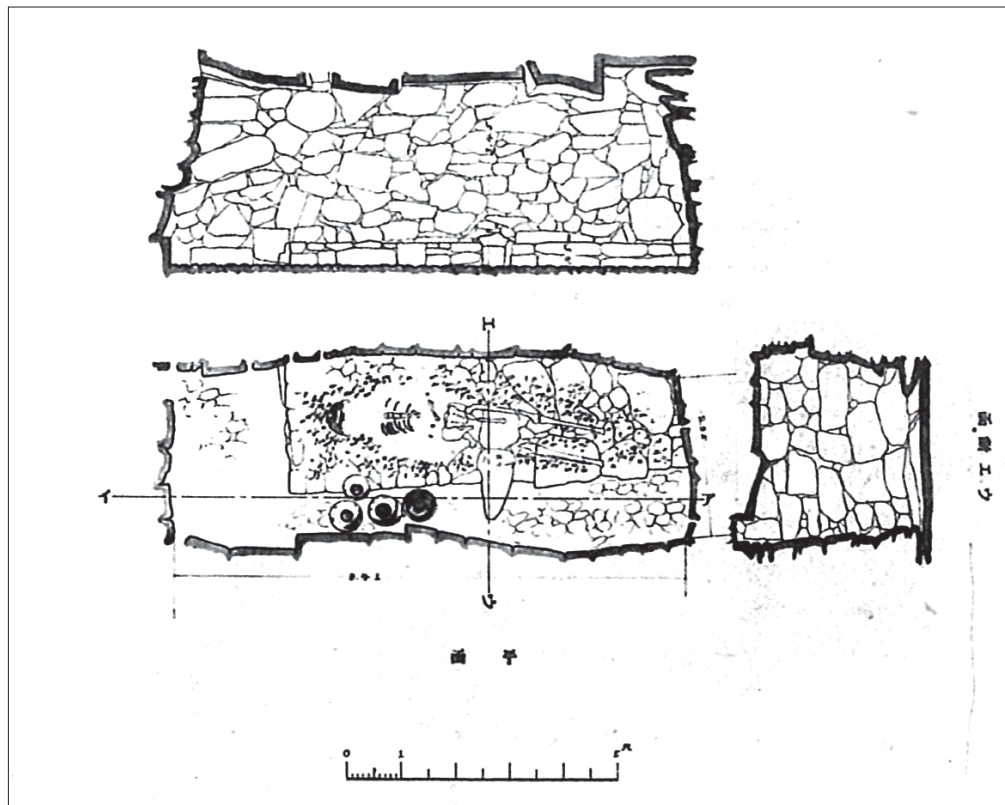
성산동 대분 부실 토기 노출 광경
(1918년 야쓰이 조사, 건판 32096)

성산동 대분 부실 토기 노출 광경
(1918년 야쓰이 조사, 건판 32097)

성산동 대분 부실 토기 노출 광경
(1918년 야쓰이 조사, 건판 32098)

성산동 대분 부실 토기 노출 광경
(1918년 야쓰이 조사, 건판 32100)

팔도분八桃墳

팔도분은 성산에서 북서로 뻗은 주능선이 서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생긴 북쪽 사면이 점차 낮아지면서 돌출한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야쓰이에 의해 조사되었으나 석실의 구조와 부장상태에 관한 도면과 사진 몇 장만 남아있다. 도면에서 확인된 팔도분의 규모는 길이 2.8m, 너비 0.9m, 높이 1m의 횡혈식석실로, 현실 내부에 장축방향으로 관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팔도분은 전형적인 6세기대 횡구식석실분의 구조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네 벽은 모두 내경하고 시상이 설치되어 있는 점이다. 특히 입구부가 확

성산동고분군 팔도분 석실 실측도(朝鮮總督府 1931 도 27)

성산동 팔도분 석실 내부
(1918년 야쓰이 조사, 건판 32103)

성산동 팔도분 석실 내부
(1918년 야쓰이 조사, 건판 32105)

실시되는 단벽부의 하부에는 비교적 큰 할석 2단이 설치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지상식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고, 입구부의 축조상태는 다른 벽면보다 정연하지 않다. 내경한 벽면 중에서 후벽부의 상부는 호상弧狀의 내경상태로 축조되어 있어 수직 벽면을 이루는 수혈식석실의 축벽 방식과 판이한 상태이다. 시상 위의 인골은 주부를 입구부 쪽으로 두고 신전장 상태로 안치되었음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朝鮮總督府, 1920,『大正六年度朝鮮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1921,『大正七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1931,『大正十二年度朝鮮古蹟調査報告』1册.

今西龍, 1937,「加羅疆域考」,『朝鮮古史の硏究』.

梅原末治, 1947,『朝鮮古代の墓制』, 座右寶刊行會.

梅原末治, 1972,『 朝鮮古代の墓制』, 東京國書刊行會,

金基雄, 1978,『伽倻の古墳』, 學生社.

金世基, 1987,「星州 星山洞古墳 發掘調査槪報」,『嶺南考古學』第3號, 嶺南考古學會.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고고학사전』.

啓明大學校行素博物館, 2006,『星州星山洞古墳群-第38·39·57·58·59號墳』.

02 수죽리고분군

水竹里古墳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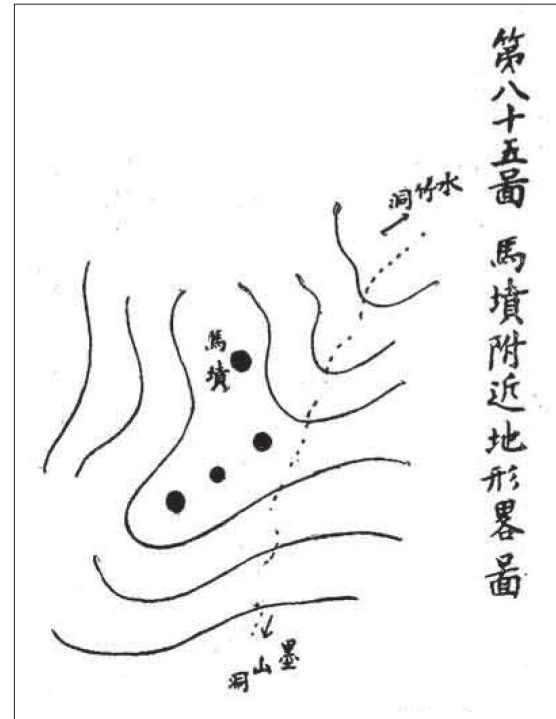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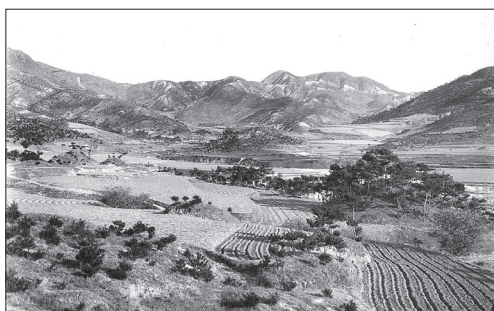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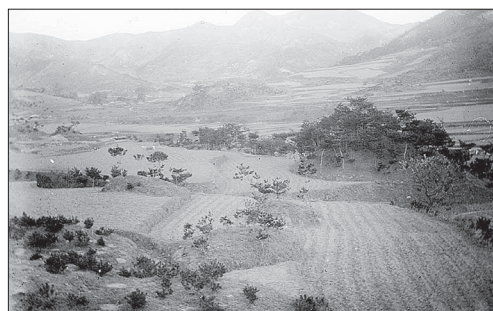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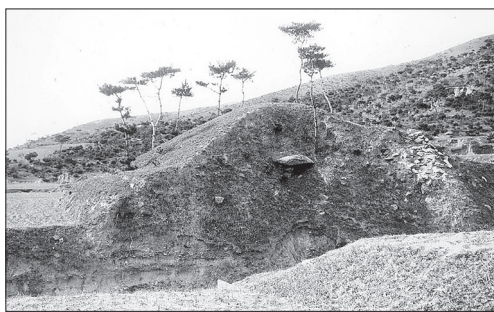
개요

월항면 수죽리고분군은 성주군과 칠곡군의 경계가 되는 봉화산 서쪽 사면 일대에 광범위하게 조성된 삼국시대 고분군이다. 고분군은 수죽리 풀모산못 북서쪽에 접한 해발 70m 내외의 야산 정부頂部와 사면, 관진재와 죽방마을 사이 양지편산(해발 166m)의 정부와 동쪽 능선, 죽방마을 남쪽을 감싸고 있는 야산의 능선과 사면 등에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이 중 양지편산의 정상부에서부터 동쪽 능선을 따라 봉분 지름이 20m가 넘는 대형분을 포함하여 약 50여 기의 고분이 밀집 분포하고 있으며, 봉화산 정상부에 위치하는 용각리고분군Ⅰ과도 연결되어 넓게 본다면 용각리고분군과 수죽리고분군은 봉화산에서 뻗어내린 능선에 자리잡은 같은 성격의 고분군으로 볼 수 있다.

마분 부근 지형약도(朝鮮總督府 1920 도 85)

1917년(대정 6년) 이마니시에 의해 이루어진 지표조사에 따르면, 수죽리고분군을 2개의 군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다. 제1군은 수죽동의 남쪽산에 북측에 있는 남군이고, 제2군는 수죽동 북쪽에 있는 산 남측에 있는 북군이다. 당시의 군청조사서에는 148기가 있다고 전해진다.

남군은 묵수동에서 북쪽을 향해 수죽동으로 이어진 길에는 고개가 있고, 이 고개와 맞닿아 있는 도로 왼쪽에는 4개의 고분이 있다. 그 북단에도 마분馬墳으로 불리는 고분이 있다. 마분은 1916년(대정 5년) 조사보고서 광주군편에 기술된 것과 같이 주분은 편평하고 봉토의 높이는 남쪽은 3m(10尺), 북쪽은 5.7m(19尺)이라고 한다. 고개 아래의 구릉 위에는 다수의 소형 고분이 군집해 있었고, 이들 축조되었을 때 마을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지표조사에서 언급된 수죽동 남군과 북군은 현재 수죽동고분군Ⅲ과 수죽동고

분군Ⅰ로 추정되는데, 수죽동고분군Ⅲ은 수죽리 하남마을과 용가리 묵산마을 사이의 능선 정상에서 풀모산마을에 이르는 사면과 능선부에 위치한다. 유적 내에서 직경 10m 이상의 봉토분 20여 기와 5~10m 규모의 봉토분 100여 기가 유존하고, 그 외 석곽묘를 포함하면 500여 기가 지표 하에 유존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죽동고분군1은 하남마을을 포함하는 독립능선 전면에 걸쳐 고분군이 위치한다. 이곳에 위치한 고분군들은 횡혈식석실분은 물론 수혈식석곽분과 석곽묘가 집중분포하는데, 봉토분의 경우 직경 15m 이상의 대형분이 10여 기, 10~15m의 중형분이 20여 기, 5~10m 규모의 소형분이 100여 기 이상 분포하고 있다. 고분 내에서 확인되는 성주양식 토기와 단각고배의 존재 등으로 보아 5~6세기에 걸쳐 성주지역의 주도세력 중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성주읍 일원의 성산리고분군과 금수면 명천리고분군과 더불어 성주지역의 3대 고분군으로 꼽을 수 있다.

수죽동고분군 전경(건판 32114)

수죽동고분군 서부 전경
(1917년 이마니시 촬영, 건판 31057)

수죽동고분군 일부(건판 32115)

석실분 내부(건판 32117)

조사내용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조사기록에 의하면 당시 드러난 봉토분과 노출된 석실을 중심으로 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건판 32114·31057은 마분 아래에서 보이는 수죽동 남쪽의 북쪽방향으로 이르는 수죽동고분군으로, 그 군은 대체로 작은편이고, 수죽동 남쪽의 동북경사지에 최대의 것이 있어 봉토의 높이가 남쪽 방향 10m(33尺), 북쪽 4.8m(16尺)이다. 그 소형분은 봉토 높이가 7m(23尺) 이다.

수죽동 남동쪽의 밭 가운데에는 묘광과 개석의 형태로 보이는 거석(건판 31056)이 있는데, 길이 2.7m(9尺), 폭 1.8m(6尺), 내지 2.6m(8尺 5寸)이다. 거석 아래쪽 양단에는

수죽동고분군 원경(1917년 이마니시 촬영, 건판 31217)

수죽동고분군 원경(1917년 이마니시 촬영, 건판 31210)

지석묘(1917년 이마니시 촬영, 건판 31056)

수죽동고분군 중 1기의 석실 입구
(1917년 이마니시 촬영, 건판 31097)

적석을 지탱한 흔적이 있다. 이를 지석묘로 보고 있다. 이는 용각리지석묘Ⅰ~Ⅲ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용각리 저암마을 마을회관 앞에 모여 있는 상석 6기 중 하나로 추정된다.

수죽동고분군은 도굴로 인해 묘광이 노출된 것이 보인다.(건판 31097) 수남동 북쪽에 있는 하나의 고분은 봉토의 절반이 소실되었고, 묘광의 횡단면이 드러나있다. 현재 봉토의 높이는 북쪽으로 1.4m(4尺 5寸), 동쪽으로 3m(10尺) 정도로, 묘광의 동쪽에서 남쪽으로 약 25도 틀어진 형태이다. 석실은 길이 3m(10尺 1寸)이며 현재 앞면만이 온전히 남아있고, 개석 3개가 확인된다. 개석은 1.7m(5尺 8寸)이다. 측벽의 좌우양측은 야석野石이 산적해 있으며 묘광의 상부폭은 0.5m(1尺 8寸), 하부는 1.3m(4尺 3寸) 높이는 1.4m(4尺 7寸)이다. 앞쪽의 측벽은 거의 수직에 가깝고 그 상반부는 적석이 산집해 이중삼중으로 쌓여있으며 묘광의 외부와 차이를 두어 돌을 쌓았다. 이른바 횡혈식의 구조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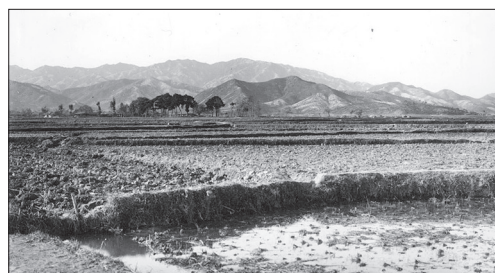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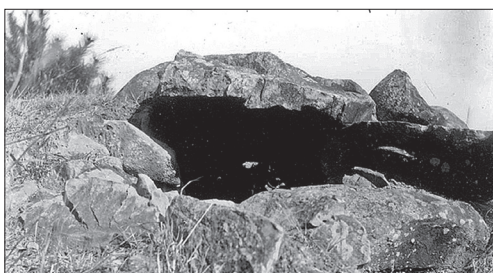
[참고문헌]

朝鮮總督府, 1920, 『大正六年度朝鮮古蹟調査報告』.
啓明大學校博物館, 1998, 『星州 農水路建設地域(2次)文化遺蹟地表調査報告』.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한국고고학전문사전-고분편』.

03

영봉산고분군
迎鳳山古墳群

벽진면 수촌리고분군에 해당하는 고분으로, 해평들을 바라보는 나지막한 야산의 구릉위에 입지한 고분군이다. 1917년(대정 6년) 이마니시에 의해 이루어진 조사에서 영봉산고분으로 보고되었으나, 자세한 위치는 알 수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분은 영봉산 지장사지의 뒤쪽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고, 발견당시 이미 봉토가 유실되었고 석축과 묘광의 상반부가 노출되었다고 한다. 묘광의 깊이는 1m(3尺 3寸) 이상이고, 길이는 하부가 2.7m(9尺) 정도, 상부가 1.6m(5尺 3寸) 정도이고, 폭은 하부가 1.8m(6尺) 상부가 0.9m(3尺)이다. 개석은 2매만 존재한다고 한다. 이 고분은 현재는 유실되어 확인할 수 없지만 벽진면에 위치한 고분군들 중 관련성이 있는 고분을 유추해보면 벽진저수지 서쪽에 위치한 '연봉산'의 남동쪽 구릉상에 자산리고분군이, 저수지 동남쪽에 운정리고분군이 위치하는데, 이들 고분군 역시 봉분이 유실되고, 석곽의 개석과 벽으로 보이는 장대석과 할석이 노출되어 있는 고분이 있어 주목된다.

영봉산고분군 원경(건판 32118)

영봉산고분군 원경(1917년 이마니시 촬영, 건판 31140)

영봉산고분 석실 전경(1917년 이마니시 촬영, 건판 31077)

영봉산고분(건판 32119)

[참고문헌]

朝鮮總督府, 1920, 『大正六年度朝鮮古蹟調査報告』.

啓明大學校行素博物館, 2006, 『星州星山洞古墳群-第38·39·57·58·59號墳』.

04 명천리고분군

明川里古墳群

개요

성주군 금수면의 동남쪽 할미산성이 자리하고 있는 해발 235m의 야산 능선과 사면에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고분군의 범위는 남으로는 대가면 자리섬마을과 개정지 일대, 북으로는 고름재 일대, 서로는 현재의 금수면 소재지에 위치한 금수초등학교, 동으로는 금수 명천리의 덕산소류지 일대로 볼 수 있다.

할미산성의 북쪽 능선을 따라 돌출된 지점마다 직경 25m 내외의 대형 봉토분들과 직경 10m~15m의 중형 봉토분들이 분포하고 그 주위의 지맥 능선에도 일부 중형 봉토분과 사면에 소형 석곽묘가 분포하고 있다.

육안으로 확인되는 고분의 수가 약 30~40여 기에 이르며, 지하에 유존한 유구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출된 내부구조와 토기편을 보면 매장주체부는 대부분 판석을 세우거나 할석을 쌓아 벽석을 만든 석곽이고 토기는 이단투창고배, 일단투창고배, 대부장경호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명천리고분군의 조영연대는 5~6세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사내용

1917년(대정 6년) 이마니시에 의해 조사된 보고로는 5기가 유존한다고 확인되지만 보고서에는 고분명만 언급되고,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다.

명천리고분군은 금수면 일대와 성주읍 일대가 한 눈에 조망되는 탁월한 입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발굴조사된 성산동고분군만큼이나 잔존한 봉분의 크기나 상태가 양호하고 그 규모 또한 성산동고분군에 뒤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5~6세기 당시 성주지역 내에 존재하였던 유력 집단의 묘역으로 추측된다. 더불어 명천리고분군이 위치한 곳은 고령지역과 성주지역을 잇는 교통의 요지, 즉 성주지역의 관문과도 같은 곳에 해당되는데, 이를 통해 당시 대가야의 대외적 진출과 그에 따른 신라의 방어 관계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朝鮮總督府, 1920, 『大正六年度朝鮮古蹟調査報告』.
성주군, 2011, 『星州明川里古墳群 精密地表調査報告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한국고고학전문사전-고분편』.

05 용각리고분군
龍角里古墳群

개요

용각리고분군은 백천 중류역에 형성된 넓은 평야를 끼고 있는 월항면 지역으로 성주의 동쪽 경계인 봉화산 정상에 자리한 용각산성의 서쪽, 질매재의 정상부 능선과 용각리 필산마을 서쪽에 접하여 길게 뻗어 내린 능선과 사면 일대에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조사내용

1917년(대정 6년) 이마니시에 의해 이루어진 지표조사 보고에 따르면 필산동에서 각산에 이르는 고개 정상부의 도로의 서쪽 방향으로 3기가 병렬로 위치하고, 성주의 남쪽 157m 고개에 2기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당시의 지도에 표기된 위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용각리고분군Ⅱ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실제 질매재의 정상부 능선을 따라 직경 25m 내외, 높이 2.5m 내외의 대형봉토분 5기가 있다. 이 능선은 서쪽으로 이어져 월항면 수죽리로 이어지며 수죽리고분군과 같은 군을 이루는 고분군이다. 그러나 이 5기의 봉토분은 수죽리고분군에 비해 봉토의 규모가 월등하고 해발 400m 이상의 산 정상부에 입지하고 있는 점에서 수죽리고분군의 최고 위계 고분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 이러한 봉토분에 인접하여 대형분의 배장곽일 가능성이 큰 길이 2.5m 내외의 중·소형 석곽묘들도 산재해 있어 수 기의 대형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죽리고분군과 같이 밀집도가 매우 높은 고분군으로 추정된다.

한편, 필산마을 서쪽에 접한 능선의 정부頂部와 사면 일대에는 봉분 지름 10m 내외의 봉토분 10여 기가 확인된다. 특히 질매재 정상부 능선에 입지한 고총들은 해발 400m 이상의 높은 산에 있어, 백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고분군 중 최고 위계의 고분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성주지역에서 성산동고분군, 명천리고분군과 함께 3대 중심 고분군으로 불리고 있다. 한편 고분군 내에서 확인되는 유물과 질매재 능선 정상부에 노출된 석곽의 존재 등으로 미루어 용각리고분군의 축조시기는 5~6세기 대로 추정할 수 있으나, 주로 5세기 대를 중심으로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朝鮮總督府, 1920,『大正六年度朝鮮古蹟調查報告』.
啓明大學校博物館, 1998,『星州 農水路建設地域(2次)文化遺蹟地表調查報告』.

06 신지동고분군

新知洞古墳群

1917년(대정 6년) 이마니시에 의해 실시된 지표조사에서 선남면 신지동에서 14기의 고분이 확인된다고 보고되었으나, 그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또한 현재 선남면에는 신지동은 존재하지 않는 지명이다.

[참고문헌]

朝鮮總督府, 1920, 『大正六年度朝鮮古蹟調査報告』.

07 봉양동고분군

鳳陽洞古墳群

1917년(대정 6년) 이마니시에 의해 실시된 지표조사에서 4기가 확인된다고 보고되었으나, 현재로선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청파면 봉양동은 1934년 수륜면에 통합되었다. 고분군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참고문헌]

朝鮮總督府, 1920, 『大正六年度朝鮮古蹟調査報告』.

Ⅷ. 고성

01 송학동고분군

02 동외동패총

03 철성패총

01 송학동고분군
松鶴洞古墳群

개요

고성 송학동고분군은 소가야의 중심 고분군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성평야의 서쪽 무학산으로 불리는 작은 구릉 정상부에 1호분과 그 주변에 인접하여 봉토분 8기가 현재 남아 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2월에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에 의해 현재 송학동고분군 1호분의 1A-1호를 중심으로 약식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당시 조사는 정식 보고 없이 유리건판 사진만 남아 있다.

이후 2000~02년에 걸쳐 동아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송학동 1호분이 발굴조사되었다. 규모와 출토유물을 볼 때 5세기 중반 이후부터 6세기 중반 사이 약 1세기에 걸쳐 축조된 소가야 또는 고자국古自國의 최고 수장급 무덤으로 추정되며, 무덤의 구조와 축조수법, 출토유물을 통해 고분 축조집단이 주변의 제국들과 활발한 교류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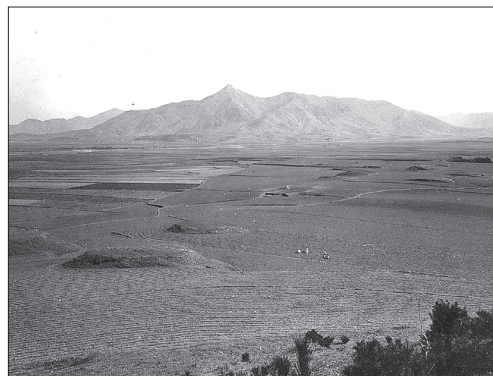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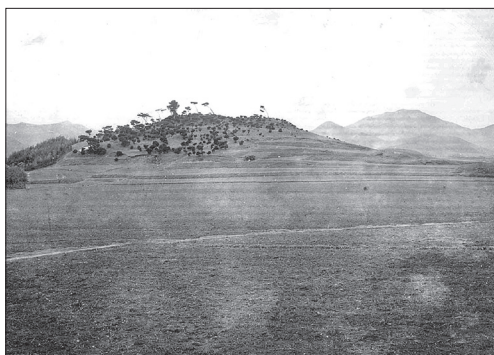
조사내용

고성지역에 대한 고적조사는 1914년 도리이 류조에 의해서 실시되었다. 도리이는 조선총독부의 촉탁으로 1913년 12월에 조선으로 건너와서, 1914년 1월 12일부터 동년 3월 31일까지 '제3차 사료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때 사진촬영 담당으로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사와 준이치澤俊一를 대동하였다.

고성지역 조사는 1914년 2월에 실시했는데, 조선에서의 답사소식을 전한 엽서에는 '…통영으로 돌아왔다. 체질조사는 더욱 재미있고 대형의 표형고분을 발굴했는데 갑주와 도검이 출토되었다. 모두 일본의 것과 동일하다. 오늘 패총을 보았다. 내일 다시 남해도에서 통영으로 갈 생각이다.…'라고 적었다. 여기서 말하는 표형분이 발굴하였던 송학동고분을 말한다.

실제로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유리건판 자료 중에서 그와 관련된 사진을 발견할 수 있다. 건판 2003은 고성 송학동고분에 올라서 주변을 찍은 사진으로 판단되는데 군데군데 봉토고분이 조영되었음이 인정된다. 분구 기저에 조선 여성 2명이 서있는데 이는 사진의 공간성과 타자성을 드러내기 위한 설정으로 보인다. 건판 2004도 고성 송학동고분에 올라서 그 주변의 고분군을 촬영한 것이다. 원래 송학동고분군의 주변으로 많은 봉토고분이 있었음이 드러나는 사진이다.

건판 2007은 고성 송학동고분을 찍은 원경사진이다. '3.2.7'이란 주기가 건판에서 확인되는데 이는 사진을 촬영한 날짜가 대정大正 3년 즉, 1914년 2월 7일이란 의미이다.

고성 고분군 전경(1914년 도리이 촬영, 건판 2003)

고성 고분군 전경(1914년 도리이 촬영, 건판 2004)

고성 표형고분 전경(1914년 도리이 촬영, 건판 2007)

고성 표형고분 전경(1914년 도리이 촬영, 건판 2008)

고성 표형고분(송학동 1A-1호분) 전경
(1914년 도리이 촬영, 건판 2009)

고성 표형고분(송학동 1A-1호분) 전경
(1914년 도리이 촬영, 건판 2010)

고성 표형고분(송학동 1A-1호분) 전경
(1914년 도리이 촬영, 건판 2011)

송학동고분 전방으로 작물이 없는 너른 밭이 펼쳐지고 그 중앙에 표형으로 된 고분의 형상이 분명히 드러난다. 건판 2008은 근경사진인데 원경사진과 달리 반대방향에서 촬영된 것이다. 송학동고분군의 사면으로 키가 작은 소나무가 자라고 정상부에 제법 키가 큰 소나무가 서 있으며 그 사이로 정장차림의 조사자와 군인, 그리고 현지에서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조선인 청년들의 모습이 보인다.

건판 2009에는 송학동고분군을 굴착한 모습이 촬영되었다. 구덩이 한 가운데에 두껍고 긴 개석이 모습을 드러내었으며 벽석의 일부도 확인된다. 개석의 크기를 사진에 표현하기 위하여 휴대용의 접자를 두고 촬영하였다. 건판 2010은 같은 송학동고분의 또 다른 매장주체부를 발굴한 광경이다. 송학동고분의 연접 분구 중에서 높은 쪽에 해당하는 석곽으로 보인다. 역시 길고 두꺼운 개석이 나란히 노출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제껴낸 모습으로 판단된다. 그 위에 맨발의 조선청년이 앉아 있다. 개석을 열고 확보된 구덩이로 내려가서 석곽 속이 유물을 수색하는 위험한 일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건판 2011은 개석의 일부를 밀어내고 석곽 내부로 침투할 수 있는 구멍이 확보된 사진인데 개석에 줄자를 걸치고 사진을 찍었다. 건판 2010과는 다른 매장추체부의 개석이거나 같은 고분의 반대쪽에서 노출시킨 개석일 수도 있다.

건판 2012는 유리건판의 측면에는 '3.2.9'라는 주기가 있다. 고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이는 철기편들을 찍은 사진이다. 출토된 철기에는 대금구와 다수의 판상철부, 그리고 철겸 편이 있다. 그 중에는 찰갑의 파편으로 보이는 철기들도 많은데, 만약 국립중앙박물관에 자료가 남아 있다면 재보고가 필요하다. 건판 2023도 1914년 2월 9일에 촬영된 것인데 대부분 완형토기들이다. 통형기대와 대부장경호 등 신라토기와 함께 가야계의 장경호와 대부호 등이다. 촬영된 날짜는 송학동고분 출토 철기류와 동일하다. 이 역시 송학동고분 출토유물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성 표형고분 출토 갑옷편
(1914년 도리이 조사, 건판 2012)

고성 고분 출토 토기(1914년 도리이 조사, 건판 2023)

송학동고분의 원경사진은 1918년에도 촬영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건판 31423인데 유리건판에는 '180218'이라 기록되어 있다. 이는 1918년(대정 7년)에 촬영된 218번째의

유리건판 사진이라는 의미이다. 촬영은 도리이 류조 조사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야쓰이 세이이쓰谷井濟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 건판 31424는 1918년에 촬영된 219번째의 사진인데, 217번째의 사진에 비하여 좀 더 고분에 접근해서 찍은 사진이다. 물론 야쓰이 세이이쓰 본인이 촬영한 사진일 것이다.

송학동고분군 원경(1918년 야쓰이 촬영, 건판 31423)

송학동고분군 전경(1918년 야쓰이 촬영, 건판 31424)

야쓰이 세이이쓰의 발굴조사와 관련해서는 유구의 형상과 출토 유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전해지지 않는다. 그가 실시했던 고적조사에 대한 공식적인 약보고 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東亞大學校博物館, 2005,『固城 松鶴洞古墳群』.

02 동외동패총
東外洞貝塚

개요

고성 동외동패총은 고성패총 또는 당산패총으로 불리는 유적으로 행정구역 상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245-1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일제강점기인 1917년 도리이 류조 등에 의해 발굴조사가 처음 시작되었으며, 해방 이후 1969년과 1970년, 2차에 걸쳐 국립중앙박물관이 유적이 위치한 해발 32.5m의 낮은 구릉의 남서 사면 일부를 조사하였고, 1974년 동아대학교박물관에 의해 남서사면 말단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또 주변으로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의례수혈 등 생활유적 및 제사유적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조사내용

고성패총은 도리이 류조의 제7차 사료조사에서 처음 조사되었다. 제7차 사료조사는 1917년 10월 24일에서 1918년 1월 14일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사진촬영은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고용원인 사와 준이치가 수행했다.

고성에서의 조사는 12월에 이루어졌다. 답사 내용을 전한 엽서에는 ‘ … 25일에 고성에 도착하여 26일부터 28일에 걸쳐 고성군 철성면 수남동 및 동외동 당산에서 패총을 발굴조사하여 다수의 유물을 얻었다. 동월 28일에 고성을 출발하여 … ’라고 적혀 있다.

이와 관련된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유리건판 자료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유리건판에는 고성패총이나 당산패총으로 주기하였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학계에서 알고 있는 동외동패총이다.

사진은 노출을 달리하였지만 같은 지점에서 촬영한 것으로 패총의 원경사진이다. 동외동의 독립구릉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정상부 평탄면의 주위에는 단부가 잘 드러나는데 인공적으로 조성된 것이 분명하다. 비록 성벽은 없지만 방어를 의식한 성채城砦시설일 가능성이 높다. 유사한 유적으로 경산 임당토성과 김해 봉황토성 등을 들 수 있다.

당산패총 전경(건판 4893)

당산패총 패층(건판 4894)

동외동패총 역시 ‘동외동토성’이라 불러야 될 것인데 이것이 고성지역을 대표하는 유적이라는 의미에서라면 앞으로 ‘고성토성’이라 부르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토성이 송학동고분군의 조영과 궤를 같이 하는지 아니면 변·진한 시기로 소급될 수 있을 지는 앞으로 학계의 논의와 추가 발굴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참고문헌

國立中央博物館, 1992, 『固城貝塚 發掘調査報告書』.

동아대학교박물관, 1984, 『상노대도 -부: 동래복천동고분·고성 동외동패총』.

03 철성패총

鐵城貝塚

개요

고성 철성패총은 현재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며, 일제강점기 1914년과 1917년, 도리이 류조 등에 의해서 조사되었다. 현재 송학동고분군 인근에 위치한 송학동패총이 철성패총일 가능성이 있으나,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명확하지 않다.

조사내용

고성의 철성패총은 1914년 도리이 류조와 사와 준이치가 답사하고 사진촬영한 패총이다. 수남리패총으로도 기록되어 있다. 1914년 1월 12일부터 동년 3월 31일까지 실시된 제3차 사료조사에서 발견하고 조사한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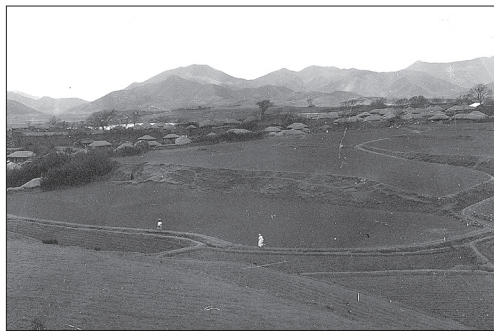
1910년대에는 고성읍이 일시적으로 철성으로 불렸다. 1914년 2월 9일에 실시된 조사내용을 적은 엽서에는 ‘… 대형의 표형고분을 발굴했는데 갑주와 도검이 출토되었다. 모두 일본의 것과 동일하다. 오늘 패총을 보았다. …’ 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말한 패총이 바로 철성패총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된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유리건판 자료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3.2.8’이라고 주기된 유리건판 1장과 ‘3.2.9’라고 적힌 유리건판이다. 대정 3년 즉, 1914년 2월 8일과 9일에 촬영했다는 의미인데 원경사진과 근경사진으로 구성된다. 고성 송학동고분의 원경 촬영이 2월 7일이며 2월 8일과 9일에 걸쳐 발굴조사와 사진촬영이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고분발굴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진촬영 전담인 사와 준이치를 대동하고 주변의 패총 답사를 감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성 송학동고분에서 가까운 패총이라면 고성패총, 즉 동외동패총이 대표적이지만 사진 속의 지형은 동외동패총과는 다르다. 송학동고분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동외동패총과는 다른 패총의 존재가 상정된다. 현재 고성 송학동고분의 동쪽에 송학동패총이 알려지는데 그 거리로 보아 이것이 철성패총의 가능성이 있으나, 앞으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

철성패총은 1917년에 도리이 류조에 의해서 다시 조사된다. 1917년 조사는 도리이에 의해 이루어진 제7차 사료조사인데, 위에서 살핀 것처럼 동년 10월 24일에서 1918년 1월 14일에 걸쳐 현지조사가 실시되었다. 물론 이 때에도 사진촬영도 조선총독부박물관 고용원인 사와 준이치가 수행했다.

고성에서의 조사는 12월에 이루어졌는데 답사 내용을 전한 엽서에는 '… 25일에 고성에 도착하여 26일부터 28일에 걸쳐 고성군 철성면 수남리 및 동외동 당산에서 패총을 발굴 조사하여 다수의 유물을 얻었다.'라고 기록했다. 기록에는 1917년에 2군데에서 패총을 조사한 것이 드러난다. 철성면 수남리패총과 동외동패총이다. 그런데 이 때 촬영된 수남리패총의 원경과 1914년에 촬영된 고성 철성패총의 원경을 비교하면 둘이 동일한 유적임이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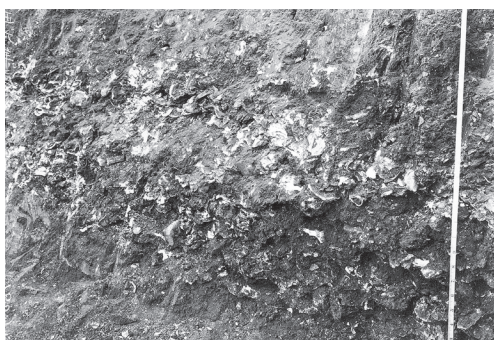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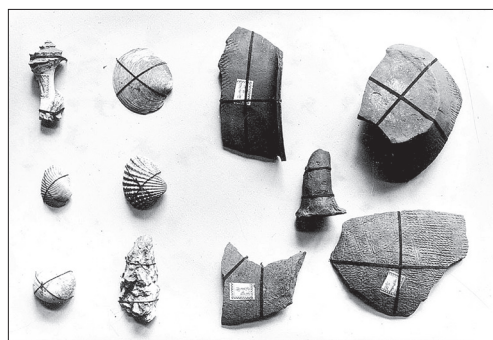
유리건판으로 보건데 1917년에는 패총의 발굴조사를 감행한 것이 드러난다. 단면상에 패각이 드러나며 토기편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출토된 토기의 사진이 있는데 경질의 타날문토기와 연질 평저호, 파수 등의 유물이다. 대체로 4세기대의 유물이여서 철성패총(수남리패총)이 가야시기의 생활유적임을 알려 준다.

고성읍 철성 부근 패총(1914년 도리이 촬영, 건판 2015)

수남리 패총 전경(건판 4888)

고성읍 철성 부근 패총(1914년 도리이 촬영, 건판 2017)

고성읍 철성 부근 패총 단면
(1914년 도리이 촬영, 건판 2016)

수남리패총 발굴 후 단면(건판 4884)

수남리패총 발굴 후 단면(건판 4885)

수남리패총 포함층(건판 4886)

수남동패총 출토 토기편(1914년 도리이 조사, 건판 2490)

참고문헌

東亞大學校博物館, 2005,『固城 松鶴洞古墳群』.

가야
자료
총서

Collections of
Data
on Gaya

가야 일제강점기 자료편

Documents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on Gaya

조사 연표

조사 연표[1]

연도	지역	유적	유구(지역)	조사유형	조사자	페이지
1907.8.	김해	회현리패총	패총 서쪽 단애부	시굴 조사	이마니시 류(今西龍)	16
1907.10.	김해	회현리패총	패총 서쪽 단애부 북편	시굴 조사	시바타 조헤이(柴田常惠)	16
1909.12.	김해	회현리패총	위치 미상	시굴 조사	야쓰이 세이이쓰(谷井濟一)	17
1910.10.	함안	말이산고분군	백사리고분군으로 조사	현황 조사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45
1910.10.	고령	지산동고분군	소형 고분 2~3기 (위치미상)	발굴 조사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야쓰이 세이이쓰(谷井濟一), 구리야마 슌이치(栗山俊一)	115
1910.10.	고령	전 대가야왕궁지		현황 조사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야쓰이 세이이쓰(谷井濟一)	143
1910.10.	고령	주산산성		현황 조사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야쓰이 세이이쓰(谷井濟一)	145
1910.10.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현황 조사	세키노 다디시(關野貞)	86
1910.10.	진주	수정봉·옥봉고분군	수정봉2 · 3호분, 옥봉7호분	발굴 조사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야쓰이 세이이쓰(谷井濟一)	76
1914.1.	김해	회현리패총	패총 서쪽	발굴 조사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19
1914.2.	고성	송학동고분군	현 1호분(1A-1호)	발굴 조사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178
1914.2.	고성	철성패총		현황 조사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사와 준이치(澤俊一)	183

1 조사 연표에 기술된 내용은 필자들의 원고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다음 자료를 참고로 일부 추가하였다.
영남고고학회, 2013, 『일제강점기 영남지역에서의 고적조사』, 학연문화사.
國立金海博物館, 2014, 『김해 회현리패총』.
國立金海博物館, 2015, 『유리건판으로 보는 창녕 교동고분군』.
國立金海博物館, 2017, 『咸安 末伊山 4號墳(舊 34號墳)』.

연도	지역	유적	유구(지역)	조사유형	조사자	페이지
1914.3.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현황 조사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86
1914	고령	지산동고분군	주산고분군으로 조사	현황 조사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112
1914	함안	말이산고분군	현 1호분	발굴 조사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47
1915	함안	남문외고분군	석곽묘 1기(위치미상)	발굴 조사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	66
1915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현 Ⅰ~Ⅲ군	현황 조사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	86
1915.6.	고령	지산동고분군	갑 · 을 · 병호분(위치미상)	발굴 조사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 가토 간가쿠(加藤灌覺)	116
1915.6.	김해	회현리패총	패총 서쪽 단애부(K구)	시굴 조사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	16
1917.10.	함안	말이산고분군	1~45호분 · 번외1~5호분 (현~27 · 30 · 32~37 · 75 · 86 · 87 · 93 · 115호분, 일부 위치 미상) 현황조사, 5 · 34호분(현25 · 4호분) 발굴조사	현황 조사, 발굴 조사	이마니시 류(今西龍)	47
1917	함안	남문외고분군	46~60호분 · 번외6~8호분	현황 조사	이마니시 류(今西龍)	66
1917	함안	전 안라왕궁지		현황 조사	이마니시 류(今西龍)	71
1917	함안	안곡산성		현황 조사	이마니시 류(今西龍)	73
1917	함안	칠원산성	유원리산성으로 조사	현황 조사	이마니시 류(今西龍)	74
1917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현 Ⅰ~Ⅲ군	현황 조사	이마니시 류(今西龍)	86
1917	창녕	계성고분군	1~22호분	현황 조사	이마니시 류(今西龍)	105
1917	창녕	영산고분군	1~8호분	현황 조사	이마니시 류(今西龍)	108
1917	고령	지산동고분군	12 · 18 · 22호분 (현 56 · 71 · 131호분 추정)	발굴 조사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 이마니시 류(今西龍)	119
1917	고령	박곡리고분군		현황 조사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	134

연도	지역	유적	유구(지역)	조사유형	조사자	페이지
1917	고령	월산리고분군	1·2기(석곽묘, 위치 미상)	발굴 조사	구로이타 가쓰미(黒板勝美)	136
1917	고령	본관동고분군	읍내면북부군고분군으로 조사	현황 조사	구로이타 가쓰미(黒板勝美)	138
1917	고령	전 대가야왕궁지		현황 조사	구로이타 가쓰미(黒板勝美)	143
1917	고령	주산성		현황 조사	구로이타 가쓰미(黒板勝美)	145
1917	고령	사부리고분군		현황 조사	구로이타 가쓰미(黒板勝美)	139
1917	고령	기산리고분군		현황 조사	구로이타 가쓰미(黒板勝美)	140
1917	고령	용리고분군		현황 조사	구로이타 가쓰미(黒板勝美)	141
1917	고령	노곡리고분군		현황 조사	구로이타 가쓰미(黒板勝美)	142
1917	성주	성산동고분군	1·2·3소군 46기	현황 조사	이마니시 류(今西龍)	150
1917	성주	수죽리고분군		현황 조사	이마니시 류(今西龍)	170
1917	성주	영봉산고분군		현황 조사	이마니시 류(今西龍)	173
1917	성주	신지동고분군		현황 조사	이마니시 류(今西龍)	176
1917	성주	봉양동고분군		현황 조사	이마니시 류(今西龍)	176
1917	성주	명천리고분군		현황 조사	이마니시 류(今西龍)	174
1917	성주	용각리고분군		현황 조사	이마니시 류(今西龍)	175
1917.12.	고성	동외동패총	위치 미상	발굴 조사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사와 준이치(澤俊一)	182
1917	고성	철성패총	위치 미상	발굴 조사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사와 준이치(澤俊一)	183
1918.1.	김해	회현리패총	패총 서쪽 단애부 북편	발굴 조사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19

연도	지역	유적	유구(지역)	조사유형	조사자	페이지
1918.9. ~10.	성주	성산동고분군	1·2·6(현 56·57·62호분)	발굴 조사	하마다 코사쿠(濱田耕作),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	153
1918	성주	성산동고분군	성산동대분·팔도분 (현 48·53호분)	발굴 조사	야쓰이 세이이쓰(谷井濟一)	164
1918.10.	고령	지산동고분군	1(현 409호분 추정)· 2(현 408호분 추정)·3호분	발굴 조사	하마다 코사쿠(濱田耕作),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	122
1918.10.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교동 21·31호분 (위치 미상)	발굴 조사	하마다 코사쿠(濱田耕作),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	96
1918	고성	송학동고분군	위치 미상	현황 조사	야쓰이 세이이쓰(谷井濟一)	178
1918.12.	함안	말이산고분군	16·26호분(현 13·12호분)	발굴 조사	야쓰이 세이이쓰(谷井濟一)	52
1918.12.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교동 5~8호분 (현 Ⅰ군 5~8호분)	발굴 조사	야쓰이 세이이쓰(谷井濟一)	89
1919.1.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교동 10~12·89호분 (현 Ⅰ군10~12호분·Ⅱ군 10호분)	발굴 조사	야쓰이 세이이쓰(谷井濟一)	92
1920.10.	김해	회현리패총	패총 서쪽 단애부, 구릉 중앙부	발굴 조사	하마다 코사쿠(濱田耕作),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	22
1920.11.	양산	북정리고분군	부부총(현 10호분)	발굴 조사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 바바 제이치로(馬場是一郎)	32
1920	고령	지산동고분군	절상천정총(위치 미상)	발굴 조사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	128
1921.9.	양산	다방리패총	위치 미상	시굴 조사	하마다 코사쿠(濱田耕作),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	41
1922.5.	양산	다방리패총	위치 미상	발굴 조사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 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	41
1931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교동 116·117호분 (현 Ⅱ군15·22호분)	발굴 조사	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	106
1934.12 ~1935.1.	김해	회현리패총	구릉 정상부	발굴 조사	가야모토 가메지로(榧本龜次郞)	26
1938	고령	지산동고분군	39호분(현 5호분) 및 고분 3기(위치 미상)	발굴 조사	아리미쓰 교이치(有光教一), 사이토 다다시(齊藤忠)	129

가야 자료 총서
Collections of Data on Gaya

가야 일제강점기 자료편

Documents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on Gaya

총괄 김삼기

기획 강동석, 정인태, 민경선, 김지연

집필 정인성, 김동호, 김은경, 박장호, 주홍규

편집·교정 강동석, 정인태, 김민범, 신가화, 윤다혜

발행일 2018년 11월 30일

발행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56
055-211-9000
http://nrich.go.kr/gaya

북디자인 예맥

발간등록번호 11-1550160-000040-01
ISBN 978-89-299-1410-3 94910
978-89-299-1408-0 (전7권)

이 책은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Collections of Data on Gaya

Documents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on Gaya

Gay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